

1
창간 1주년

sbs

매거진 12
SBS Magazine • 1992

「코미디 전망대」
MC 김경태

sbs 서울방송 Ch6 AM792

국민전당



코전단



하도 별난 일이 많은 세상이라 크게 이상할 것도 없기는 하지만 점잖게 생긴 신사가 코미디를 하는 걸 봤을 때 나도 모르게 고개가 갸웃거리지면서 “오래 갈 수 있을까?” 싶은 마음이 들었던게 사실이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나는 매주 한번씩 SBS 코미디 프로그램 「코미디 전망대」를 통해 그 신사를 만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요일 저녁이면 그의 흰한 이마가 TV화면에 광채를 발하며 나타날 밤 9시 50분이 기다려지기까지 한다.

「코미디 전망대」MC 김경태

품격있게 웃겨주는 대머리신사

김경태. 대머리가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그는 「코미디 전망대」의 메인 MC를 맡아 프로그램 전체를 이끌어 가는 사람이다. 오프닝과 각 코너 사이사이의 중간 멘트, 클로징을 하면서 그는 점잖게 사람들을 웃긴다. 아니다. 그가 웃긴다는 건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그 스스로는 웃기는 사람이 아니되, 그의 존재는 다른 코미디언으로 하여금 마음놓고 코미디를 하게끔 만들어 주는, 어찌 보면 좀 특이한 재주를 지녔다. 연출자도, 작가도 아니면서 그렇다. 왜 그럴까? 아마도 그건 그의 지난 삶에서 연유하리라.

그는 코미디언으로서 신인 속에 속한다. 그것도 늙은 신인이다. 그러나 그는 '코미디의 대부'라는 칭호를 듣는 사람이다. 왕년에 코미디 연출을 스무해도 넘게 했던 경력의 소유자이기 때문이다. 이름을 대면 단박에 알 만한 지난 날의 인기 코미디가 거개 그의 손을 거쳐서 만들어졌다. 사람들이 다들 그를 보고 '김 위원님'이라고 부르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TBC





와 MBC와 KBS에 근무할 때 그가 맡았던 직책이 제작위원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명실공히 한국의 방송 코미디와 코미디언을 만드는 일에 평생을 바친 사람이다. 그의 코미디 연기가 웃기는 쪽보다는 웃음을 만드는 쪽의 성향을 띤 것은 역할이 앵커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런 전력에서 비롯된다.

그는 지금 오십대 후반이다. 보통사람 같으면 은퇴하고 싶 수도 있는 나이, 혹은 책상머리에 앉아 결재도장이나 찍고 있을 연배이다. 그러나 그는 '늙은 신인' 소리를 들으며 과감하게 코미디 연기를 시작했다. 코미디 프로듀서 일을 그만두고 미국에 건너가서 한 8년 교포방송 일을 보다가 91년도에 귀국한 그에게 마침 그때 개국한 SBS 텔레비전으로부터 「코미디 전망대」에 출연해달라는 제의가 들어왔다. 연출이 아니고 출연을 하라는 것이었다. 용기가 필요했다. 하지만 용기를 내는 일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 평생 코미디를 위해서 살았다고 자부하는 그로서는 좋은 코미디 한번 만들어 보자는 데 주저할 까닭이 없었던 것이다. 오히려 요즘 김학래나 박미선으로부터 놀림감이 되고 있는 너무 넓은 이마가 당시 그 자신이 생각해도 걱정이었다. 화면이 너무 번쩍거려서(?) 시청자들이 채널을 돌려버리지나 않을까 걱정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프로그램의 인기는 폭발적이었다. 젊은 코미디언들의 제치와 원숙한 신사풍의 그의 연기가 절묘한 앙상블을 이루어내는 가운데 「코미디 전망대」는 종래 볼 수 없던 풍자와 유머를 안방에 선사했고, 당연히 그의 코미디언 데뷔도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다.

그래선지 그는 요즘 대단히 즐겁다. 원손보다 오른손이 커졌다는 엉뚱한 소리도 한다. 연



출처 시절엔 이십년동안 술한 인기 코미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도 밖에 나가면 누구 한사람 알아보기는 커녕 악수 한번 하자는 이가 없었는데, 요즘은 그야말로 악수와 사인 공세에 시달리느라 정신이 없기 때문이다. 그게 그의 오른손이 커진 이유다.

각종 직장 연수 교육에 초대받아 '유머 화술과 아름다운 인간 관계'라는 제목의 초청 강연을 하고, 여러가지 잡지에 유머 수필이나 유머 토크를 기고하는 일도 TV 출연 못지않게 그를 바쁘고 즐겁게 하는 일들이다. 그런 것들은 모두 이 세상을 밝게 하고 사람들의 생활을 즐겁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까닭이다. 「당신도 남을 웃길 수 있다」라는 코미디 입문서를 펴내기도 했던 그는 앞으로도 웃음에 관한 책을 쓰고 코미디 전문 프로덕션을 차려 좋은 코미디도 만들어볼 생각이다. 한국의 코미디가 더욱 좋아지는 데에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이 조금이라도 초석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때문이다. 그것이 젊잖은 신사가 늙은 신인으로 변신

한 이유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자식들이 다 미국에 살고 있는지라 그는 다 늙은 나이에 아내와 단둘이 신혼처럼 산다며 멋지게 웃는다. 아나운서 출신인 그의 아내 오신근은 그에게 있어 방송 활동의 더 없는 조언자이기도 하다. 공군 정훈장교 시절,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했다가 그 프로의 진행자였던 여자한테 반해 아내로 만든 뒤 그의 아내사랑, 혹은 자랑은 오늘까지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다.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 두가지를 들으려면 '아내'와 '코미디'를 꼽을 만치 코미디 사랑을 아내사랑과 동격에 놓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까닭에 어쩌면 10년 뒤에도 나는 여전히 「코미디 전망대」에서 이마와 머리의 경계가 불분명한 그의 흰한 얼굴을 만나며 웃고 있을 것 같다. S

글/정인재 · 시인

사진/서창식

4 커버스토리 / 「코미디 전망대」 MC 김경태

풍격있게 웃겨주는 대머리 신사 · 정인재

10 신년특집 프로그램 / 2부작 다큐멘터리 「사동의 땅, 몽골을 가다」

한민족의 숨결 찾아가는 초원의 길 · 홍성주

14 신년특집 프로그램 / 다큐멘터리 「맹인들의 등불, 임종옥」

부서진 몸에서 피어난 고귀한 영혼 · 한소진

매거진기획 / 제14대 대통령선거 방송

18 ① 선거방송의 과제와 방향

꼭 이뤄져야 할 정책 중심의 공정보도 · 손용

22 ② 미국의 대통령선거 방송

영향력이 큰 만큼 책임감을 잊지 않는 여론의 물포 · 백낙천

26 ③ SBS의 개표방송, 이렇게 치릅니다

첨단방식과 장비로 전국을 단숨에 연결한다 · 허원재

30 프로그램 탐험 / 주말장르 「모래위의 욕망」

어둡고 쓸쓸한 야망의 뒷모습 · 최정철

36 새 프로그램 / 「내가 진짜 스타」

‘공인된 가짜’들의 진짜 뺑치는 님은플 행진 · 김병록

44 SBS 리포트 / 텔레비전 시청형태 조사

세사람 중에 한명은 젊고 신선한 SBS 애호가 · 현경보

48 SBS 안테나 / 제1회 서암교육대상 시상

존경하는 교사상 만들기, 앞장서는 발걸음



「SBS 매거진 창간 1주년」

52 「SBS 매거진」이 뽑은 92년의 화제 여섯 · 윤종영

58 「SBS 매거진」과 나

맹형규 · 김미화 · 김종진 · 김태성 · 오아랑 · 이재호

64 PD일기 / 자나물을 떠나보내며

어쩌면 알 것도 같은 웃음 속의 외로움 · 이남기

여기는 1992, SBS 라디오입니다

- 68 지금 방송 중 / 「마음은 언제나 청춘」
새벽을 훈훈하게 담히는 노년의 다정한 벗 · 이성아
- 72 792초대석 / 기상리포터 심연
잡각으로 날써 읽어내는 10년 기상통 · 김일중
- 74 방송의 현장 / 「서울전망대」-「중계차 현장」
삶의 현장 찾아 달리는 라디오 거동대 · 박경희
- 76 메거진 수신탐
아전인수 격인 한국인의 동요의식 · 곤도 히로유키
- 78 방송 지구촌 / 천안문의 모택동과 야시장의 여성동무 · 안상문
- 82 SBS 광장 / '92 한국수퍼모델 선발대회
국제화 시대 미인의 새로운 산실 · 신선화
- 86 메거진 컬럼 / 백조로 변신한 미운 오리새끼 · 김세웅
- 88 새 드라마 / 「제3극장」
뒤돌린 세상 궤해치는 미녀탐정
- 94 92년을 달린다 / 「사랑하는 당신」의 탤런트 공형진
궁고 통성한 절감으로 채워져갈 하안종이 · 김종혁
- 96 나도 SBS맨 / 「관촌수필」의 아역탤런트 양동근
어른 팬이 더 많은 '추억의 명연기' · 김은영
- 100 TV년픽션 / 「그것이 알고싶다」를 다시본다
낙대, 소리없는 생명의 절규 · 윤미경

- 발행 · 편집인 / 윤세영
- 주간 / 김우광
- 부주간 / 손규환
- 기획 / 남지혜 · 신선희
- 사진 / 서창식 · 고도영
- 정분령



SBS 문화실록

- 106 영화 / 「1492 콜럼버스」에서 만나는 두개의 역사 · 정성일
- 108 가요 / 온갖 장르가 쏟아져나온 가요계의 92년 · 이진규
- 110 연극 / 오랜만의 페미니즘 연극, 「자기만의 방」 · 이영비
- 112 무용 / '92 춤의 해를 되돌아보며 · 김경애
- 114 SBS메거진 1년분 목차



신년특집 프로그램

2부작 다큐멘터리 「사동의 땅, 몽골을 가다」 한민족의 숨결 찾아가는 초원의 길

- 연출/홍성주
- 촬영/이천복 · 서성일
- 방송/1월 2일 오전 8시~10시



1992년 7월 17일 비.

몽골에서는 비가 오는 날을 길일로 친다고 한다. 몽골에 가기 위해 경유지인 일본 나고야로 떠나던 날은 장마의 영향으로 이른 아침부터 부슬부슬 비가 내렸다. 세 명의 제작진(PD 홍성주, 카메라맨 이천복, 오디오맨 서성일)은 나고야에서 전세비행기로 북경을 거쳐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로 향했다.

몽골의 초원지대에 사는 유목민들은 아직도 고유의 주거양식인 파오를 짓고 살고 있다. 광활한 땅위에서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몽골 유목민들에게서 정기스칸의 영광은 이제 자취도 찾아볼 수 없다.



한민족의 뿌리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거론되는 몽골. 이 몽골과 우리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을까? 우리나라 면적의 일곱 배나 되는 광활한 대지에 인구는 겨우 200만명 남짓인 몽골은 현재도 세계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낮은 나라이다. 정기스칸이 몽골초원을 통일할 때에도 불과 10만 명의 병사와 그 가족들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로 이들은 어떻게 유라시아 전역을 지배할 수 있었을까?

12세기 말, 각 부족들이 서로 다투며 전국시대의 양상을 보였던 몽골초원의 유목민들은 정기스칸에 의해 통합되었다. 유럽에 '살육과 파괴'라는 이미지를 안겨준 몽골제국은 정기스칸의 손자시대에 전성기를 맞이했다. 그러나 그 후 급속히 쇠퇴해 간다. 정기스칸이 죽은 후 불과 2세기가 되지 않아 제국영토의 거의 대부분이 지상에서 그 모습을 감추고 말았다. 그리고 그 후 몽골이라는 이름은 역사의 무대 그 어느 곳에도 등장하지 않았다.

울란바토르는 인구 50만명의 도시이다. 몽골국민의 4분의 1이 모여 살



생김새는 물론
생활풍습과 언어에
이르기까지
몽골민족은 우리와
달은점이 참으로 많다.
우리에게는 아직 낯선
나라이지만 한 이땅
어딘가에 아마
한민족의 흔적이
숨쉬고 있는지도
모른다.

고 있는 셈이다. 내놓을 만한 산업도
갖고 있지 않고 주로 유목민에 의존
하고 있는 몽골에 있어 도시로의 인
구집중은 그대로 국력의 저하로 연결
되어 나라 전체의 문제가 되고 있다.
'울란'이란 '붉은 색'을 나타내는
말이고 '바토르'는 '영웅'을 의미한
다. 그러므로 '울란바토르'는 '붉은
영웅'이란 뜻이 된다.

몽골은 소련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사회주의 혁명에 의해 독립한

나라이다. 청나라의 강한 영향 아래
있었던 외몽골 지방은 왕족과 귀족,
그리고 라마승 등과 같은 지배층의
압제하에 있었다. 1911년 중국에 신
해혁명이 일어나자 외몽골은 독립을
선언하지만 불과 7년만에 다시 중국
군의 침입을 받아 자치권을 빼앗기고
만다.

중국의 지배로부터 해방된 것은
1921년의 일이다. 이때 이미 사회주
의 혁명에 성공해 있던 소련의 도움
을 받아 민족자결과 신분제 타파를 내
건 혁명이 일어나고, 3년 뒤인 1924
년에 탄생한 것이 몽골 인민공화국이다.
이 혁명의 성공은 몽골민족에 있
어서는 민족의 독립을 의미했다. 그
러나 동시에 혁명을 지도하고 지원했
던 소련연방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요인이 되어 소련연방의 16번째 공
화국이라고까지 불리우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소련연방이 무너진

후 몽골의 정치, 사회, 경제는 급속히 민주화와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어 가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원래 삼림수렵민족이었던 몽골민족이 몽골땅으로 이동하여 유목을 시작한 것은 8~9세기 경이라고 한다. 지금의 '원자탄'에 비유될 수 있는 '말'을 다루는 기술의 습득으로 몽골인은 초원을 지배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게 된다. 징기스칸 역시 그 힘으로 타타르의 본거지인 동몽골을 점령한 후 몽골평원을 지배하게 된 것이다.

징기스칸의 전설이 전해 내려오는 다리강 지역, 징기스칸이 무기를 만들었다는 모로쇠산, 그 무기를 식혔다는 강가호수, 대군 10만을 숨겼던 실림부드, SBS 취재팀은 한국 방송사로서는 처음으로 이 광활한 동몽골을 취재할 수 있었다.

취재팀을 실은 짐차는 동몽골 대 초원에서는 그야말로 일엽편주였다. 길을 한번 잘못 들면 사나흘은 들판에서 헤매야 되고 야생동물이 많아 늑대가 나타나는 등 동몽골은 그야말로 문명인의 손길이 닿지 않은 오지였기 때문이다.

동몽골 지역에는 고울링(고려를 일컫는 몽골말)에 대한 유적과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다. 고울링 사람들은 할함굴에 살았으며 후에 다리강가로 이주했다. 할함굴에 세워진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훈출로(돌하루방 모양으로 징기스칸 시대에 세워졌다고 함)는 고울링과 몽골의 국경 표시이다. 이 국경을 사이에 두고 몽골

여인과 고려여인은 의식을 행했다. 할함굴과 다리강가 지역에서는 고려 성터와 적석총이 발견되고 있다.

몽골인들은 한국인들을 한 핏줄의 민족으로 생각한다. 이것을 몽골인들은 '사동'이라고 말한다. 과연 몽골인들과 우리는 어떤 관계인가?

1922년 8월 12일 맑음.

몽골 취재 25일째. 섭씨30도를 웃도는 더위, 초원의 강한 모래바람, 양고기와 유제품만의 식사. 우리는 지금 거대한 초원에서 몽골인과 함께 숨쉬던 고구려 유목민들의 숨결이 잠든 땅에 있다.

눈이 녹아 흘러내린 맑은 물, 유목

들과 10만명의 병사로 유럽과 아시아를 지배했던 대제국의 위용은 흔적으로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사동의 땅' 몽골에는 우리의 조상인 고구려 유목민의 기상이 아직도 곳곳에 흐르고 있다. 한국방송사에서서는 처음으로 SBS가 그 흔적을 더듬어 보았다.



민들은 이 물을 먹고 자란 풀이 가장 좋은 풀이라고 했다. 유목민에게 있어 물은 생명의 젖줄이다. 따라서 본래의 유목민족은 만년설을 기대고 살았으며 이 만년설은 맑은 물을 유목민에게 제공해 왔다. 우리 민족이 왜 하얀색을 신성시해 왔는지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다. S

글/홍성주 · TV제작국 기획특집부 부장 대우

사진/서성일 · TV제작국 영상제작부

다큐멘터리

「맹인들의 등불, 임종욱」

부서진 몸에서 피어난 고귀한 영혼

- 연출/박영호
- 촬영/이천복 · 김석일
- 방송/93년 1월 2일 낮 12시 20분~1시 20분



임종욱이라는 서른세살 먹은 부산 사나이가 있다. 뜻하지 않은 사고만 당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아마도 평범한 가정을 이끄는 소시민으로, 평범한 남편이자 아버지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이러한 평범한 길이 주어지지 않았다. 만일 인간의 생을 주관하며 각본을 쓰는 보이지 않는 신(神)의 손이 있다면, 그 신은 임종욱이라는 한 인간의 삶을 철저히 망가뜨려 놓았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할 것이다.

17년 전, 연탄가스 중독이 시발점이었다. 그날 가스에 중독돼 2층 옥상으로 바람만 쐬러 가지 않았어도 계단아래로 굴러 떨어져 전신마비가 된 채 평생을 살아야 하는 비운은 없었을 것이다.

임종욱, 마라톤 선수를 꿈꾸었을 만큼 건강했던 한 소년은 그 길로 석상처럼 굳어진 몸으로 누운 채 긴긴 날을 살아야 했던 것이다. 그런 그가 또다른 장애인인 맹인들의 등불로 살아간다는 사실, 그것은 그를 통해 받은 충격 중의 충격이었다.

SBS의 93 연중캠페인인 '장애인을 가족처럼'은 SBS의 창사 이념이기도 하고, 소외의 전형적인 인물처럼 여겨지던 장애인들을 함께 사는 이웃으로 감싸 안으려는 SBS의 의지이기도 하다. 이러한 SBS의 의지는 장애인 프로그램인 「사랑의 정검 다리」를 통해 적극적으로 이뤄지기도 했다. 나아가 SBS는 이를 93년 연중 캠페인으로 삼아 아예 장애인과

창립 2주년 기념

제3회 장애인문학 세미나, 숭대문학의 밤, 합동출판 기념회

1992년 11월 27일(금) 오후 2시~7시 서울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강당

주최: 한국장애인 문화협회

후원: 한국장애인 재향협회, 한국장애인 복지체육회



더불어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굳건히 하고, 그 목표를 곧추세웠던 것이다.

새해 벽두부터 우리는 SBS의 화면을 통해 장애인을 만나게 될 것이다. 60분짜리 장애인 다큐멘터리가 새해의 첫 문을 열 예정인데, 이를 위해 적절한 인물을 찾던 중 부산에 접거하고 있는 임종욱, 그를 만나게 된 것이다.

어깨 아래 부분은 어느 한 곳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단지 양팔과 왼쪽 엄지 손가락만 간신히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런 그가 터끌만한 작은 힘으로 남을 위해 헌신하고 있었다. 맹인들이 입을 책을 점자로 찍는 점역(點譯) 작업을 하고 있는 그는 오그라든 두 손으로 지난 85년부터 수필집, 시집 등 250여 권에 달하는 눈물의 점자책을 작성하여 부산맹인복지회관에 기증, 한편의 '인간 승리'를 거두어낸 주인공이기도 하다. 그는



어떤 사람이길래, 정상인도 하기 힘든 점역작업을 벌써 7년째 병상에 었드린 채 맘을 흘리며 하고 있을까.

가끔씩 찾아주던 친구들의 발길도 툭 끊긴 채, 머리맡에 놓인 라디오만을 세상으로 향하는 유일한 출구로 삼아 외롭고 지루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어느날, 그 라디오에서 맹인들을 위한 점역작업을 할 봉사자를 찾겠다는 안내방송이 흘러 나온것에서 임종욱의 새인생은 비롯되었다.

형편없이 부서져버린 몸속에서 고귀하게 피어난 영혼은 참으로 커다란 힘을 갖고 있는 모양이다. 장애인이 장애인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놀라운데 그는 문학으로 자신의 삶까지 아름답게 감무리하고 있다.



그가 점역해놓은 책은 많은 맹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의 외로움을 덜어주는 다시 없는 친구가 되고 있다. 한번도 본적이 없건만 부산의 맹인들에게 그는 좋은 벗이요, 최고의 미남이며 살아있는 천사이기도 하다.

세상에 태어나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눈을 감는 것 만큼 괴로운 일은 없을 거라며 자신을 확대하던 그에게, 그 안내방송은 건강을 앗아간 신(神)이 마지막으로 베푼 보잘 것 없는 선심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를 아주 달게 받아들였다. 내가 하겠노라고, 내가 한 번 해 보겠노라고.

그는 자신의 의지를 곧 방송사에 알렸고, 사흘 뒤 찾아온 맹인복지협회 이순옥 이사의 도움으로 보통사람도 서너달은 걸려야 배울 수 있는 일을 단 2주일 만에 배워버렸다.

임종옥은 점필을 두 손바닥 사이에 끼우고 맹인들을 생각하며 한자 한자 찍어 나갔다. 앞드린 채 체중을 모두 팔뚝꿈치에 받쳐 하루 열시간 이상 계속하는 중노동이어서 마침내 양 팔꿈치가 헐고 피고름이 터져나오기를 6개월이나 반복했다. 그러나 자신이 만든 점자책을 읽고 있을 누군가를 생각하며, 두 눈이 있어 이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기 시작했다.

임종옥이 찍어내는 양은 정말 보잘 것이 없다. 정상적인 사람이면 한 장 만드는 데 7~8분이 걸리지만 힘



이 달리는 그로서는 열시간 내내 찍어내도 고작 열다섯장 안팎에 불과하다. 하지만 정상인의 점역봉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 비춰보면 그가 만들어 내는 양은 그 어떤 것보다 값지다 할 수 있다.

이렇듯 7년간 살을 깎는 아픔 끝에 그가 점역해낸 책은 장편소설, 수필, 시 등 무려 250권이 넘는다. 게다가 지금까지 부산에선 고문(古文)을 점역해 낸 사람이 없었으나, 임종옥은 그 일까지 해냈고 그가 점역해 낸 고문으로 공부한 맹인 수험생이 지난해 대구대에 합격, 그를 더욱 기쁘게 하기도 했다.

“비록 정상인이라 한들, 자신에게 닥쳐온 불행에 맞서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저보다 더한 전신마비



은 그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삶에 복 받쳐 지난 5년간 임종욱을 향해 수많은 사랑과 우정의 편지를 보냈다.

‘45년이란 긴 세월동안 이처럼 나의 가슴을 울린 일은 없었습니다. 87년 새해에 서울에서 안헤초 드림.’

이로써 시작된 두 사람의 편지는 오늘까지 지속됐고 400여통의 편지가 최근 「내 안의 또 한 사람」이라는 책으로 출간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더불어 두 사람의 오고 가는 편지 속에서 임종욱은 드디어 자기 속에 깊이 잠재돼 있던 문학적 소양들을 꺼내 펼치기 시작했다. 서글픈 몸뚱아리, 저런 마음들을 영혼으로 다시 빚어내어 시와 수필들을 써내려 가게 된 것이다.

이 감동적인 한 인간의 다큐멘터리가 새해 1월 2일, 시청자들을 찾아간다. 아침에 맹인을 만나면 재수가 없다며 고개를 돌리는 이 시대 우리들 냉혹함의 벽을 뚫고 선입관을 허물어 드리는 맹렬함으로 다가갈 것이다.

임종욱, 그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그의 점자책을 읽는 부산의 맹인들은 하나같이 고마움에 넘친 얼굴로 한번도 본 적이 없는 그를 얘기한다. “임종욱 씨는 키도 크고 잘생겼을 것 같아요.”

1월 2일 새해 아침, 우리는 부서져 버린 몸 속에서 피어난 고귀한 영혼 하나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S**

글/한소진 · 방송구성작가

사진/고도영



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평범한 사람보다 훨씬 더 나쁜 조건과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이가 엄청난 내면의 힘으로 자신을 단련하여 우리에게 ‘비범한 감동’을 느끼게 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다. 임종욱, 그가 바로 그런 인물이었다. 그의 사연을 접한 안헤초 시인

1 선거방송의 과제와 방향

꼭 이뤄져야 할 정책 중심의 공정보도

손용 ·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손용 · 38년에 서울에서 살고 미국 캘리포니아 유배대를 거쳐 캘리포니아 대학원에서 커뮤니케이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장과 한국방송학회장을 역임했고 93년 한국언론학회회장으로 내정되어 있다. 「방송정책제론」 「뉴미디어론」 등의 저서를 냈다.

현 대정지에서 방송이 선거의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사실이다. 특히 대통령 선거 일정이 공고되고 본격적인 선거 유세에 들어가면서 TV를 통한 선거 캠페인과 선거 관련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으며, 선거방송에 대한 사안들이 국민적 관심 속에 쟁점화되고 있다. 곧 정치광고의 허용 결정 및 시행과 후보자의 TV토론 등의 논의가 그것이다.

그러나 선거방송에 있어서 어떤 방식이 가장 합리적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고 있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 완벽한 합의를 이루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선거방송에 대한 일반적 사항을 개괄해 보고 그동안 제기되어왔던 문제점을 중심으로 선거방송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선거방송의 영역과 내용

선거방송이란 대개 투표일 이전까지의 취재 보도나 선거일의 투표표방송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보면 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방송 및 선거에 관련되는 모든 프로그램을 말한다. 예컨대 보도 프로그램 이외의 선거관련 대담, 토론, 인터뷰 등의 시사 프로그램과 정치광고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이 다양한 선거방송의 내용과 기능은 다음과 같다. 보도 프로그램은 후보나 정당의 정책공약, 과거 공약의 이행 정도, 후보의 자질이나 정책 수행 능력과 선거운동 방식을 다루며 선거 관련 시사프로그램은 정책과 현안에 대한 쟁점의 부각 및 논의를 그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다. 한편 광고방송은 투표행위에 필요한 정보를 설득적으로 전달하는 채널로서 우리 나라에서 최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영역이다.



선거 방송은 대개 투표일 이전까지의 취재 보도나 선거일의 투표표 방송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넓은 의미의 선거 방송은 선거에 관련되는 모든 프로그램을 말한다. 예컨대 보도 프로그램 이외의 선거 관련 대담, 토론, 인터뷰 등의 시사 프로그램과 정치 광고 등을 포함한다.

선거방송의 특성 - TV선거의 전개

매스미디어가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지적인 바 있지만 특히 텔레비전은 가장 대중적이며, 시청각을 수단으로 현실과 가장 가까운 이미지를 형성시켜 주는 매체로서 선거방송에서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텔레비전이 '킹 메이커'(King Maker)라 불릴 정도로 선거에서 그 결과를 좌우할 정도의 막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Telecracy' 혹은 'New Politics'라는 상징적인 용어로서 설명되기도 하는데, 선거에 대한 TV의 영향력은 다음과 같이 평가되고 있다. 첫째, 유권자의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증대시킨다. 둘째, 후보자에 대한 지식과 인상을 유권자들에게 심어준다. 셋째, 선거공약이나 이슈를 제기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판단의 근거를 마련해 준다. 넷째, 정

치와 국민과의 관계를 형성시켜 주는 정치화 과정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TV를 통한 선거방송은 그것이 갖는 정기능뿐만 아니라 역기능도 함께 파생할 수 있다. 이는 TV선거방송의 활성화 방안과 더불어 그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함께 수행되어야 함을 요구한다.

우리나라 선거방송의 현황

우리 나라의 선거방송은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약하여 보도 프로그램 이외에는 별다른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1948년 정부수립 이후 1960년 제4대 대통령 선거까지 선거법에 방송시설의 이용에 관한 명문 규정이 뚜렷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수상기의 보급이 미미하여 각 정당 후보들의 방송시설을 이용하려는 의욕도 적극적이지 못했다.



그러나 5·16이후 대통령 중심제로의 헌법 개정과 함께 제정된 선거법에 의해 방송을 통한 후보자의 정견 발표의 길이 마련되었다. 특히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기간 중에는 전

선거 방송이 더이상 '결마저널리즘'으로 지탄받아서는 안된다. 선거 방송에 있어서 정책 중심의 쟁점들을 공정하게 제작하고 방송함으로써 정치 문화를 고양시키는 것이야말로 국가적 차원에서 요구되는 방송의 시대적 사명이기 때문이다.



파 매체의 광역성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어 적극적으로 방송을 이용하였고, TV를 통한 최초의 정견발표가 이루어졌다. 이후 TV수상기 보급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1987년 대통령 선거부터 본격적인 TV방송이 실시되었다.

따라서 1987년의 대통령선거와 1988년의 총선방송은 우리 나라의 선거방송에 있어 커다란 획을 그었다고 하겠다. 특히 올해에는 14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이 있었고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방송사상 최초의 정치광고가 허용되고 후보자들의 TV토론을 위한 협상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선거방송의 발전 방향

선거방송의 바람직한 전개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크게 두가지 차원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공정성의 확보와 구체적 쟁점 지향의 보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그것이다.

먼저 공정성의 문제는 선거방송에서 제기되는 핵심적 문제로서 역대 선거방송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공정성이 부각되어야 할 이유로는 선거방송이 국민 각 계층의 다양한 욕구와 이해, 그리고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원칙에서 비롯된다. 또한 논쟁의 대상이 되는 문제를 다룸에 있어 중



립성, 객관성, 형평성을 유지하여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도모하는 데에 선거방송의 진의가 있다는 점에서 중요시 된다.

선거방송에서 이러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형평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즉 어느 후보자에 대한 보도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다면 다른 경쟁후보에게도 똑같은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한 기계적, 산술적 공정정보보다는 총체적 의미의 공정성이 요구되어 차원 높은 선거방송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컨대 뉴스 프로그램에서 지나치게 동등한 시간을 적용함으로써 자칫 주요 쟁점에 대한 본질이 간과되어 선거방송의 의미가 손상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TV의 경우 그 매체적 속성에서 파생되는 불공정성으로 인해 내용에서의 왜곡이 문제가 된다. 곧 영상을 주요 전달수단으로 하는 TV에서 카메라의 기술적 조작을 통한 화면 제시는 유권자로 하여금 진실을 호도케 하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문제점은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실제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선거방송의 편파보도에 대한 사례로서 자주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방송사의 개선 의지 및 규제 등을 통해 올바른 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한편, 선거방송이 쟁점지향적이지 못하다는 문제는 피상적인 보도 관행에서 비롯된다. 피

상적 보도 관행은 유권자와 후보자와의 접촉을 매개하는 과정에서 정책적 대결 양상보다 후보자의 이미지나 선거의 단순한 경쟁 양상만을 단편적으로 보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선거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각 정당의 선거대책이나 후보들의 동향은 보도되지만 제시되는 공약에 대한 해설, 논평 등의 심층 보도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선거방송이 '경마 저널리즘'으로 표현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비록 선거방송이 입후보자의 당락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겠으나 '선거를 통한 정치발전'이라는 민주정치의 이상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점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한다.

특히 TV의 경우는 시간적 제약과 추상적 개념에 대한 전달력 한계라는 매체적 속성으로 인해 심층적인 보도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중요 쟁점을 방송하는 데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결국, 선거방송에 있어서 주요한 목표는 정책 이슈 중심의 쟁점들을 공정하게 제작하고 방송함으로써 정치문화를 고양시키는 데에 있다. 이는 정치의 민주화 실현이라는 국가적 차원의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방송의 시대적 사명이기도 하다. **5**



② 미국의 대통령 선거방송 영향력이 큰 만큼 책임감을 잊지 않는 여론의 물꼬

백낙천 · 위싱턴 특파원

한 국은 요즘 전국이 대학입시로 또 한번 난리를 치르고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하든지 일단 대학에 들어가고 보자는 생각이 최우선의 고려사항이고 이를 위한 갖가지 방법이 동원되고 있을 것이며 눈치작전을 비롯해 올해도 여전히 배짱지원하는 수험생이 또 화제가 될 것이다. 본인이야 소신이 있어서라고 하지만 주위에서는 만용이라며 핀잔을 준다. 그러나 합격만 되면 얼마나 신나는 일인가.

이번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의 높은 인기를 누리는 현직 대통령 부시에게 누구도 감히 도전할 마음조차 먹지 못하고 속만 태우고 있을 때 미국에서도 가장 낙후된 주인 아칸소 주의 클린턴이라는 애송이(?) 지사가 1년전에 일찌감치 도전장을 내고 선거전에 뛰어든 것은 누구의 눈으로 봐도 패배가 분명한 하나의 만용에 불과했다. 그 역시 말하자면 배짱 출마, 좋게 봐서 그 정도밖에 안됐다고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클린턴은 예비선거 과정에서 터져나온 여자문제, 병역기피문제를 비롯한 수많은 난관을 넘어 백악관 주인의 자리에 올랐다. 어

쥬 보면 그는 위기와 시련을 통해 더욱 강인해지는 인상이었다. 실로 콜리엇을 물리친 다윗에 비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월 뉴햄프셔 예비선거를 취재할 때 만난 미국 NBC 방송의 존 샌슬러가 한 말이 있었다. “저 클린턴이라는 사람을 앞으로 잘 지켜보시오. 민주당에서는 저 사람이 나가게 될 테니까.”

그 때만 해도 다섯명의 민주당 후보 가운데 그는 분명 선두도 아니었으며, 더욱이 그것을 모를 리 없는 샌슬러가 그런 말을 하다나... 의아한 느낌마저 들었던 기억이 난다.

클린턴의 승리 요인은 계속된 불경기 등 경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분석되지만 이번에도 텔레비전을 빼놓고는 이야기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다. 미국의 선거에서 텔레비전이 차지하는 비중이야 익히 알려져 있는 것이지만

이번 선거는 어느 때보다 그 위력을 실감할 수 있는 기회였다. 특히 클린턴과 페로라는 후보가 나와 텔레비전의 효과를 최대한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그 영향력을 한껏 높여 놓았다.

후보들의 텔레비전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크게 생방송 대담 프로그램의 출연, 광고방송, 텔레비전 토론, 그리고 뉴스 시간의 보도로 이루어진다.

제니퍼 플라워즈라는 카바레 가수와의 관계가 보도되는 바람에 클린턴이 침몰 일보 직전일 때 예비선거에서 부인 힐러리 여사와 함께 방송에 출연해 급한 불을 끈 것이라든지, 대통령 후보로서는 점잖지 못하다는 일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검은 안경을 끼고 연예인들이 출연하는 쇼 프로그램에서 색소폰을 연주한 일, 유권자도 아닌 청소년 대상의 음악프로그램에 나가 방청객으로 온 청소년과 대화한 일들이

미국의 선거에서 텔레비전이 차지하는 비중이야 익히 알려져 있는 것이지만, 이번 선거는 어느 때보다 그 위력을 실감할 수 있었다. 대통령 당선자인 클린턴은 텔레비전의 효과를 최대한 이용함으로써 그 영향력을 한층 높여 놓았다.



이번 선거와 텔레비전의 관계를 일찌감치 예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페로는 어떤가, 지난 봄 출마의 뜻이 있음을 비친 것도 텔레비전의 대담 프로에서였고 한번 포기했다가 다시 출마의 변을 털어놓은 곳 역시 거기였다. 전국적인 당 조직이 없는 그는 막대한 자금력으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사서 자신의 공약을 발표하는 등 주로 텔레비전에 의존했다. 그렇게 되니 텔레비전의 대담 프로그램은 거의 매일 후보들을 번갈아 출연시킴으로써 성가를 높였고 CNN의 래리 킹을 비롯한 토크 프로의 사회자들이 목에 한껏 힘을 주게 된 것도 이번 선거의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각 후보들이 텔레비전에 쏟아넣은 광고료만 해도 엄청나 세 후보 모두 합해 3억 3천만 달러(약 2,600억원)를 사용했고 그 액수는 처음의 예상보다 무려 36퍼센트가 많은 것이었다는 사실에서도 이번 선거에서 텔레비전의 역할을 잘 알 수 있다.



텔레비전과 선거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는 여론의 추이를 계속 발표하는 텔레비전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는 거의 매일 보도돼 각 후보들은 나름대로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여론조사에서 계속 클린턴 후보에게 지고 있던 부시 대통령이 선거 막판에 여론조사를 믿지 않는다면 언론을 비난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났을 때 부시 대통령의 말보다는 여론조사가 기막히게 들어맞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43퍼센트 대 38퍼센트로 클린턴이 승리한 것으로 밝혀졌으니 말이다.

미국의 선거에서 텔레비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엇보다도 후보들의 토론에서 잘 나타난다. 주요 텔레비전 방송의 저녁시간대에 맞춰 토론시간이 잡혀지는 것이 그 단적인 예이다. 이번 선거에서 당초 부시 대통령은 토론을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그러나 여론조사 결과가 신통치 않아 별 수 없다는 측근들의 권유에 다른 두 후보의 제의를 마지못해 받아들였다. 혹시나 하고 나선 셈이었지만 결국 세차례의 토론에서도 부시 대통령은 클린턴을 따라잡지 못한 채 정권을 내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선거에서 텔레비전의 영향력이 대단한 만큼 미국의 방송사들은 그 책임 또한 크게 느끼는 것 같다.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방송사들이 열심히 여론 조사를 하면서



미국의 경우 방송과 선거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에는 여론의 추이를 계속 발표하는 텔레비전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투표일이 임박한 시점에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거의 매일 보도되어 각 후보들은 나름대로 부족한 점을 메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게 된다.

도 투표 당일 서부지역의 투표가 거의 끝나가는 시간까지 발표를 자제하는 것을 보면서 유권자들의 신성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선거 결과가 밝혀지기가 무섭게 부시가 보여준 패자로서의 의연한 자세는 민주주의의 귀감이라고 할 만했다. 바로 몇시간 전까지 클린턴을 대통령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몰아붙이면서 험한 말도 서슴지 않은 그가 아니었던가. 그러나 그는 자신의 패배가 분명해지자 클린턴에게 전화를 걸어 깨끗이 승복하고 승리를 축하하며 평화적인 정부 이양을 약속했다. 그의 태도는 가뭄 끝에 한 줄기 소나기 만큼이나 신선한 느낌이었고, 선거를 앞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좋은 전통이 아닌가 싶다.

선거는 이제 끝나고, 곧 떨어진 연과도 같은 처지가 되어버린 부시 대통령은 하루도 더 있기가 지겨울 백악관에서 내년 1월 20일까지는

꼭 참고 살아야 하는 고역을 치르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만나겠다고 줄을 서던 국내외의 술한 인사들이 후임자가 들어올 날만을 눈치를 살피며 기다리고 있고 후임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크게 보도되는 반면 그 자신은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으니 속이 얼마나 끓겠는가. 이른바 '레임덕'의 외로움을 그는 지금 처절하게 느끼고 있을 것이다.

부시의 측근들은 짐을 챙겨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에 한창이고 반대로 클린턴 쪽 사람들은 12년만에 민주당이 입성하게 된 워싱턴에서 한자리씩을 차지하기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는 한편 집을 사거나 빌리느라고 분주하다는 소식이다. 그러나 클린턴 역시 4년 후 이맘때 또 다른 배방 출마자에게 패배하지 말라는 법도 없으니 부디 정치를 잘 해서 부시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기대해본다. **5**

3 SBS의 개표방송, 이렇게 치릅니다

첨단방식과 장비로 전국을 단숨에 연결한다

허원재 · 보도국 편집제작부 차장



동서양을 막론하고 작은 것에 대한 외경심은 고급(古今)을 통해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천하무적이던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은 작은 몸짓이었지만 지혜로 이를 극복했다. '작은 고추'에 대한 우리의 속담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비록 작은 규모일지라도 그가 갖춘 기능성과 효율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인한 정신력이 양적 열세를 극복하고도 남음이 있다.

불과 열흘도 채 남지 않은 14대 대통령선거. 우리의 정치사에 또 하나의 커다란 획을 긋게 될 국민적 축제인 대통령선거는 방송인의 입장에서 볼 때 또 다른 의미에서 대사전이다.

28일간의 선거 유세라는 대장정(大長征)의 막이 내리면 향후 조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대통령이 과연 누구인가를 결정짓는 개표방송의 막이 오르게 된다. 12월 18일 저녁 7시부터 시작되는 개표방송은 밤을 뜯눈으로 지새우고 다음날인 19일 오전 7시경까지 장장 열두시간 동안 생방송된다. 온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전 방송인은 이를 위해 방송의 모든 것을 경주하게 될 것이다. 이번 대통령선거 개표방송은 특히 SBS에게는 남다른 의미가 있다.

지난해 3월 20일 라디오 개국 이후 엿새만에 기초의회선거를, 또 곧이어 6월에는 광역의회선거를 라디오로 생중계했다. SBS-TV가 개국된 후 석달만인 올 3월 24일엔 제14대 국회의원 선거를 TV로 철야 생중계방송했다. 이 세차례에 걸친 라디오와 TV 개표실황 생중계는 기존의 두 방송사와는 차별화한다는 원칙 아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서울과 인천, 경기도 지역 등 수도권 지역만 개표방송의 주요 대상지역으로 삼았다. 따라서 전국 상황을 보도한 타 방송사와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없다는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1992년 5월 27일, SBS는 '14대 대통령선



이번 14대 대통령 선거 개표 방송의 생명은 빠르고 정확한 후보별 득표 집계에 있다는 데에 일치해 본 SBS의 대선기획단은 개표소와 본사 사이의 송수신 과정을 과감히 단축시키는 SBS만의 집계 방식을 개발함으로써 방송 3사 중 가장 빠른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거 개표상황 방송기획단'(약칭 : 대선기획단)을 발족시켰다. 이번 대통령선거 개표방송에서 SBS는 처음으로 기존의 두 방송사와 전국을 무대로 동일한 조건에서 본격적인 경쟁을 벌이게 된다. 한마디로 전면전(Total War)에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선 기획단은 그동안 6개월이라는 준비기간을 갖고 전산자료 준비와 컴퓨터그래픽 처리방송, 전국 집계망 구성 방안 등 개표방송의 핵심과제 등에 대해 관련부서 전문가들이 모여 50여 차례의 크고 작은 모임을 통해 끊임없는 아이디어 개발회의를 가졌다.

대선기획단은 이번 개표방송의 생명은 빠르고 정확한 후보별 득표 집계에 있다는 데 의견 일치를 보았다. 따라서 종래의 집계방식을 대폭 개선해 308개 개표소와 본사 사이의 송수신 과정을 과감히 단축시키는 SBS만의 집계방식을 개발함으로써 방송 3사 중 가장 빠른 정

보 전달이 가능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최신 전화교환 설비(NEAX-2400 1M)가 최근에 도입돼 현재 설치 가동중에 있고, 무엇보다도 SBS가 보유하고 있는 주컴퓨터(IBM ES-9000 MODEL 260)가 타사에 비해 용량과 정보처리 속도에 있어서 4.2배 내지 10배 이상 빠르다는 점이 강점으로 작용해 가장 빠른 개표 집계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 대통령선거 개표 방송에서는 첨단 장비를 활용해 만들어지는 다양한 컴퓨터그래픽이 펼쳐지는 영상전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SBS는 지난 총선때 처음 가동시킨 바 있는 독자적인 선거정보처리 시스템을 대폭 개선시킨 VIPON-Ⅱ(Voting Information Processing On-line Network-Ⅱ : 선거정보처리 온라인시스템) 체계를 개발함으로써 화려한 영상 서비스로 시청자의 눈을 채널 6에



이번 개표 방송에서 SBS는 전국 여덟개 지국망을 라이브로 연결함으로써 지방 취재에서도 속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전국 취재망 구성이라는 서울방송의 미래상을 구현하는 하나의 실험장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정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VIPON-Ⅱ의 주축 장비는 타방송사가 사용하는 퍼스널 컴퓨터보다 한 차원 높은 수준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픽 처리 속도가 열배나 빠르다. 또한 생동감있는 3차원 입체영상을 표출함으로써 영상의 차별화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컴퓨터그래픽팀은 개표방송 당일 우리 방송사상 처음 시도되는 특수 화면 처리 기법을 비장의 무기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SBS 시청자를 사로잡을 또 하나의 기획상품은 바로 각 후보별 득표 예측 프로그램이다. 개표방송의 하이라이트는 대통령 당선자가 누구인가를 결정짓는 것이고, 따라서 국민의 관심은 어느 후보가 당선자가 될 것이며 득표율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에 있다. 대선기획단이 개발한 당락 예상 프로그램은 이러한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최단시간에 풀어줄 것이다.

대통령 선거는 그동안 치른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의회의원 선거와는 달리 전국이 하나의 선거구로서 한명의 당선자만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자칫 개표방송이 308개 개표소의 득표 현황만을 소개할 경우 시청자들에게 지루함을 가져다 줄 우려가 크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개표 방송 중간중간 다양한 기획물을 안배함으로써 시청자들이 이번 대통령선거의 의미와 결과, 앞으로의 정국 전개과정에 대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70여종에 이르는 분석용 컴퓨터그래픽 화면이 큰 몫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BS는 이번 선거 개표방송을 그동안 축재처럼 여겨졌던 로컬방송이라는 이미지를 탈색시키는 전환점으로 삼고자 한다. 기존 수도권 4개 지국에 이어 지난달에는 부산과 대구, 광주, 대전 등 주요 지방 4대 도시의 지국에도 마



이크로웨이브가 개통됨으로써 현장 생중계가 가능하게 됐다. 이번 개표방송에서도 전국 8개 지국망을 라이브로 연결함으로써 지방 취재에서도 속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전국 취재망 구성이라는 새로운 위상을 선보임으로써 SBS의 스테이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서울시내 일부 언론사의 대형 옥외 전광판과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공항, 역, 비스터미널 등지에 설치돼 있는 대소형 옥외 전광판에 'SBS 제공' 자막이 들어있는 개표 실태 속보가 수시로 표출돼 SBS를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한국 PC통신이 운영하고 있는 하이텔(HITEL)에 후보별 득표 자료를 즉시 전송해 줌으로써 6만여 명의 가입자가 원하는 정보를 임의로 선택해 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SBS의 위상을 제고시킬 계획이다.

방송경력이 불과 2년에 지나지 않는 만큼 SBS는 타 방송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SBS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양대 방송사와 어깨를 겨루어 대선방송을 효과적으로 치러낼 수 있을까 싶은 의문이 들기도 하겠지만 그동안 SBS 전가족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관계자들이 우수한 지혜와 열정을 갖추고 있기에 우리는 자신만만하다.

플리웃을 물리친 다윗이 있고, 작은 고추가 맵다는 우리의 평범한 상식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최선의 결과를 기대해 본다. **S**



프로그램 탐험

주말극장 「모래위의 욕망」

어둡고 쓸쓸한 야망의 뒷모습

- 극본/정하연
- 연출/이종수
- 방송/매주 토·일요일 밤 8시 55분~9시 55분



지난 4월의 L.A 사태는 우리들을 경악으로 들끓게 했다. 그러나 우리는 벌써 당시의 분노를 서서히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민족의 30년 미국 이민사에 길이 남을 소위 '아메리칸 드림'의 허상을 아 과감하게 낫설고 험한 미국 땅으로 건너간 수많은 파이오니어들. 그리고 그들의 애환속에 슬픈 연가(戀歌)처럼 어우러지는 성공과 좌절... L.A 사태를 보고 우리는 분명 그들의 치열한 삶의 현장을 부분적이거나 확인하면서, 그들의 생활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하는 궁금증을 아련하게 가져보기도 했을 것이다.

85년도 영화 「깊고 푸른 밤」에서 보여준 아메리칸 드림의 적나라한 실상들은 당시 어느 정도의 충격파를 던져주기는 했으나, 영화라는 매체의 제약으로 인해 사회적 이슈로서의 부각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요즘은 그들의 그러한 모습이 TV 매체를 통해 우리들의 안방으로 속속들이 전해지고 있다. 초반 8회분을 미국에서 올 로케한 SBS의 새 주말

극장 「모래 위의 욕망」 역시 아메리칸 드림에 그 제작동기의 상당부분을 두고 있는 드라마이다.

상대 방송사에서조차 비슷한 주제의 드라마가 방송되고 있기는 하나 그쪽은 한민족의 미 이민사를 보여주는 데에 치중하고 있는 반면 「모래 위의 욕망」은 성격상 분명한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젊은이들의 야망, 가진 자와 못가진 자의 처절한 이야기가 확실한 드라마로서 진지하게 전개되고 있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드라마의 초반 부분 의욕이 지나치다(?)보니 한 때 방송위원회로부터 여러가지 주의를 당하는 곡절도 겪었지만, 비운 뒤에 땅이 더 굳어진 다던가. 새로이 연출을 맡아 지휘대를 움켜잡은 이종수 부장의 각오는 남다른 수밖에 없다.

스튜디오 녹화가 시작되기 두어시간 전, 세트 소품 체크 시간만 되면 득달같은 이종수 부장의 성화에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소품 담당자들로 인해 양평동 스튜디오 안은 정신없이 분주해진다.

“물론 방송위원회의 정제에 대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죠. 방송사 자체내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개선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드라마 전개를 위한 필요악으로써 그런 장면을 그려내야 하는 작가와 일선 PD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알아 주었으면 합니다. 어쨌든 이제 제가 이 드라마를 맡게 된 이상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또 제 경험을 최대한 살려서 앞으로는

아메리칸 드림의 허상을 다소 충격적으로 묘사한 도입부로 인해 논란의 대상에 오르기도 했으나 좁은 영역에서만 머물던 우리 드라마의 시야를 한커 넓혀놓았다는 점으로 보자면 긍정적인 측면의 평가도 없지 않았다.



충실한 내용을 담아 수준높은 드라마로 만들어 내겠다는 생각입니다.”

썩썩한 얼굴로 담담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의 말 속에서는 굳은 결의가 묻어 나온다.

“지난 10월 31일 첫 방송 이후 그동안 극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확실하게 잡혀졌음, 앞으로는 애초의 기획 의도는 유지하되 문제될 만한 요소는 과감히 배제, 각 등장인물들의 캐릭터를 효과적으로 부각시켜 드라마를 활기차게 이끌 것임. 리얼리티 부재를 개선하면서 갈등요소들은 최대한으로 살릴 것. 그리고 지탄받기 일췌인 상류사회의 위화감을 조성할 만한 장면들은 작품 내용의 흐름에 맞춰 긍정적인 장면으로 전환할 것 등등.”

이종수 부장의 제작노트에는 이런 말들이 메모처럼 적혀있다. 드라마 제작 방향이 앞으로 이렇게만 풀려간다면 「모래위의 욕망」은 ‘제작진의 단단한 제작욕망’으로 인해 분명 문제 제적으로 인정받을 것임에 틀림없을 듯싶다. 또한 작가 정하연의 탄탄한 극 구성을 바탕으로 한 이덕화, 황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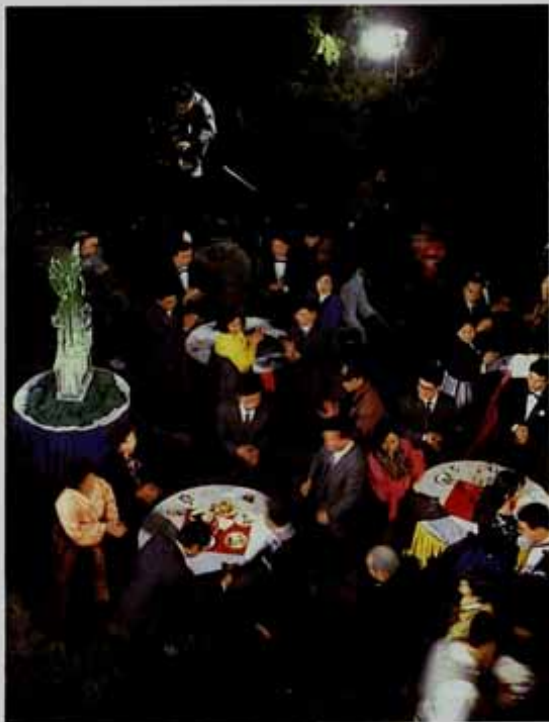


젊은이들의 아픔, 가진 자와 못가진 자의 극명하게 대비되는 삶의 모습을 그야말로 드라마틱하게, 그러나 현실감을 잃지 않고 그려나가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등장 인물들의 뚜렷한 성격이 깊숙히 불만하다. 연기자들의 호화로움 면면이 거기에 무게감을 더하고 있다.

해, 박상원, 신애라, 이용경, 김무생, 박원숙, 임정하 등의 초호화 캐스팅은 이 드라마로 하여금 더욱 더 빛나는 생명력을 갖추게 한다.

미국으로 유학갔다가 돈을 벌기 위해 주저앉은 길준 역은 이덕화가 맡아 그 특유의 강렬한 개성연기를 보여주고 있다. 길준과 결혼하지만 배반당하고 마는 헌신적 성격의 해민 역에는 황신혜가 출연, 「은하수를 아시나요」 이후 또 한차례 이덕화와 연기 호흡을 맞춘다. 거기에 박상원과 신애라가 SBS 드라마에 첫선을 보이며 가세하는데, 박상원이 맡은 태수 역은 어머니를 따라 미국으로 이민 간 낭만적이고 낙천적 성격의 인물이며, 신애라는 방랑벽이 있는 소영 역을 연기한다. 항상 낙천적인 태수와 베일에 쌓인 소영과의 애달픈 사랑이 과연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도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이용경이 성주 역을 맡아 길준의 재혼상대로 출연, 우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중견 탤런트 김무생이 그녀의 아버지인 장윤하 역을 맡아 극의 무게를 더





해주고 있다.

이미 국내 TV 드라마로서는 보기 드물게 8회분을 미국 애플랜틱 시티의 최고급 호텔인 '타지마할'의 하루 숙박료 1만 5000불짜리의 스위트룸과 촬영금지 구역인 초대형 카지노 등을 배경으로 촬영, 현지인들의 화제거리가 되기도 한 이 드라마는 길준과 태수라는 두 젊은이를 중심으로 엮여지고 있다.

우울한 성격에 냉혹한 길준과 천성이 낙천적이고 시인기질을 지닌 태수. 두 사람은 멕시코로부터 L.A로 화물을 실어나르는 일을 한다. 어느 날 화물 속에서 마약이 발견되어 경찰과 갱단의 추격을 받게 된 두 사람

은 미국에서 부모를 교통사고로 잃고 어렵게 혼자 살아가는 해민의 도움으로 구원된다. 해민의 헌신적인 애정과 도움에 감동한 길준은 그녀와 결혼을 하고 태수와 함께 뉴욕에서의 오붓한 생활을 시작한다.

한국 재계의 막후인물인 장운학의 큰딸로 뉴욕 컬럼비아 대학에 유학중인 성주는 어느날 추근거리는 흑인 건달들 때문에 위험한 지경에 처하는데 우연히 길준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모면하고, 성주의 신분을 알게 된 길준은 자신의 결혼사실을 감춘 채 그녀에게 접근한다. 성주 역시 길준을 사랑하게 되고 두사람의 관계를 안 장운학은 둘 사이를 떼어놓으려고 한다. 그러나 순수한 여인인 성주는 길준과의 결혼을 고집한다.

길준은 성주와의 결혼을 앞두고 해민의 존재로 고민에 빠진다. 헤어질 수 없다는 해민의 애원에 가슴은 아프지만 그는 야망의 길을 택한다. 해민을 허드슨강의 벼랑으로 유인, 다름없게 그녀를 벼랑 밑으로 밀어버린 것이다.



3년의 세월이 흐른 후, 태수는 생모로부터 자신의 출생 비밀을 전해 듣는다. 장윤학의 사생아. 자신의 사회적 체면 때문에 장윤학은 태수의 생모인 '그레이스 유'와 태수를 미국으로 보내고 생활비만 부쳐왔던 것이다. 그레이스 유는 그 한 때문에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덧없이 죽어가고 태수는 복수를 결심한다.

서울로 돌아온 후 영동의 뒷골목을 전전하던 태수는 우연히 소영을 만나 그들의 애달픈 사랑을 시작하게 된다. 소영과는 뉴욕에서 한번 만났던 사이지만 그녀의 신분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다. 베일에 쌓인 소영은 언제나 예고 없이 태수앞에 나타났다 가 소리없이 사라질 뿐.

한편 길준은 차츰 장윤학의 신임을 얻어 중요한 위치로 신분상승을 거듭한다. 그러나 출세의 길을 보장받은 그의 앞에 홀연 나타나는 여인이 있으니, 바로 허드슨강의 벼랑에서 떨어져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헤민이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나 어느 의사의 도움으로 2년여에 걸친 성형수술을 받고 새로운 여인으로 재생된 그녀는 3개 국어에 능통한 로비스트의 모습으로 화려하게 등장한 것이다. 길준은 그녀가 과거의 아내였던 헤민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은 채 그녀와 가까워지고, 헤민 역시 그를 유혹하는 한편 복수의 울가미를 조여 간다.

자신의 출세와 야심을 위해 아내를 살해한 길준, 복수를 위해 다른 여인으로 변신한 헤민, 그리고 남편의

어두운 과거를 아는지 모르는지 뒤에 서 길준을 돕기만 하는 성주. 이 세사람을 축으로 해서 출생의 비밀 때문에 그들진 인생을 살면서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태수와 베일에 싸인 소영과의 애달픈 사랑이 동시에 진행되는 이 드라마는 밀바닥에서 정상으로 질주하는 한 인간의 야망과 몰락, 그리고 본연의 인간성을 회복하는 과정을 통해 각박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투영해 보고 있다.

인기정상을 유지했던 「두려움 없는 사랑」의 후광 속에 등장한 탓에 솔직히 처음엔 시청률에 대한 부담도 상당했던 지라 여러가지 시행착오가 있던 것도 사실이나 이제는 드라마가 제 궤도에 올라서 그에 대한 부담도 털어버릴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작가, PD, 스태프, 출연진은 더욱 강한 결집력으로 뭉쳐있다. 이러한 혼연 일체가 바탕이 되어 「모래위의 욕망」은 앞으로 한층 향기나는 드라마로 자리잡혀 갈 것이다. S

이정수 프로듀서로부터 바론을 받아 새로이 「모래위의 욕망」의 지휘봉을 잡은 이정수 부장은 부담감이 큰 만큼 의욕 또한 그에 못지 않다고 연출의 변을 털어놓는다. 히트드라마 재조기라는 이름에 걸맞게 그의 의욕이 빛을 발하기를 기대해본다.

글/최정철·자유기고가

사진/서형식



새 프로그램

「내가 진짜 스타」 ‘공인된 가짜’들의 진짜 뺨치는 님은꼴 행진

- 진행/이용식 · 김학래
- 연출/신정관
- 방송/매주 토요일 저녁 6시 5분~7시

우리시대에 진짜 스타란 누구인가. 텔레비전이라는 대중매체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브라운관을 스쳐 지나갔다. 그들 중 어떤 사람은 시청자들의 기억 속에 스타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 기억도 남기지 않고 사라졌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끊임없이 이러한 질문을 제기하는 가운데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하나 있다. 바로 12월 5일부터 토요일 오후 황금시간대에 자리하게 된 「내가 진짜 스타」이다.

여기서 우선 굳이 '진짜'라는 형용사를 붙인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지난 9월 11일에 방송된 「'92 선발 내가 진짜 스타」를 통해 선보인

달은볼 스타들에 대한 시청자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들을 일회용으로 한번 보고 말기에는 재능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기획한 이남기 부장의 말이다. 스타맨 스타지 굳이 '진짜'를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가짜'들이 꾸미는 진짜(?)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다. 비록 가짜이지만 이들이 지금까지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웃음을 시청자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다는 말이다. 특히 애초에는 일요일 아침시간대에 편성되었다가 토요일 황금시간대인 6시대로 옮긴 이유 역시 이 프로그램의 성공 가능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현재 달은볼 스타들로 선발된 사람은 약 스무명 정도인데 이들의 구성을 보면 다양하기 그지없다.

이덕화의 목소리 등 성대교사가 능란한 안재덕은 극단 로얄 씨어터의 단원 출신이며 레오나드 코헨의 중후한 목소리와 어린이의 목소리를 동시에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홍순원은 다운타운의 통기타 가수 출신이다. 변진섭과 가장 닮았다는 평을 듣고 있는 박홍진은 경비행기 조종사이고, 이영자를 닮은 정낙송 주부는 생명 보험회사 판매원 출신이다. 또한 전영복을 닮은 임원복은 디스코 DJ와 미용사를 거쳐 지금은 코디네이터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밖에 이미지를 닮은 조옥분은 한식집을 경영하고 있고, 김완선과 박세민을 닮은 김세민은 91년 청소년 연극제에서 최우수 연기상을 받을

정도의 연기력을 갖추고 있는 등, 20여명 각자가 모두 나름대로의 독특한 출신과 끼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로선 이들은 모두 아마추어라는 나름대로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을 갈고 다듬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게 제작진의 자제진단이다.

“스무 명의 저희 가족 중에 사실 평범한 사람도 있고 연예인으로서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는 모두 아마추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들이 진정한 프로화하기 위해서는 모두 노력해야겠죠”

이 프로그램의 선장 격인 신정관 프로듀서의 말이다. 이같은 지적은 달은볼 스타들도 모두 인정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를 뛰어넘으려는 달은볼 스타들의 노력은 대단하다. 이미 상당수가 본격적으로 코미디언의 길을 걷겠다고 다닌던 직장을 그만둔 상태이며 방송이라는 직업에 남다른 뜻을 부여하고 있다.

오직 개그맨이 되기 위해 개그 컨테스트에 네번이나 응시했다가 낙방

중년의 나이에
귀엽고 착한 이미지를
지키고 있는 이용식과
김학래가 공동진행을
맡아 아마추어 군단인
달은볼 스타들을
이끌어나간다. 요즘의
유행주제인 남자
더블MC 방식을 취한
것에서부터 시청자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한
것 같다.



열댓 보고서는 이들이
가짜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닮아도 너무 닮았다.
진짜 뽕치는 스타가
되고 싶은 이들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장애물로 작용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목표대상이 있는 것이
도전의욕을 불러일으
키기도 한다.
사진 맨 오른쪽은
이 프로그램의 감초인
진짜 남궁옥분이다.



하고 다섯번째에 성공한, 배우 최주봉과 닮은 이명우는 “모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인이기 때문에 미숙한 점도 없지 않지만 그 어떤 분야의 연예인들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로 인정받기 위해 밤낮으로 연습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영자와 닮은 정낙송 주부는 “누구보다도 저와 닮은 스타인 이영자 씨에게 감사합니다.”라는 익살 속에 ‘진짜 이영자’를 뛰어넘어보겠다는 의지를 내보인다.

「내가 진짜 스타」를 이루는 코너들의 면모는 닮은꼴 스타들의 그것만큼이나 다양하다. ‘밀착취재’와 ‘여의도 예술학교’는 선생님 역의 이용

여준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에서 진짜 스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시청자들이다. 프로그램 곳곳에 시청자들의 꾸밈없는 모습과 다양한 의견을 삽입하여 전체 프로그램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코너가 ‘거리의 스타’이다. 매주 한 명 씩 선정된 스타를 시청자들이 마음껏 흉내내는 이 코너를 위해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잠실 롯데월드 지하보도에 설치되는 무인카메라가 시청자들을 부른다.

시청자들이 스타가 될 수 있는 또 다른 코너로 ‘당신도 스타’가 있다. 진짜 스타를 닮은 시청자들이 나와 서로의 재주를 겨루고 가장 잘한 사람을 뽑아 꾸밈한 선물을 증정하는 코너로써 SBS 시청자들은 모두 이 코너에 출연할 자격이 있다. 특히 연예인과 닮았다고 자천타천하는 사람이라면 더욱 환영이다. “「내가 진짜 스타」가 재미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도록 많이 찾아와 주고 제보도 부탁한다.”는 것이 스태프진들의 말이다.

이밖에 시청자들의 모습이 빠질 수 없는 코너가 또하나 있는데 바로 ‘스타분석’ 코너. 스타에 대한 장·단점을 나름대로 피력한 후 그들의 흉내를 내는 시청자들의 갖가지 모습을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로는 뽕식이 이용식과 김하래가 드물게 남자 더블 MC로 기용되었다. 또한 가수 남궁옥분이 고정 출연하여 코너마다 해결사 노릇과 감초역할을

식을 중심으로 열한명의 닮은 꼴 스타들이 한 학급으로 편성되어 예술학교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애기를 엮어낸다. ‘웃으며 만나요’에서는 김완선의 춤을 완벽하게 소화해내고 있는 김세민이 출연한다. 그리고 마지막 코너인 ‘카멜레온’에서는 닮은꼴 스타와 진짜스타가 함께 출연하여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끼를 보



한다. 남자 더블 MC의 경우 두사람 모두 착하고 귀여운 이미지의 소유자라는 점과 달은꿀 스타들이 모두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이들을 이끌어 줄 노련한 선배가 필요하다는 점 등의 이유로 기용되었다. 또한 가수 남궁옥분에 대해서도 제작진은 프로그램의 감초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이라는 기대를 걸고 있다.

진정한 스타가 되는 길은 멀고 험하기만 하다. 더욱이 '공인된 가짜'로 시작했다면 진짜 스타가 되기에는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진짜가 살아있는(?) 한 가짜의 역할이란 항상 조연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짜 스타보다도 늘 한발 앞서는 변신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변신하는 모습
을 「나도 진짜 스타」에서 만나게 되



길 기다려본다. 모방의 차원을 뛰어넘어 변신이라는 새로운 창조에 도전하며 진짜 스타로 향해가는 달은꿀 스타들을 통해 시청자들은 새로운 웃음의 실체를 보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5

글/김병록·자유기고가

사진/고도영



드라마

「반디네 집」

- 연출/심상목
- 제작/SBS프로덕션
- 방송/12월 2일부터 매주 월~금요일 저녁
8시 45분~50분, 아침 9시 35분~40분

건강은 이를 데 없이 값비싸지만 그만큼 잃기 쉬운 보배이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고 의료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각종 성인병뿐만 아니라 불

치의 병도 조기 발견하면 완치가 가능해졌다. 그래서인지 점차 예방의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식생활이나 건강정보 등에 관한 일반인의 관심과 정보욕구도 증대되고 있다.

「반디네 집」은 가족 구성원 전체가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드라마로 알기 쉽게 건강과 의학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건강 유지 비결, 각종 질병의 예방책, 그리고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 잡아주고자 한다.

평범하고 털털하며 가끔 엉뚱한 소리를 잘하는 아버지 금봉오(김성환 분)와 알뜰하게 살림을 잘하지만 건강증이 심한 어머니 오종지(신신애 분), 전형적이고 전통적인 할머니 여장부(김석옥 분), 영리하고 똑똑하지만 공부보다는 노는 데 더 열심인 금건주(이건주 분), 자기 할 일은



알아서 척척하며 때로는 주인공 금반디(이효원 분), 이들과 함께 주제에 따라 머시재단 암센터의 이규학 박사를 비롯한 열두명의 전문의가 출연, 증세에 따른 처방과 예방책, 건강 유지 비결 등을 들려준다.

보도

「헤드라인 뉴스」

- 앵커/이재운
- 제작/보도국
- 방송/11월 30일부터 매주 월~목요일
밤 9시 45분~50분

급변하는 세계, 그리고 숨가쁘게 움직이는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서 현대인들에게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다양하게 접할 필요가 필요하다.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오늘의 주요 쟁점은 무엇이며, 우리 주위에 어떤 일들이 생겨났는가를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이 알 수 있는 기회가 「헤드라인 뉴스」이다. 프로그램의 이름 그대로 하루 하루의 주요 뉴스를 다이제스트하여 스피드한 전개로 신속하게 전달한다.

신뢰성 있는 외보와 뉴스에 대한 뛰어난 이해력, 똑 떨어지는 발음을 겸비한 이재운 아나운서가 「헤드라인 뉴스」의 앵커를 맡았다. 이제 SBS 시청자들은 「SBS 8 뉴스」에 이어 한시간 남짓 사이에 들어온 생생한 뉴스를 「헤드라인 뉴스」에서 접할 수 있을 것이다.



스포츠

「SBS 스포츠 스포츠 - NBA농구」

- 진행/박영만
- 해설/한창도
- 연출/임재익, 민득운
- 방송/12월 1일부터 매주 화요일
밤 10시 55분~11시 50분

시카고 불스의 마이클 조단, 피닉스 선즈의 찰스 바클리 등 유명 농구 스타들과 NBA리그의 스물일곱개 농구팀의 환상적인 팀플레이를 우리도 매주 화요일 밤이면 볼 수 있게 됐다.

NBA 경기는 쿼터제로 1쿼터 12분씩 총 4쿼터로 되어있는데, 1~2쿼터는 하이라이트로, 3~4쿼터는 전경기를 방송한다. 화려한 플레이로 세계 최고의 기량을 자랑하는 미국 NBA 경기를 보며 프로농구의 진수를 느껴보기 바란다.



만화영화

「몽키 삼총사」

- 연출/송길우
- 방송/11월 30일부터 월~수요일
오후 5시 40분~6시 10분

미래는 어린이들에게 무한한 꿈과 상상의 세계를 안겨준다. 악의 무리에 맞서 용감하게 싸우는 정의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드넓은 우주를 모험하는 우주인이 될 수도 있다.

가까운 미래의 지구, 실로 오랜만에 국가, 종교, 인종간의 분쟁이 모두 사라지고 평화로움이 가득하다. 그런데 돌연 사마귀 박사라는 악당이 나타나 지구를 혼란 속에 빠뜨린다. 로봇트군단을 이끌고 여러가지 음모를 꾸미는 사마귀 박사에 맞서 맹활약을 벌이는 주인공들의 이야기가 「몽키 삼총사」에서 펼쳐진다.

사마귀 박사의 음모에 빠져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하지만 지구소년 방위대 몽키와 형 켄, 누나 란, 이들 삼총사는 지구의 평화를 지켜나간다.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 소년 몽키를 통해 어린이들로 하여금 맘껏 꿈과 모험의 세계를 펼쳐게 하는 신나는 만화영화이다.

「출격 로보텍」

- 연출/김하정
- 방송/12월 3일부터 매주 목, 금요일
오후 5시 40분~6시 10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계속되는 환경오염으로 더이상 생명체가 살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닌지, 지구를 장악하려는 외계인의 침략으로 지구의 평화가 위협받는 것은 아닌지.

머지않은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를



외계인의 침략에 대비해 지구 최고의 과학자들은 최첨단 기기 '로보텍'을 준비한다. 황폐해진 우주공간의 마지막 피난처로 남은 지구에 드디어 외계군단 겐트라디가 공격해 오고... SDF-1호를 모선으로 하여 각 우주선의 결합으로 완성되는 우주의 희망 '로보텍'은 지구를 지키기 위해 겐트라디 공격에 맞서 용감히 싸운다.

자칫 황당무계하기 쉬운 공상과학 만화 영화에 해설자의 자세한 설명을 덧붙임으로써 어린이들에게 과학적 이론을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는 「출격 로보텍」은 어린이들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평화와 정의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볼 자리를 마련해주게 될 것이다.



외화시리즈

「하이웨이맨」

•연출/송길우

•방송/12월 21일부터 매주 월요일

밤 10시 55분~11시 50분

열여덟개의 바퀴가 달린 대형 트럭, 연방정부의 메인 컴퓨터와 교통할 수 있는 첨단 과학 장비, 운전석이 헬기로 급변하는 등 모든 구조의 전투화..., 이것이 연방 정부의 특수 범죄 해결 요원 하이웨이맨의 모습이다. 범죄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광활한 미대륙을 질주하며 나타나서 법의 힘이 미처 미치지 못하거나 법의 이름으로 횡포를 부리는 자들을 징벌

한다.

하이웨이맨을 설계하고 새로운 장비를 계속 공급해 주는 과학자 제도와 그를 통제하는 미모의 윈스로프가 하이웨이맨과 함께 행동하며 시원한 액션과 스피드한 이야기 전개로 재미를 더한다. 외화팬의 새로운 재미로 떠오를 「하이웨이맨」은 TV 외화시리즈 「전격제트자전」으로 우리와 친숙한 글렌 라슨(Glen A. Larson)이 대본과 제작을 맡아 더욱 기대를 갖게 한다. S

텔레비전 시청행태 조사 세사람 중에 한명은 젊고 신선한 SBS 애호가

SBS는 텔레비전 개국 1주년을 맞아 지난 한해를 평가하고 정리해보는 의미로 수도권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텔레비전 시청행태와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다. 시청자들은 과연 SBS-TV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얼마나 선호하고 있는가를 알아봄으로써 33년을 더욱 알차게 꾸미기 위해서이다.



리모트 컨트롤의 등장은 방송인들에게 또 다른 긴장감을 가져다 주었다. 채널의 교체가 더 빨라진 만큼 빠른 시간 내에 시청자의 호감을 사야 하기 때문이다. 또 SBS-TV의 개국은 새로운 포맷의 프로그램 개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편성 전략 등을 통한 방송사들간의 시청률 경쟁을 더욱 가속화 시켰다.

시청자의 선택만이 방송의 존재 가치를 가늠하는 척도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시청자의 선택이 무시되어서는 안되며, 시청자를 존중하는 방송이라면 시청자의 선택을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다.

SBS는 텔레비전 개국 1주년에 즈음하여 지난 한해를 평가하고 정리해 보자는 의미에서 SBS의 각 부서원이 참여하는 공동조사팀을 구성, 시청자의 '텔레비전 시청 행태와 선호도'에 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SBS-TV의 가시청권인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만 열세살 이상 예순네살 이하의 주민들 가운데 지역구별, 성별, 연령별 비례로 표집된 1000명을 대상으로 삼았다. 실제 조사는 10월 20일부터 닷새간에 걸쳐 이뤄졌으며, 전문조사기관인 월드리서치가 개별 면접으로 조사했다.

시청자들은 과연 SBS-TV를 얼마나 선호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시청자의 선택면에서 타방송사와 비교된 SBS-TV의 위상은 어떠한가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간략하게나마 주요 조사 결과를 요약해 보았다.

먼저 SBS, KBS-1, KBS-2, MBC 네 채널에 대한 시청자들의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3.8퍼센트가 네개 채널 중에서 SBS-TV를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시청자 세 사람 중에 한명이 SBS-TV를 가장 선호하고 있다는, 실로 놀라운



이번 조사를 통해서 SBS텔레비전을 선택하는 시청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그것은 한살마리 신생방송사에게 커다란 용기를 주는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이에 힘을 얻어 SBS-TV는 앞으로 한층 재미있고 알차고 기억될만한 프로그램들을 선사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적어도 시청자의 선택에 있어서 SBS-TV는 이미 신생 방송사가 아니었으며, 기존 방송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한편 SBS-TV를 가장 좋아하는 시청자들 가운데 특히 주부가 많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전체 주부의 43.3퍼센트가 SBS-TV를 가장 좋아하는 채널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상품 구매력이 가장 높은 주부 시청자들이 SBS를 특히 선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광고를 채원으로 하는 SBS의 입장으로는 더욱 마음 든든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다음으로 SBS-TV를 선호하는 시청층은 학생층이다. 전체 학생 집단에서 32.8퍼센트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SBS-TV를 가장 좋아하는 채널로 선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래의 밝은 전망을 암시해 주고 있다.

그렇다면 시청자들이 SBS-TV 채널을 이처럼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는 전체 시청자들의 47.7퍼센트가 “드라마가

좋아서”라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24.3퍼센트는 “코미디가 좋아서”라는 등의 순으로 선호 이유를 나타내고 있다(표1 참조).

이같은 채널 선호 이유는 시청자들의 프로그램 선호도에서도 여실히 반영되고 있다. 최근에 방송되고 있는 수많은 프로그램들 가운데서 과연 시청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TV프로그램은 무엇일까? 시청자들에게 최근에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다섯 개씩만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번 조사 내용 중에서 가장 흥미를 끌 만한 부분이 아닌가 싶다.

시청자들이 가장 좋아한다고 선택한 프로그램들을 순위별로 20위까지 나열해 보는 순간 SBS-TV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들의 선택에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시청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 20위내에 SBS-TV 프로그램이 열개나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 순위에서 1위의 자리를 타방송사에 내주는 것은 「두려움 없는 사랑」, 「꾸러기 대행진」,

「궁합이 맞습니다」가 2, 3, 4위를 차지하는 개가를 올린 것은 실로 고무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다.

그밖에도 미스터리 다큐멘터리 「그것이 알고 싶다」(7위), 「코미디 전당대」(11위), 「가을여자」(12위), 「비련초」(14위), 「물위를 걷는 여자」(15위), 「SBS 8뉴스」(18

위), 그리고 「SBS 영화특급」(19위) 등이 시청자들로부터 선택받은 프로그램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프로그램들을 보면 SBS-TV 프로그램이 오락 부문 뿐만 아니라 보도나 교양 부문에서도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엿볼 수가 있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타방송사의 추종을 불허하는 교양 프로그램으로 우뚝 선 지 이미 오래이다. 또한 저녁 종합뉴스 시간대의 차별화를 선언한 「SBS 8뉴스」가 시청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 순위 18위에 진입하여 점차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SBS 8뉴스」의 시청 정도를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전체 시청자의 15퍼센트가 「SBS 8뉴스」를 「매일, 또는 자주 보는 것」으로 나타나 「SBS 8뉴스」에 대한 시청자의 호응도가 크게 높아졌음을 실감하게 한다. 한편 「SBS 8뉴스」를 시청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그 시청 이유를 물어본 결과, 「뉴스를 빨리 시청할 수 있어서」 또는 「뉴스를 보고 나서 드라마를 볼 수 있어서」라는 응답이 주요 시청 이유로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은 「SBS 8뉴스」가 저녁 종합뉴스 시간대의 차별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9시대에 방송하는 SBS 드라마에 대한 시청자들의 높은 선호도를 입증해 주고 있었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각 채널의 유사 프로그램들에 대한 시청자들의 선호도와 선호 이유를 비교해 보았는데, 그중에서 흥미로운 조사 결과를 하나만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최근 일요일 저녁에는 세 방송사의 대표적인 코미디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는 「초특급! 꾸러기 대행진」, 「일요일 일요일밤에」, 그리고 「웃음 한마당」이 서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들 중에서 시청자들은 과연

〈표 1〉 채널 선호 이유(복수 응답)

채널 선호 이유(%)	SBS	KBS-1	KBS-2	MBC
뉴스/정보가 좋아서	9.8	34.7	10.5	40.5
다큐/교양이 좋아서	14.8	28.0	12.8	14.8
드라마가 좋아서	47.7	13.4	27.8	41.5
쇼/가요가 좋아서	22.2	5.6	15.9	15.4
영화가 좋아서	15.8	4.4	10.2	7.2
코미디가 좋아서	24.3	3.5	15.5	11.2
방송사가 좋아서	2.1	2.0	2.0	4.3
습관적으로	2.3	16.0	18.8	13.7
기타	2.7	3.5	2.5	0.8

〈표 2〉 시청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 순위

순위	프로그램	방송사	비율(%)
1	일요일 일요일밤에	MBC	27.4
2	두려움없는 사랑	SBS	23.7
3	초특급 꾸러기대행진	SBS	21.9
4	궁합이 맞습니다	SBS	20.7
5	아들과 딸	MBC	20.2
6	MBC 뉴스데스크	MBC	19.8
7	그것이 알고 싶다	SBS	14.7
8	전원일기	MBC	14.3
9	형	KBS-2	14.2
10	일출봉	MBC	13.1
11	코미디전당대	SBS	12.2
12	가을여자	SBS	10.7
13	KBS 뉴스 9 현장	KBS-1	7.8
14	비련초	SBS	7.5
15	물위를 걷는 여자	SBS	6.1
16	한바탕 웃음으로	KBS-2	5.9
17	대추나무 사랑걸렸네	KBS-2	5.3
18	SBS 8 뉴스	SBS	5.1
19	SBS 영화특급	SBS	5.0
20	우리들의 천국	MBC	4.0

어떤 프로그램을 가장 좋아하고 있는가?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요일 일요일 밤에」를 가장 좋아한다는 응답이 44.2퍼센트로 가장 많았고, 「초특급! 꾸러기 대행진」을 가장 좋아한다는 응답은 37.0퍼센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들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이유를 비교해 보면, 「초특급! 꾸러기 대행진」의 경우 「일요일 일요일 밤에」보다 “재미있는 코너가 많아서 선호한다”는 응답이 많았고, 「일요일 일요일 밤에」의 경우는 “평소 늘 보던 프로그램이어서” 선호 한다는 응답이 많은 것이 주요 특징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초특급! 꾸러기 대행진」이 「일요일 일요일 밤에」보다 프로그램 선호도가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바로 시청자들의 습관적 시청 선호도의 차이 때문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시청자들의 이같은 습관적 시청 선호도는 SBS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청자의 습관적 시청 선호도는 아마도 채널의 연륜이나 프로그램의 방송기간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아무래도 오랜 연륜을 쌓은 기존 방송사와 장기간 방송된 프로그램이 얻는 이점이 더 많지 않을까 싶다.

SBS-TV는 이제 겨우 한살의 나이를 먹었을 뿐이다. 연륜이 많은 타방송사가 누리는 유리한 자리를 기대할 수도 없고 기대할 필요도 없다. SBS-TV는 젊고 신선하다는 최고의 강점을 지니고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 우리는 SBS-TV에 대한 시청자의 선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청자의 선택은 한 해 동안 열심히 땀 흘리며 노력해 온 SBS-TV에게 보내는 무언의 찬사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SBS-TV는 시청자의 선택에 힘입어 자존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러



나 “개국 1년밖에 안됐는데 이정도면 됐지”라는 식의 자만심을 가져서는 안될 것이다. 시청자들은 늘 변화를 추구할 뿐만 아니라 선택에서는 냉엄하기 때문이다. SBS 텔레비전은 다가오는 새해에도 말없고 얼굴없는 시청자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로부터 선택받는 채널이 될 것이다. S

정리/한경보 기획실 심의부 심의위원

제1회 서암교육대상 시상

존경하는 교사상 만들기,
앞장서는 발걸음

서울방송 윤세영 사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서암학술장학재단의 제1회 서암교육대상 시상식이 지난 11월 14일 서울방송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서울방송과 교육부의 후원으로 열린 이번 시상식에서 교육대상은 경기도 부천고교 백승락 교장이 받았고 교육상은 부산 망미여중 백용기 교장, 대전 대명학교 송권 교장, 서울 세종고교 김상필 교감, 서울 연남중 이광종 교감, 대구 달서국교 손진규 교사, 서울 유현국교 안장수 교사 등 총 일곱명의 교원이 수상했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패 및 상금 1천만원, 교육상 수상자에게는 상패 및 5백만원이 각각 수여되었다.

조완규 교육부 장관을 비롯하여 심사위원장인 이창갑 전 서울시 교육감 및 수상자 가족, 친지, 동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시상식에서 윤세영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1999년까지 재단의 기본 재산을 3백억원으로 늘려 국내외의 각종 학술 지원사업, 언론연구 지원사업, 교육 지원사업의 규모를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시상한 제1회 서암교육대상은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가르침을 천직으로 삼고 우리나라 교육발전과 올바른 후진 양성을 위해 헌신해온 교육자들의 높은 공을 기리고 표창함으로써 온 국민이 존경하는 교사상을 정립하고자 서암재단이 교육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제정한 것이다.

서암학술장학재단은 서암교육대상 외에도 국내 대학원에서 석,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대학원생 열명, 기초과학 분야와 사회과학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다섯명, 국내 언론계 종사자 세명, 언론학계 교수 두명 등을 지원하는 등 각종 연구 지원 사업을 펼쳤다.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第1回 瑞岩教育大賞 施賞式

1992年 11月 14日

主管: 瑞岩教育大賞委員会

後援: 教育部, SBS



1992년 서암학술장학재단 지원 대상자

■ 국내학술연구지원 (석사 및 박사과정 지원)

- 지원기간 : 학위취득 때까지
- 지원내용 : 등록금 및 연구보조비 월 50만원

정인섭 (서울대 대학원 법학 전공)
 천승현 (서울대 대학원 물리학 전공)
 김경규 (서울대 대학원 화학 전공)
 박현웅 (서울대 대학원 물리학 전공)
 이영화 (고려대 대학원 경영학 전공)
 유상균 (고려대 대학원 물리학 전공)
 이호창 (연세대 대학원 사회학 전공)
 장정범 (연세대 대학원 토목공학 전공)
 이영한 (포항공대 대학원 생명과학 전공)
 최용림 (포항공대 대학원 전자공학 전공)

■ 해외학술연구지원 (박사학위 소지자)

- 지원기간 : 1년 ~ 3년
 - 지원내용 : 왕복항공료, 등록금, 체재비
- 한인섭 (경원대 법학과 조교수)
 조용민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
 지동표 (서울대 수학과 교수)



이상엽 (서울대 화학과 조교수)
 정연숙 (강원대 생물학과 조교수)

■ 언론연구지원

- 지원기간 : 1년
 - 지원내용 : 왕복항공료, 등록금, 체재비
- 고광남 (KBS 기자)
 한명규 (매일경제신문사 기자)
 김인철 (서울신문사 기자)
 장용호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부교수)
 전환성 (청주대 신문방송학과 부교수)

잠깐만!

드라마 전용 SBS 일산 스튜디오 준공

명실공한 '드라마왕국'의 토대 마련

SBS의 드라마 제작 전용으로 쓰이게 될 일산 스튜디오가 12월 9일 준공식을 가짐으로써 당당한 모습을 드러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에 자리한 SBS 일산 스튜디오는 2738평의 대지 위에 연건평 1269평,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로 건립됐는데 최신 첨단장비로 꾸며진 250평짜리 스튜디오 두개를 비롯, 조정실, 분장실, 대기실, 사위실, 세트제작실, 세트창고,

구내식당 등 부대시설과 널찍한 주차공간까지 갖춰 SBS의 새 명물로 부족함이 없는 면모를 지니고 있다. 개국 1년만에 드라마 강국으로 이미 확고한 위치를 굳힌 SBS는 이로써 명실공히 기술적인 면까지 포함한 '드라마의 명문'으로 자리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SBS 시청자들은 앞으로 더욱 선명한 화질의 완성도 높은 드라마를 만나게 될 것이다.





첫돌맞은 「SBS 매거진」 “이제 전국의 독자와 만나고 싶습니다”



1991년 12월 9일, 우리나라 방송의 막내 SBS텔레비전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SBS 매거진」 역시 세상에 첫선을 보였습니다. 힘차고 건강하게 커나가는 SBS와 함께 「SBS 매거진」도 탈없이 자라 이제 그 첫돌을 맞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SBS 매거진」은 SBS의 모든 것을 비취주는 거울로, 또한 키잡이로 열심히 자리매김해 나갈 것입니다.



편성차별화 성공으로 채널선택권 넓혔다

습관이라는 것은 상당히 완강한 힘을 갖고 있어서 사람들의 생각이나 감각을 그 주변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우리나라 방송이 30년을 금과옥조처럼 떠받들어온 TV프로그램의 편성관행 역시 '국민적 습관'을 만들어온 강한 힘 중의 하나였다.

새로운 방송 SBS 텔레비전의 지난 1년은 그러한 습관의 벽에 대한 도전과 성공으로 채워진 시간이었다. 시청자들은 이제 저녁8시에 뉴스를 보고 9시에는 드라마를 즐긴다는 '인식의 대전환'에 익숙해져가고 있다. 평일저녁에 영화를 만나고 심야에 스포츠에 빠져드는 재미도 SBS텔레비전이 선사한 또 하나의 습관이다. '시청자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시청자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를 늘 생각하는 것, 그것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켜질 SBS의 편성모토이다.

방송의 임무 제시한 이정표 「사랑의 징검다리」

입으로는 사랑을 남발하면서도 정작 사랑의 진정한 의미에 부딪혔을 때는 백치현상을 일으키는 사랑정박아들. 그 모습은 슬픈 무관심이 빚어내는 또 하나의 내모습일지도 모른다. 창사 때부터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방송의 주임무 중 하나라고 생각해온 SBS의 노력은 많은 이들에게 그런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되돌아보게 했다.

한국방송사에 하나의 이정표로 기록될 「사랑의 징검다리」의 존재는 그래서 더욱 소중하기만 하다. 남이 알지 못할 외로움으로 고통받는 장애인들에게 말 그대로 '징검돌'이 되고 싶은 서울방송의 소망이 낳은, 가슴 속으로 걸어들어오는 따뜻한 프로그램인 까닭이다.

「SBS 매거진」이 뽑은
92년의 화제 Best 6
작은 손으로
가꾸어낸
커다란 열매

1992년이 저물고 있다. 한해를 보내고 또 다른 해를 맞는 마음은 다 마찬가지로겠으나 SBS의 그것은 좀더 각별하다. 습돌릴 틈 없이 달려온 지난 일년은 SBS뿐만 아니라 전체 방송계에 기억될만한 역사로 남을 것이다. 「SBS매거진」은 92년 한해동안 SBS가 거둔 커다란 성과 중에서 여섯가지를 꼽아보았다.





● ● ●
화제 4

**기획력 돋보인 독특한
 장르의 프로그램 출현**

그것이 그것같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는데에 어지간히 지쳐있던 시청자들은 진작부터 뭔가 좀 색다른, 지금껏 없었던 새로운 프로그램과 만나고 싶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랫동안 그저 시청자의 '희망사항'일 뿐이었다. 그런데 그 희망사항이 현실로 바뀌는 일이 일어났다. 참신하고 독특한 방송, SBS에서 전혀 새로운 장르의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낸 것이다. 미스터리 다큐멘터리 「그것이 알고 싶다」를 비롯해 「작가와 화제작」 등과 같은, 어떤 한 장르에 속하지 않고 시공을 넘나드는 프로그램들이 시청자들에게 주었던 자극은 놀라움을 넘어 하나의 충격과도 같았다.

‘오락성’과 ‘교양’은 방송 프로그램이 추구해야 할 두가지 명제인 동시에 한꺼번에 잡으려다가는 자칫 손 베이기 쉬운 양쪽의 칼날이기도 하다. 하지만 전체를 보는 안목과 부분을 다루는 기술이 훌륭한 조화를 이룬 SBS의 프로그램들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안전하게 그 두가지를 한꺼번에 만날수 있도록 해주었다.

문 화란 펼쳐보일수 있는 마당이 있고 그 마당에 넓직한 명석 하나쯤 깔려있어야 신명나게 발전해갈 수 있는 법이다. 균형있는 문화발전과 공익향상의 마당이 되기를 자청해온 SBS는 지난 1년동안 '시청률을 우선의 미덕으로 삼는' 상업방송답지 않게 사회에 대한 폭넓은 관심을 보여왔다. 그중에서도 최대의 하이라이트는 유엔이 정한 마약퇴치 천선대사의 공식후원사로서 국제적인 관심사에 당당히 한몫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세계가 아끼는 한국인 정트리오와 마약퇴치 활동을 함께 하게 된 서울방송은 이미 기금 마련 리셉션과 초청 연주회를 여는 등 마약퇴치사업 후원사로서의 일에 남다른 열성과 역량을 보여준바 있으며 올 한해동안의 성과를 발판 삼아 93년에는 더 넓고 소중한 문화의 명석이 될 작정이다. '건강한 사회'와 '건강한 방송'은 서로 한몫이나 다름 없다는 사실을 SBS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 마약퇴치 천선대사 공식후원 활동 시작





화제 5

92년은 텔레비전에 유난히 퀴즈프로그램이 많이 등장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 쇼나 코미디를 제치고 퀴즈가 오락프로그램의 만행으로 군림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짐작한 이는 별로 없었다. 사실 50년대 라디오의 「스무고개」부터 시작된 퀴즈프로의 역사가 우리 방송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퀴즈는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해왔을 뿐 아니라 시도때도 없이 비판의 도마 위에 올려지곤 했다.

그러나 SBS가 개국 당시부터 심혈을 기울여 선보여온 퀴즈프로그램들은 그런 장애물을 이겨내고 TV에 퀴즈를 정착시키는 저력을 발휘하며 올 한해 각 방송사에 퀴즈 홍수를 일으킨 주역노릇을 했다. 「지구촌 퀴즈」를 비롯해서 「빙글빙글 퀴즈」 「알뜰살림 장만퀴즈」 등 SBS의 퀴즈프로그램들은 그런 장르의 프로그램들이 흔히 빠져들기 쉬운 단조로움과 일상성을 극복하고 시청자의 '건강한 친구'로 자리잡았다.

**SBS의 퀴즈 트리오,
방송계에 퀴즈 프로그램
전성기 물고 오다**

화제 6

새로운 감각의 프로그램, 그것은 방송인 누구나의 소망이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갖춰야 한다는 것 또한 기본적인 양식이다. 새로우면서도 재미와 수준을 잃지 않는 프로그램, 다른 것도 아닌 코미디를 그렇게 만들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 프로그램이 「코미디 전망대」이다. 잡다한 구성으로 결국은 프로 전체의 분위기까지 산만하게 만들어버리는 수많은 오락 프로그램의 홍수 속에서 절제와 중용의 미덕을 잃지 않고 코미디의 차원을 한단계 끌어올린 품격있는 코미디, 이것이 「코미디 전망대」에 보내지는 칭찬이다. 거기에 또 하나를 덧붙이자면, 지난 1년동안 단 한주일도 어김없이 수요일 밤 9시 50분이면 시청자를 찾아온 그 '성실함'을 들 수 있다. 여기엔 연출가와 작가, 연기진의 화음이 원동력이 되었을 것임은 물론이거니와 코미디라고 해서 무조건 저질일 이치는 없으며 공들인 만큼 좋은 프로그램이 나올수 있다는 평범한 원칙을 처음부터 지금껏 충실히 지켜온데에 그이유가 있을 것이다. S

**「코미디 전망대」,
첫회부터 화제 일으키며
1년내내 정상질주**

「SBS 매거진」과 나 “쑥쑥 커가는 SBS를 읽는다”

가장 친한 입사동기를 보듯



명현규 ·

보도국 보도위원,

「SBS 8뉴스」 앵커

새로 나온 「SBS매거진」이 책상 위에 놓여질 때 나는 누구보다도 각별한 친근감을 느낀다. 지난해 12월, SBS-TV 개국과 함께 세상에 나온 「SBS매거진」, 그리고 새 TV 방송의 뉴스진행자로 '쇼 원도우'에 처음 얼굴을 내민 나. 그런 유사성 때문인지 이 잡지에 대한 나의 느낌은 입사동기를 보는 것 같다.

더욱이 「SBS매거진」 창간호에 황송하게도 내 어수룩한 모습이 표지를 장식했으니 나의 친밀감은 남다른 데가 있을 수밖에 없다. 창간호에 소개된 나에 대한 기사는 실제 이상으로

평가해준, 그야말로 과대 포장이었다고 생각한다. 물론 고맙고 기분좋은 일이었음을 솔직히 고백하지만 상당 부분 쑥스럽고 부끄러웠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 인연 때문인지도 몰라도 나는 「SBS매거진」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읽는다.

SBS-TV와 함께 탄생한 「SBS매거진」은 이제 겨우 한살 밖에 안됐지만 나이에 비해 무척 세련되고 조숙한 느낌을 받는다. 우선 편집이 그렇고 사진과 글, 그 내용이 모두 그렇다. 이런 류의 잡지들은 대개 사보의 한계를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데 「SBS매거진」은 이미 오래전에 그런 단계를 벗어난 느낌이다.

이 잡지는 우선 재미있다. 방송의 전면에 나선 사람들, 또 그들이 만들어 내는 작품에 대한 얘기도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지만 상당한 지면을 할애해서 소개하는 화면 뒷쪽의 얘기들은 더욱 흥미진진하다. 그런 노력은 방송에 대한 시청자들의 인식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하리라 믿는다.

전반적으로 '팔이 안으로 굽는' 평가 속에 한 가지 아쉬운 점을 굳이 지적하자면 「SBS매거진」이 포장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는 게 아닌가 하는 점이다. 그렇게 되면 화려하기는 하겠지

만 자칫 외화내빈(外華內貧)의 우를 범할 수도 있는 것이다. 보다 알맹이 있는 내용을 발굴하고 채우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예컨대 방송에 대한 다양한 시청자들의 얘기나 재미있는 외국방송의 얘기들도 한번 생각해 볼적 하겠다.

SBS는 이제 '꿀'을 갖추고 내실을 다져가는 단계에 있다. 「SBS매거진」 역시 그런 시점에 와있음은 물론이다.

내 뽀얀 피부에 얹힌 사연

김미화 ·
개그맨



아~ 한땀한 김미화의 절규하는 소리이다. 왜 나는 표지모델로 한번도 써주질 않는 것인가. 창간호부터 쭉욱 지켜보며 이제나 저제나 남 그리듯 기다렸는데, 그래서 드디어 이번엔 연락이 왔구나하며 반가운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는데, 또한 이제야 내 미모를 알아주는구나 하고 기뻐했는데, 웬걸?

“원고 좀 써주세요!”

“음메~기죽어!”

비통하긴 하지만 마음을 진정시키고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려 한다. 처음 KBS에서 SBS로 옮겨왔을 때는 연가생활 10년동안 너

무나 안일하게 생활해온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과 한편으론 전국방송도 아닌 이곳에서 잘 건디어 낼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내 인생을 새롭게 자극하며 또 한번 도전해보자 하는 오기가 뒤섞여 범벅이 된 심정이었다.

그런 와중에 6년동안 기다리던 아기가 SBS 개국과 함께 생겨났다. 빛돌이와 함께. 아난게 아니라 우리 딸 유림이는 이제 막 웅얼이를 시작했는데 빛돌이처럼 “까우-까우-”소리를 낸다. 임신 중에도 「SBS매거진」은 내 근황과 안부를 걱정하는 기사를 실어줘 참으로 나와는 댈래야 댈 수 없는 사이구나 하는걸 느끼게 했다.

특히 잊지 못할 사건은 꽃가루 알레르기 사건이다. 임신 중에 제작진의 배려로 「코미디 전망대」의 ‘임산부 칼럼’을 한동안 내가 머물고 있던 친정집에서 찍은 적이 있는데 특별히 「SBS매거진」에 사진이 필요하다고 해서 남산만한 배를 한채 유채꽃이 만발한 한강시민공원으로 사진 촬영을 갔었다. ‘초보임산부’란 꽃말을 목에 걸고 요염한 포즈로 사진을 찍은 것까진 좋았는데 꽃가루 알레르기가 돌아 임신중이라 약도 못먹고 그날 저녁 내내 샤워만 스무번도 더했던 일이다. 그때 하두 셋어서인지 나는 지금도 피부가 뽀얏다는 소릴 듣는다.

그후에도 새로운 코너를 시작할 때마다, 또 한 코너가 인기를 얻기 시작할 때마다 언제 취재를 해가는지 영락없이 「SBS 매거진」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요즘은 「SBS 매거진」이 나올 때가 되면 은근히 기다려진다.

SBS가 벌써 창사 2주년을 맞이 했다. SBS는 정말 연기자들을 위해주고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방송이라는 걸 나는 요즘 매일매일 느끼며 산다. 날로 발전하는 SBS 만세!

뜻내기 방송기자의 퇴근길 필독서

김종건 ·
스포츠서울
연예부 기자



매 달 책상 앞으로 배달되는 「SBS매거진」을 받는 날은 기분좋은 날이 된다. 우선 퇴근하는 시간이 즐거워진다. 「SBS매거진」 한 권을 독파하면서 집에 가는 시간은 아무리 길어 막혀도, 전철 속에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짜증이 안난다.

참고서로도 「SBS매거진」은 큰 역할을 한다. 마치 어릴때 전과와 수련장이 있으면 공부에 자신이 생겼듯 스튜디오를 다니면서 막힐 일이 없다. 매호마다 바뀌는 표지인물과 커버스토리를 보면 요즘 어떤 사람이, 어떤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고 있는지 알 수 있어 좋다. 그 흐름대로만 따라간다면 최소한 '센스없는 방송기자'란 소리를 안들을 것 같다.

「SBS매거진」이 반가운 또 다른 이유는 PD들의 진실한 얘기를 만날 수 있어서다. 흔히 기자는 기사로 얘기를 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PD는 분명히 화면과 소리로 뜻을 전하리라. 그러나 어떤 기자도 자신이 뜻한 바를 완전히 전하지 못하고 아쉬워하듯 PD도 화면 속에서 하지 못한 얘기가 많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런 마음으로 써낸 글이 실려 있기에 더욱 재미있다. 또 몇몇 친한 얼굴들의 숨겨진 글썽씨

를 보는 것도 색다른 흥미를 준다.

「SBS 문화살롱」은 내가 가장 정독하는 페이지다. 대중문화의 기둥을 이루는 영화, 가요를 비롯 연극, 공연에 관해 전문가가 허심탄회하게 써놓은 내용은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나에게 준다. 몇몇 유행가요가 일본 노래를 베낀 흔적이 있다는 글은 막 방송기자로 입문한 내게 많은 자극을 주기도 했다.

또한 「SBS매거진」에 실려 있는 사진은 내가 가장 많은 도움을 얻는 부분이다. 기사를 써 놓고도 그에 맞는 사진이 없어 당황할 때 매거진을 펼치면 어김없이 답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매월 깔끔한 편집으로 만들어진 「SBS매거진」을 대할 때마다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 창간 한돌을 맞는 「SBS매거진」이 무럭무럭 자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구슬을 꿰는 가룩한 정성

김태성 ·
TV제작국 제작2부



일 년전 여름이었던 걸로 기억된다. "서울방송을 대표하는 홍보 잡지를 만들려는데, 뭐 좋은 이름 좀 내놓아보세요."

북도에서 우연히 마주친 홍보부 담당자는 마치 꿰준 돈 달라는듯이 당당하게 요구했다.

“내가 무슨 작명가야? 이름을 달라니...”

얼렁뚱땅 얼버무리며 돌아서는 뒷통수에 그는 해비급편치만한 한마디를 던졌다.

“기껏 만들어 놓은 다음에 남의 말하듯 쭈군대지 말고, 내것이다 생각하고 고민 좀 해요!”

남의 말? 쭈군대? 다시 돌아 봤을 땐 그의 발자국 소리가 이미 북도길을 돌아나가는 순간이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남의 말’이란 어휘는 웬지 듣기에 썩 유쾌하지 않은 구석이 있다. 쭈군거리림, 빈정거리림, 심지어는 욕, 흠, 증상모략까지도 그 주변에 서성거릴 것같은 느낌과 경험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남의 말’도 잘만 하면 얼마든지 다른 느낌일 수 있다. 화제의 표적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의 증거이고, 세상 사는데 한 몫을 할 정보일 수도 있고, 남을 통해 나를 보는 기회일 수도 있으니 말이다.

사실 지난 일년동안 「SBS매거진」은 밖으로는 서울방송이 하기 쉬운 ‘남의 말’로 굴러다닐 때 의연한 수문장의 모습으로 제 할일을 다했고, 안으로는 ‘노아의 방주’에 모인 사람들처럼 서로 서먹하기만 했던 서울방송 식구들이 눈인사를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주고 받을 수 있게끔 관심의 매개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구슬 꿰는 아낙의 정성으로 남의 말을 모아 ‘우리의 말’로 빛나게 만든 「SBS매거진」에게 수고했다는 인사보다는 고맙다는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은 심정이다.

누구도 뒤에 서서 남 얘기 하듯 쭈군거리지 않고 앞에 서서 우리의 얘기로 당당하게 말할 때, 다닐만한 직장 살만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앞으로 계속 이런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SBS매거진」을 기대해본다.

가족처럼 감싸안은 포근한 울타리



오아랑 ·

SBS1기 탤런트

작년 여름 SBS 1기 탤런트가 되어 무더운 여름날들을 연수기간으로 보낸 후 1년동안 ‘탤런트는 이런 거다’라는 호된 가르침 속에서 연기자의 길을 배우고 있는데 이 길은 평생을 가도 ‘완성’이라는 단어를 만나지 못할 것 같다.

「목소리를 낮춰요」를 시작으로 「장미정원」, 지금 출연하고 있는 「가을여자」에 이르기까지 연기자가 되기 위한 공부는 무척 어려웠다. 또한 성격상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무엇보다도 싫어하기에 연기에 있어 자기 만족과 동시에 타인으로부터의 인정까지 받기위해 애를 쓰느라 무던히도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장미정원」에 출연중이었던 지난 7월 「SBS매거진」의 '92년을 달린다'에 내 기사가 사진과 함께 소개되었는데 내가 소속되어 있는 SBS가 나를 인정해준다는 생각에 무척 기뻐다. 그후에 신문, 잡지의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여 갑자기 바쁜 날들을 보내게 되니 「SBS매거진」이 더욱더 최선을 다하는 연기자가 되도록 나를 북돋워준 느낌이었다.

「SBS매거진」은 단순히 SBS와 방송 프로그램의 홍보를 하는데 그치지 않고 SBS가 나

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고 자체내의 비판도 싣고 있어 SBS를 바라보는 시각을 폭넓고 올바르게 해준다. 개인적으로도 계속 「SBS매거진」의 애독자로 남을 것이고 나의 의견을 제시할수 있는 기회도 갖고 싶다. 「SBS매거진」의 더욱 성숙된 모습을 기대하며 많은 선배님들의 연기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들여 끝없는 배움 속에 성장하는 연기가 되어가는 나의 모습이 「SBS매거진」에 계속 수록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 한달을 준비시키는 시간의 전령



이재호 ·
한국종합금융(주)
리이스부

사람들엔겐 저마다 시간의 흐름을 감지하는 일정한 방법이 있기 마련이다. 나도 예외는 아니어서 나름대로 세월의 경과를 느끼는 계기를 갖고 있다. “이번호 「SBS매거진」 아직 안왔나?”하는 K과장의 물음이 그것이다. 내게 매달 정기적으로 우송되는 「SBS매거진」을 같이 보며 자신도 모르게 애독자가 되어버린 K과장은 때가 되면 어김없이 「SBS매거진」의 도착 여부를 묻곤 한다. K과장의 기대섞인 기다림을 통해 나는 또 한달이 시작되었음을 실감하게 된다. 그러니까 「SBS매거

진」은 내게 한달의 시간이 흘렀음을 알려주며 또 다른 한달의 생활을 준비시키는 ‘시간의 전령’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1차적으로 방송매체를 통해 각종 뉴스를 접하게 된다. 하지만 같은 내용이 실린 신문들 또 읽는다. 방송 뉴스는 신속하나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여유를 갖고 내용을 음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사실 뒤에 숨겨져 있는 이면의 사정을 알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활자로 확인해야만 모든 것을 손에 쥔듯 알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평범한 사람들의 심리일 것이다.

내게 있어서 「SBS매거진」은 신문의 역할을 하고 있다. TV로 본 것을 「SBS매거진」의 지면을 통해 다시 한번 내용을 반추하며 이면의 이야기를 확인하는 것이 「SBS매거진」을 읽으며 느끼는 가장 큰 즐거움인 것이다. 이렇듯 내게 「SBS매거진」은 ‘읽는 TV’의 역할을 해준다.

흔히 TV를 바보상자라고 하여 TV의 역기능을 경고한다. “TV를 꺼버리라”는 가사의 가요도 있을 정도로 TV의 폐해를 걱정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분적으로는 옳을 수 있다. 하지만 TV에는 그 역기능을 상쇄하고도 남는 순기능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문제는 TV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이다. 적절히 취사선택할 수 있다면 TV를 통해 각종 정보 및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효과적으로 보고 들을 수 있다. 반복되는 생활 속의 권태와 무력감도 TV가 잊게 해준다.

「SBS매거진」은 내게 TV를 이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매달 나보다 먼저 「SBS매거진」의 도착을 기다리는 K과장과 함께 「SBS매거진」의 창간 한돌을 축하한다. **5**

잠깐만!

SBS 프로그램을 비디오로 다시 만나십시오

언제나 곁에 있는 기쁨과 감동

SBS프로덕션은 SBS가 제작 방송한 프로그램들을 비디오 테이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깝게 놓치거나 다시 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으신 분, 해외에 살고 있는 친자들에게 고국의 향수와 인정을 담아보내고 싶으신 분, 또는 교육기관과 공공단체, 기업체의 연수용이나 홍보용 시청각자료로 비치하려는 분께서는 지금 바로 SBS프로덕션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좋은 프로그램이 주는 감동과 기쁨을 오래도록 간직하게 해드립니다.



판매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

SBS프로덕션 사업부

주문방법/ 전화 (02) 784-1343/ 4, 또는 Fax

(02) 784-6660

주문예약 후 대금을 입금하시면 지정하신

주소로 테이프를 보내드립니다. 혹은 직접

방문하셔도 좋습니다.

프로그램 가격(VHS테이프)

30분-1만 7,000원 60분-2만, 4,000원

90분-3만 1,000원 120분-3만, 5,000원

대금 입금 구좌(예금주: SBS프로덕션)

-국민은행: 816-01-0190-241

-외환은행: 234-22-00135-2

-상업은행: 432-04-103610

-한일은행: 085-216882-13-001

-신한은행: 305-05-008614

-농협: 083-17-001756

-우체국: 014027-0003945



자니윤을 떠나보내며 어쩌면 알것도 같은 웃음속의 외로움

김 포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오늘의 이별은 오랜 헤어짐을 잉태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당분간 만나기 힘들지도 몰라...

뒤돌아 보면 자니윤이 SBS-TV 개국과 함께 한국에 온 지도 1년, 스튜디오도 없고 기계 시설도 부족해서 당황해하던 초창기 기억이 새롭다. 예전 방송사에서는 자니윤에게 대기실로 VIP룸을 마련해주고 가장 큰 공개홀을 스튜디오로 배정해주기도 했는데..., 처음엔 주변 여건에 대해 불평이 많아 연출진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적도 있었다.

더 이상 방송을 하지 않고 미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해서 새벽에 홀로 사는 아파트를 찾아간 적이 있다. 정돈이 잘되어 있긴 했지만 어딘지 쓸쓸한 방의 풍경이 외로워 보였다. 침실에 베개가 두개나 있어서 웬일이냐고 물었더니 언제 찾아올지도 모를 신부용이라고 해서 웃던 기억이 난다. 우리는 그날 너무 좋아하면 너무 미워질 수도 있다는 말에 공감했다.

자니윤의 고별쇼를 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칭찬을 했다. 그가 대학 시절 잠시 성악을 전공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의 발성에 대해 칭찬을 했고, 나이 많은 사람들은 50대 중반에도 자기일을 저토록 열심히 하려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고 했다. 또 전문가들은 30여년 미국 연예계의 풍상을 겪은 얼굴의 주름살이 너무나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그에게 고별쇼를 하면서 어떤 느낌이었냐고 묻자 무척 힘들었다고 했다. 또 눈물을 감추느라 힘들지 않았느냐고 묻자 가사를 잊어먹을까 봐 힘들었다며 좌충을 웃음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그의 눈에 어리던 눈물을 카메라가 놓치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마련된 자니윤 고별쇼는 오는 12월 20일 방송된다.

자니윤이 질문받는 내용 중 대부분은 토크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한



모국편의 가슴 속에 영원한 코미디언으로 남고 싶은 자니윤. 그가 미국으로 떠나던 날, 지난 1년동안 정이 훌쩍 들어버린 제작진과 함께 공항에서 아쉬운 작별의 정을 나누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차성모PD, 이남기 부장, 자니윤, 김세환, 한사할 건너 이기진 PD가 섰다.

자니윤의 대답은 한결같다.

“제가 가장 보람있게 생각하는 것은 토크쇼의 형식을 처음 국내에 소개했고, 토크쇼를 국내에 확실히 정착시켰다는 사실입니다. 토크쇼의 매력은 솔직히 이야기하는 것인데 무엇이든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준 것이 자니윤쇼의 매력이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이제는 대부분의 게스트들이 꾸며서 이야기하면 손해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이야기하고 자기의 결점도 인정할 줄 아는 사회, 토크쇼가 바라는 사회이자 바로 민주주의 사회지요.”

토크쇼를 하면서 그가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을까?

“글쎄요, 유머를 준비해가서 이번에는 틀림없이 웃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안 웃

어줄 때지요. 그럴 때면 하이 코미디라 방청객은 안 웃지만 시청자들은 웃을 거라고 위로하지만 순간적으로 당황하지요.”

유머감각이 없는 사람과는 1분도 함께 앉아 있기 힘들다는 그는 웃음이야말로 다른 동물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인간에게 내린 신의 유일한 혜택이라고 강조한다.

“동물들도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사랑을 하고 의사 소통도 하고 싸움도 하지만 자기들끼리 웃는 거 봤어요? 인간이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은 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웃음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팬들은 그가 미국으로 돌아가면 무엇을 할 것인가 궁금할 것이다.

“우선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을 하고 며칠 쉼 쉬고 싶습니다. 그다음 장길수 감독의 영화에

끝 출연해야 하고요. 또 제가 시나리오를 쓴 「Bruce Levy」라는 영화를 완성해야 합니다. 93년은 주로 영화에 많은 시간을 뺏길 것 같아요. 사이사이에 공연도 해야 하고....”

나는 알고 있다. 그는 미국에 가서도 매일 헬스클럽에 나갈 것이고 틈만 나면 나면 골프를 치러 다닐 것이다. 그에게 있어 건강은 가장 중요한 재산이니까. 아파서 누워있어 봤자 누구 한사람 챙겨줄 사람이 있겠는가. 홀몸인 그에게 건강은 마지막 보루와 같은 것이다. 50대 중반부터는 혼자 산다는 것이 약간 두려워질 법도 한데 외롭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다. 다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다.

“내가 한창 일할 때는 여기 저기 호텔 공연장을 다녔어 했는데 어떤때는 서너시간씩 산길을 드라이브해 갈 때도 있었어요. 달빛은 교묘한데



결에는 아무도 없고, 그럴 때는 국악테이프를 들읍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옵니다. 혼자 운전해서 드라이브하는 기분 참 묘해요. 물론 무대에 올라가면 웃겨야죠. 돌아올 때 또 울면 되니까요.”

국악을 좋아하는 사람답게 전라도 남원을 그렇게 가보고 싶어하더니 떠나기 두주일쯤 전에 스태프들과 구례 화엄사를 거쳐 춘향의 마을을 다녀왔다. 어찌나 좋아하든지 나는 똑같은 이야기



를 수차례 들어야했다.

그에게 있어 향수는 깊은 병과 다름없다. 충북 음성에서 태어나 시골에서 어린시절을 보낸 촌 사람이 화려한 미국 연예계에서 일생을 보냈더니 향수병에 시달릴 만하지 않은가. 그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정지용 시인의 글에 곡을 붙인 「향수」라는 노래다. 자신이 자란 시골과 묘사가 한치도 틀림이 없다며 틈만 있으면 흥얼거리는 노래다.

자니운은 이제 떠났다. 그는 미국의 이곳 저곳을 떠돌며 연예계 생활을 계속할 것이다. 지난날처럼 내시간 산길을 드라이브하는 경우가 적겠지만 홀로 지내야하는 고독한 시간은 더 많아질 것이다. 그리움을 되새김질 할 때 그는 국악테이프를 듣거나 「향수」를 떠들떠들 부를 것이다.

‘넋은 벌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백이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 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우리가 자니운을 못잊듯이 그도 우리를 잊지 못할 것이다. S

글/이남기·TV제작국 제작2부장

사진/정본경

여기는 792 SBS라디오입니다



지금 방송중/「마음은 언제나 청춘」
792 초대석/기상리포터 심연
방송의 현장/
「서울 전망대」-「중계차 현장」





지금 방송중

「마음은 언제나 청춘」

새벽을 훈훈하게 답히는 노년의 다정한 벗

- 연출 이재준
- 진행 변순복
- 방송 매일 아침 5시 5분~6시

푸르스름한 새벽길을 걸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새벽을 여는 이들이 많은 것에 놀랄 것이다. 고생이 한 밀천인 청년들, 청소부, 그리고 약속통을 든 건강과 동등. 새벽은 이렇게 지쳐있거나 좌절한 이들에게 때로는 희망으로 때로는 투지로 다가간다.

후기 산업사회에 접어들면서 우리에게 별반 낯선 감도, 그렇다고 특별한 감흥도 주지 못하게 된 말이 있다면 '소외계층'이라는 말이 아닐까 싶다. 그 소외계층 속에 또 다른 소외계층이 있으니, 노인계층이 바로 이렇다.

그런데 요즘 들어 이들의 새벽을 훈훈하게 해주는 것이 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5시, 인생무상에 한숨 짓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에

게 어김없이 찾아가는 SBS 라디오의 「마음은 언제나 청춘」이 그것이다. 낭랑하고 다정다감한 변순복 아나운서의 목소리는 때로는 자상한 어머니 같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 저런 세상 일을 물어다 수다를 늘어놓는 손녀딸 같기도 하다. 노인들이 변순복 아나운서를 얼마나 친근하게 여기는지는 “이불이 없다”고, 또는 “시계가 없다”는 말을 변순복 아나운서를 찾아 하소연 했다는 일화에서 확인된다. 또 어떤 할아버지는 변순복 아나운서가 미혼인 줄 알고 중매를 자청하고 나선 일도 있다고 한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변순복 아나운서는 「마음은 언제나 청춘」의 진행자로 매우 적절해 보인다. 노인 대상 프로그램이 빈곤한 현실에 비추어 KBS 라디오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공개방송 「장수무대」를 진행했다는 경력 때문이다. 또 그것은 SBS 개국과 함께 나이를 먹어가는 이 프로그램을 아직도 진행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프로를 진행하면서 인간 본연의 양심이 되살아나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지금의 노인들은 자신을 돌보지 않고 살아온 세대잖아요. 우리 세대가 노후대책을 영악하게 세우는 것에 비하면 노인들이 너무 무대접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노인들에 대해 너무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노인을 하면 뭔가 해줘야 되고 떠벌들어야 하는 귀찮은 존재라고 생각하겠지만 요즘 노인

들, 안 그래요. 대접받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을 원해요.”

일요일의 ‘가정상담’ 코너는 노인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창구다. ‘온초롱’에서 상담에 응하는 이 창구에 나타난 노인들의 문제는 사실 대단한 것이 아니다. 이기주의적인 핵가족화의 진행에 따른 가족관계의 단절이 주된 내용이다. 이재춘 프로듀서는 바로 이 대단하지 않지만 심각한 노인문제, 즉 점차 열외로 밀려나는 노인문제에 대해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환기시키는 것이 바로 「마음은 언제나 청춘」의 존재 이유라고



했다.

“이불이나 시계 따위는 스폰서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노인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합니다. 즉 전시행정용의 노인복지가 되어서는 악순환만 계속될 뿐이라는 거지요. 그런 시각에서 우리 프로는 오락적 측면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토는 ‘할머니, 할아버지 놀지마세요’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삶의 무대에서 퇴장하

노인대상 프로그램에 관한 변순복 아나운서는 경력과 능력 모두 둘째 가라면 서러운 사람이다. 그래서인지 그에 대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사랑은 어떤 인기 프로그램 못지 않다.



나이를 먹지 않고
언제까지 젊게 사는
사람은 없다. 노인은
바로 우리들 미래의
모습인 것이다. 이재춘
프로듀서는 마치
자신의 미래를 가꾸듯
프로그램에 일한다.
「마음은 언제나
청춘」의 내용이
충실한 것은 제작진의
그런 마음이 담겨서일
것이다.

지 말자는 거지요.”

그래서 「마음은 언제나 청춘」은
시사해설을 통해 정치, 경제에 대한
관심의 끈을 늦추지 않도록 하고 있
으며 직접적으로는 생활정보를 통해
구직 알선에서 강습 프로그램까지 다
양하게 안내해주고 있다. 그리고 무
엇보다 노인들에게 새로운 의욕을 꿈
틀거리게 만들어주는 것은 노익장의
발굴이다.

쌀집에서 일하다가 고입 검정고시
에 합격한 후 이제 대입에 도전하고
있다는 이근복 할아버지(아들과 함
께 대입시험을 봤었는데 체력장 때문
에 실패하고 재기의 의욕을 불사르고
있다고 한다), 일흔여섯살에 시집을
낸 전성신 할머니, 컴퓨터를 배우는
칠순 할아버지의 이야기 등, 「마음은
언제나 청춘」팀이 발굴해낸 이야기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무궁무진하
다. “이제 다 끝났어” 하며 해바라기
만 하던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의 가슴
을 벅찬 의욕으로 출렁이게 하는 것
중에 이보다 더 피부에 와닿는 것이
어디 있겠는가.

이재춘 프로듀서는 경제적인 자립

과 일을 원하는 노인들이 의외로 많
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한다. 실제로
고급 군인, 공무원이었다가 구두를
닦거나 경비를 서는 노인들이 있는데
그들의 한결같은 이야기는 일을 시작
하자마자 병이 다 나았다는 것이다.

요즘 이재춘 프로듀서는 얼마전부
터 마련한 ‘핀소리 한마당’이 큰 호응
을 얻고 있어 싱글벙글이다. 그는 주
머니 돈을 털어 춘향가, 수궁가, 흥보
가의 그 많은 사설을 복사해 노인들
에게 우송해주는 열성까지 보이고 있
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즐거워
한다고 생각하면 전혀 힘들지 않다면
웃는다.

변순복 아나운서와 함께 탄생에서
부터 지금까지 「마음은 언제나 청
춘」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이로 작가
양동수가 있다.

“무엇보다 노인은 특별한 계층이
아니라 그저 우리 사회 구성원의 하
나라는 발상의 전환이 절실해요. 이
프로를 만들면서 저도 비로소 노인이
바로 우리의 미래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을 수 있었어요. 요즘 노인들 중
에서는 ‘스스로 따로 살기를 위해서’
라고 하면서 분가를 한 사람들이 많
은데 한참 이야기하다 보면 결국 자
식들이 불편해할까봐 눈치껏 피해주
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 또한
얼마나 간단한 문젠지. 스스로에
게 비추어보세요. 나중에 늙어서 그
렇게 외롭게 살고 싶은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하거나 거창한 코너로
자칫 외화내빈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를 견제하는 것이 원고 집필의 원칙이라고 했다. 안그래도 내실있는 노인복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마음은 언제나 청춘」마저 노인들에게 실망을 주면 되겠느냐며 그는 도리어 반문했다.

「마음은 언제나 청춘」이 노인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고 현실감과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할 수 있는 것은 뭐니뭐니 해도 늘 노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노인들이 있는 곳이라면 산꼭대기 달동네도 마다않고 돌아다니는 오은경 리포터는 그래서 이 프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풋풋한 얼굴의 오은경 리포터는 나이답지 않게 사뭇 심각한 표정이었다.

“노인들이 얼마나 외로운지 절감 하겠더군요. 십분 정도면 끝날 취재가 어떤 때는 두 시간까지 걸리거든요. 그만큼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아 니겠어요? 호랑이 시어머니는 다 옛말이에요. 요새는 고학력에 경제적으로 유능한 며느리에게 시집살이 하시는 시어머니가 오히려 많은 것 같아요. 이런저런 얘기 끝에 자조적으로 내뱉으시는 말이 ‘당신들도 늙어 바라’예요.”

노인들에게는 한달에 열두장의 버스표가 지급되고 있다고 하는데 버스를 갈아타고 다닌다면 사흘이면 다 쓰는 그야말로 낮간지러운 생색용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노인대학 등에서 버스표가 필요치 않은 노인들이 암거래를 한다는 소문도 있다고 한



다. 도대체 보사당국에서는 이런 현실을 파악하고 있는지, ‘한달에 열두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캐묻기 위해 오은경 리포터는 보사부까지 쳐들어 갔는데 아무 것도 아닌 것을 설명해주는 데 담당자가 과장, 국장에게 보고를 하며 전전공공하는 것을 보면서 공무원들에게 실망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복지관에 가보면 단적으로 알 수 있어요. 복지관만 지어주면 거기서 화투를 치든, 장기를 두든 상관없다는 거지요.”

‘방송은 공기’라는 말에 그 책임을 다하는 프로가 있다면 「마음은 언제나 청춘」을 자신있게 꿈꿀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것이 취재를 마친 후의 느낌이다. 무엇보다 「마음은 언제나 청춘」을 이끌어가는 제작진의 노인들에 대한 애정은 감동적이기까지 했다. 그들의 애정을 어떤 미시여구로도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S**

노인은 결코 특별한 계층이 아니다. 젊은이와 다름없이 사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계층일 뿐이다. 그러므로 「마음은 언제나 청춘」은 특별하거나 거창하게 꾸미는 것을 경계하고 항상 노인들의 곁에서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제작의 첫번째 원칙으로 삼고 있다.

글/아성아 · 소설가

사진/서창식

기상리포터 심연

감각으로 날씨 읽어내는 10년 기상통



지난 가을 종말론이 한창 위세를 떨치고 있을 무렵, 사람들은 그런 엉터리같은 예언의 허구성을 비난하면서도 한편으론 만약 정말 종말이 온다면 어떨 것인가에 대해 한번 짚은 미련을 갖곤 했다. 인간이 인간의 일에 대해 하는 예언이란 항상 이런 이중성을 갖게 마련이다. '그렇다',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두개의 가능성 사이에서 때론 초과학적인 허구가 개입되기도 하고 나름의 합리성이 주장되기도 하는 것이다.

일기예보라는 것도 사실은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같은 예언이 갖는 딜레마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는 없는 숙명을 지닌, 좀 답답한 작업이 아닐 수 없다. 틀리면 욕 얻어먹기 일쑤요, 맞아봐야 본전일 뿐인 이 수지 안맞는 일을 즐겁게, 그것도 청취자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수행하는 사람 중의 하나가 SBS 기상청 리포터 심연이다.

하루 두 번(새벽과 저녁 5분씩)의 정기적인 기상예보와 각각의 개별 프로그램 사이사이 에 하게 되는 것까지 합친다면 SBS라디오를 통해 들게 되는 그의 기상예보는 하루에도 대여섯 차례나 된다. 그러나 매번 다른 일기예보를 듣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이 그의 스타일의 장점이다. 과거와는 달리 부쩍 세밀하고 다양한 기상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좀더 쉽고 친근하게 소화해 내려 하는 그의 노력이 돋보이는 부분이다.

인공위성에서 보내오는 기상사진이나 첨단 관측장비에서 쏟아져 나오는 과학적 데이터들이 물론 첨단 과학 시대의 예보를 구성하는 토대가 되지만 그런 자료들에서 나오는 계수나 통계, 다시 말해 '내일 비을 확률 몇 퍼센트'라는 식의 건조한 표현들만으로는 이즈음의 성미 급한 생활인들에게 별반 큰 의미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그도 피부로 느끼고 있다. 도대체

‘비를 화를 30퍼센트’라면 비가 온다는 소린지 아니면 10분의 3쯤 올 것이란 애긴지 답답해 하는 사람들에게 과연 어떻게 적절히 정보와 예언(?)을 배합하여 이해시킬 것인가?

좀 일토당도 않지만 그가 찾아낸 해답은 ‘감각(感覺)’이다. 청개구리가 울면 비가 온다거나 저녁 노을이 지면 다음 날이 화창하다거나 하는 식의 예보가 기압차나 기단의 흐름이니 하는 전문용어보다는 훨씬 더 쉽게 이해되는 것처럼, 옛날 일기예보라는 단어가 없던 시절 우리 선조들이 체험으로 터득했던 그 경험과학의 부드럽고 친근한 표현들이 오히려 숫자와 그래프에 묻혀 사는 현대인들에겐 더 효과적인 것이라는 게 심연 나름대로의 감각적 기상예보론인 것이다.

다른 많은 분야의 일들도 그러하겠지만 기상관계의 일에도 역시 ‘경력과 잔뼈’가 매우 중요하다. 한 할아버지가 어깨를 주무르며 “애며늘아, 뽕래 견어라”하는 신경통 약 광고가 크게 히트했던 것처럼 날씨에 대한 예측만큼은 생활 체험의 살아있는 자료에 바탕을 두기 때문이다. 심연은 아직 수신 어깨로 호린 날씨를 예보할(?) 만큼은 원숙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 분야에선 10년의 경력을 갖고 있는 베테랑이다. 1982년 KBS 라디오서울에서 정보방송의 다각화를 표방하며 국내 최초로 선발한 네명의 기상요원에 이름이 오르면서—그 네명 중에는 지금 SBS보도국의 기상담당인 공항진 기자도 끼여있다—그의 기상 인생은 시작됐다. 방송사의 이름도 바뀌었고 결혼도 했으며 매번의 계절을 맞고 보내는 느낌과 생각도 많이 바뀌었다.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하겠어요. 10년전부터 지금까지 빼놓지 않고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해왔지만 아직도 계절이 바뀔 때가 되면 새로운 표현이 생각나요. 왜 내가 작



년엔 이런 말을 생각해 내지 못했을까 하는 때가 아직도 있거든요?”

직접 방송원고를 작성해야 하고 쏟아져 나오는 데이터들 역시 직접 검토해야 하는 1일 2교대 12시간 근무의 팍팍한 일정이지만 틈틈이 활자로 된 각종의 자료들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고쳐 기록으로 보존하는 일에도 게으르지 않다. 이렇게 10년을 모은 기상관계 자료가 벌써 책으로 몇권이 되었다니 매일 라디오를 통해 들려오는 그의 멋진 문학적 기상예보에는 다 숨은 이유가 있었던 모양이다. 만약 기회가 주어진다면 ‘기상 DJ’같은 포맷의 라디오 음악 프로그램을 맡아 이 소중한 재산을 한번 마음껏 써보고 싶은 욕심도 갖고 있다.

울거울은 유난히 추울 것이라고 한다. 좀 성급한 이들은 벌써 봄의 따뜻함을 그리워할지도 모르겠지만 심연의 생각은 좀 다르다. 여자는 여자답고 남자는 남자다워야 하듯이 겨울다운 겨울을 오랜만에 맞았기 때문이다. 아마도 우리 사회에 몇 안되는, 누구보다도 계절에 민감한 사람 중의 하나인 그가 과연 어떻게 이 겨울을 분석하고 묘사해 내는지, 그래서 다시 어떻게 봄을 맞이하는지 지켜보는 것도 이 추운 겨울을 넘기는 재미있는 방법이 될 것 같다. 5

글/김일중·방송구성작가

사진/고도영

「서울전망대」- ‘중계차 현장’ 삶의 현장 찾아 달리는 라디오 기동대

지하철 5호선 공사가 한창인 마포 공덕동 로터리는 예년보다 일찌감치 찾아온 동장군 탓인지 발걸음을 재촉하는 현장 사람들로 가득했다. 지난 11월 24일, SBS 라디오 프로그램 「서울 전망대」의 ‘중계차 현장’ 코너는 바로 이곳을 찾아 갔다.

아침 7시가 좀 안되어 출동한 중계차는 뜻밖에 마포대교에서 차가 밀리는 바람에 그리 넉넉지만은 않은 시간에 현장에 도착했다. 현장의 한 관계자가 남산 타워가 보이는 장소로 친절하게 중계차를 안내해준다. 라디오 방송은 남산이 보이는 곳에 자리잡아야만 순조롭게 전파를 내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탓에 그동안 수도권 근처를 맴돌 수밖에 없었다며 기술국 관계자는 아쉬워한다.

이렇게 부지런히 서둘러 방송 준비를 마친 뒤 주조정실에서 쿨를 받으면 그날의 ‘중계차 현장’은 막을 열게 된다. 이날은 겨울철을 맞아 지하철 공사에 따르는 안전 점검 등에 대해 지하철 건설본부 측의 얘기를 들어보았다.

올 봄부터 ‘중계차 현장’에서 뛰기 시작한 김박, 김영성 아나운서는 소재를 찾는 일에서부터 섭외, 취재까지 도맡아 하고 있다. 두사람은 각각 일주일에 세 번꼴로 번갈아가며 이 코너를 꾸려가고 있는데 지난해 가을에 입사한 신출내기 아나운서 들인데도 이들은 남다른 열성과 애정을 갖고 ‘중계차 현장’을 진행해오고 있다. “기분이 상쾌합니다. 아침 공기를



마시며 방송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지만 텔레비전과 달리 라디오 인터뷰엔 사람들이 잘 응해주지 않아 애를 많이 먹곤 합니다.”

김박 아나운서는 섭외하는 데 특히 어려움이 많다고 털어놓는다.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할 뿐더러 그나마 잘해야 본전 정도밖에 안된다는 생각이 인터뷰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까닭인 것 같다고 나름대로 추론해낸다. 더욱이 공직에 있는 이들과 만날 때는 심중팔구 이런 문제에 부딪히기 십상이다. 끈질기게 설득해야 겨우 허락을 받아낸다고 하니 그 고충을 짐작할 만하다.

하지만 보람도 고충에 못지않게 크다고 그는 강조한다. 지난 어버이날 방문했던 양로원에서 노인들과 함께 올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탓에서다. 또한 고입 검정고시에 수석 합격하고 부모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애쓰던 이종수 군을 '중계차 현장'에서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뒤의 소식을 다시 한번 방송했으면 하는 게 그의 바람이다. 부모는 찾았는지, 대입 검정고시에선 좋은 성적을 거두었는지 등.

'중계차 현장'은 그때그때 시사적인 소재를 주로 다루고 있는데 그밖에도 훈훈한 인정을 느낄 만한 얘기, 시민들에게 쓸모있는 정보 등도 챙기고 있다. 요즘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 재활용 운동은 몇 차례에 걸쳐 다루고 있는 소재이다. 여덟달 가까이 '중계차 현장'을 진행해온 터라 새로운 소재를 찾는 일이 가장 힘든 숙제라

고 김영성 아나운서는 얘기한다.

'중계차 현장'에서는 문제점을 들춰내고 비판하기보다는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이를테면 록카페가 범람하는 신촌의 대학가에서도 건강한 대학 문화를 되찾으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소식을 알려주는 식으로 말이죠.”

매주 토요일은 연극 공연장이나 각종 문화 행사가 벌어지는 현장을 찾아 나서는데, 공연이 주로 저녁에 시작하는 탓에 관객들과 하나가 된 현장의 소리를 전할 수 없는 게 그에게는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번 겨울은 유난히 춥고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화재나 눈사태도 잦을 듯하다. 지난 여름 홍수에 대비해 수해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두 주일 동안 다뤘은 것처럼 '중계차 현장'은 처음 맞는 올 겨울도 기동력을 발휘해 무사히 보낼 수 있도록 준비중이다.

매일 아침 8시 30분이면 중계차는 현장에서 싱싱한 목소리를 들려준다. 왁자지껄 삶의 향기가 배어있는 우리의 얘기를, 저기 남산이 보이는 어딘가에 오늘도 중계차는 곳곳에서 있을 것이다. **S**

글/박경희·자유기고가

사진/정분경



신참 아나운서 콤피인 김박, 김영성 아나운서가 '중계차 현장'을 지키는 기동대장들이다. 소재선택에서 섭외와 취재까지 도맡느라 정신이 없을 지경이지만 여러가지 다른 영역의 일을 한꺼번에 배우게 되니 아나운서로서 이런 행운이 또 있겠느냐는 것이 그들의 힘찬 외침이다.

아전안수적인 한국인의 동료의식

서울에 거주하는 일본특파원들 사이에서
는 “한국언론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전
하지 않는다”는 말이 회자되곤 한다. 이는 사
실 보도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언론
의 주장이 정확한 사실을 오히려 왜곡해 버리
는 경향이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지난달 노태우 대통령의 일본 교토
방문에 대해 한국의 언론(특히 신문)들은 ‘한국
의 북방외교가 실효를 거두어 일본을 제치고 엘
친 러시아 대통령이 한국을 먼저 방문하게 되었
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일본의 질투심이 고조되
었고 이러한 일본의 질투심을 달래기 위해 노태
우 대통령이 급거 방일을 결정했다’고들 썼다.

그러나 이를 보는 일본 언론인들의 시각은 다
르다. 일본은 한국의 북방외교를 높이 평가는
하고 있으나 질투 따위의 감정은 전혀 없다. 그
리고 일본에선 노대통령의 방일에 대해 최근 일
본 국내에 일고있는 혐한(嫌韓) 감정을 완화시
키기 위해 이례적인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사실 왜곡의 또다른 예를 들자면, ‘일본은 한
반도의 남북통일을 바라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일본인들의 생각과는 크게 다른
것이다. 일본의 일반시민은 물론 한반도 문제의
전문가에게 물어도 남북 통일이 일본에게 위협
이 된다든가, 강력한 경쟁자가 탄생한다고 걱정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오히려 “한반도의 안정
은 팬잡을까? 사회적 경제적 혼란은 일어나지
않을까?” 등의 걱정이 더 많은 듯하다.

우리 일본 특파원의 눈에는 아무래도 ‘이래야
된다’라든지 ‘이렇게 되었으면 ...’ 하는 희망
사항이 마치 객관적 사실인 것처럼 보도되는 경
향이 있어 보인다. 남북 통일 문제의 경우도 ‘남
북 통일이 되면 반드시 강대한 국가가 될 것이
다. 그러면 당연히 일본의 국력을 위협하는 대
국이 탄생하니까 일본은 위협감을 느껴야만 한

곤도 히로유키·일본 NTV 서울지국장



곤도 히로유키·1945년에 낚고
와세다대학에서 공부했다. 68
년에 NTV에 기자로 입사해 정
치 경제 외신 등 각 분야에서 일
해 오다 1989년 서울지국장으로
부임했다. 부인과 네 자녀를
모두 서울로 데려와 한국의 여
러가지를 직접 보고 느껴도록
하고 있다.

다'라는 일방적 결정에서 생겨난 논조가 아닌가 싶다.

내친 김에 대일관련 보도 중 또하나를 지적한다면 너무나도 반일 기사, 반일 논평이 많다는 사실이다. 일본은 UN의 PKO활동의 일환으로 캄보디아에 자위대를 파견하였는데, 그때 한국 언론은 '일본, 또다시 아시아에 출병'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등의 논조로 일관했다. 물론 이러한 의견은 야당이나 언론계의 일부에서 제시되었을 뿐 국론이 그렇게 하나로 모아졌던 것은 아니었지만 이 PKO참가는 미국이나 유럽 등의 국제 압력에 못이겨 한, 군이 말하자면 억지로 결정된 파견이었다. 그 증거로 구미 각국에선 이 파견을 환영하였고, 중국 등 아시아 각국도 묵인하는 자세가 눈에 띄었다.

필자의 친구 중에는 유럽에서 온 기자도 있는데 그 역시 일본의 PKO파견에 대해 "오히려 늦었다. 일본은 자국의 평화주의에만 눈이 멀어 세계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이제껏 몰랐다."라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동시에 한국의 보도에 대해서 "세계의 움직임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지?"하고 의문시하였다.

뉴스와는 약간 빗나가지만 서울에 사는 외국인의 눈에는 한국사람들의 행동이 이상하게 비칠 때가 있다. 구미의 예만 들어 미안하지만 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한국인의 특성은 "우리"와 "괜찮아요"라고 한다.

즉 '동료라면 다소 제멋대로 행동해도 괜찮다'라는 발상이다. 예를 들면 많은 사람이 하나의 냄비를 둘러싸고 한꺼번에 음식을 먹는 식생활, 초대받은 집의 냉장고 문을 마음대로 열고 음식을 꺼내먹는 행동, 자동차 운전이나 주차시의 매너 등 동양인의 입장에선 때로 미덕으로 여겨지는 한국인의 특성이 구미의 기준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모양이다.

이 '동료의식'에서 근거한 행동이나 발상이



정재석 그림

아무래도 뉴스의 세계에도 남아있는 것 같다. 이는 사실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우리 외국인의 눈에는 한국 언론이 한국 사람만을 상대로 보도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즉 '어차피 한국내에 알리는 것이니가 조금 사실과 다르더라도 상관없고, 독자가 좋아한다면 빗나간 비평을 해도 상관없다'라는 의식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제 한국은 동북아시아의 한국만은 아니다.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으로 국제 사회에서 발언권이 점차 강해지고 있는 주목받는 나라인 것이다. 한국발(發) 뉴스는 금세 전세계로 전해진다. 한국인의 발언이나 행동은 항상 세계로부터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하지 않을까. 한국식 발상의 시비는 별개로 하더라도 앞으로 한국 언론은 '한국인의 눈으로 한국을 보는' 자세가 아닌 '세계의 눈으로 한국을 보는' 국제적 시야와 감각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5

(번역/ 조유경 기획실 기획부)

천안문의 모택동과 야시장의 여성동무

흔 날리는 눈발타일가 오후 4시의 베이징
(北京)은 벌써 어두워지고 있다. 위예
탄옌(月譚淵) 공원 외곽을 둘러싼 해자 너머
초라한 마을도 어둠에 잠긴다. 눈내리는 마을
골목길을 막 돌아나오는 두부장수의 딸랑대는
종소리가 정적을 깬다. 공원을 가로질러 퇴근
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점차 바빠진다. 함께
놀러나온 할아버지와 손자도 서둘러 집으로 향
한다. 중국에서 손자 돌보기는 할아버지의 몫
이기가 쉽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인의 자전거 뒤에
매달린 작은 수레 위에는 나무로 만든 아기집
이 있다. 유리창으로 들여다 보이는 아기집에
는 젓먹이가 새록새록 잠자고 있다. 직장내 탁
아소에서 아기를 찾아 퇴근하는 주부노동자들
의 행렬이 이어진다. 살얼음 낀 호수가 벤치에
는 젊은 연인 한 쌍이 서로를 꼭 껴안고 있다.
달리 데이트 할 만한 공간이 없는 중국의 연



인들에게 공원은 고마운 존재이다.

눈발은 더욱 굵어지기 시작한다. 공원의 후문쪽 입구에는 간이 의자를 놓고 머리를 깎아주는 이발사들이 아직 자리를 뜨지 않고 있다. 50대쯤 되어보이는 한 사람이 눈을 맞으며 머리를 깎고 있다. 이발사나 손님이나 서로 말이 없다.

달력을 파는 노점들이 줄지어있는 패력포(掛曆舖) 거리에 이르자 비로소 왁자지껄 소란하다. 이맘때면 한국에서 연하장을 준비하듯이 이곳 사람들은 달력을 산다. 중국인들에게 달력은 훌륭한 장식물이어서 선물로 주고 받기도 한다. 가장 인기가 있는 달력은 역시 연안시절부터 문화혁명까지의 모택동(毛澤東) 사진이 담긴 것이다.

개혁과 개방의 분위기가 한참 무르익은 요즘도 모택동은 여전히 중국인들의 우상이다. 택시운전사도 거의 예외없이 모택동이나 주은래(周恩來)의 사진을 마스크트로 걸고 다닌다. 이들 문화혁명 1세대들이 중국인들의 노력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중국은 여전히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할 것이다.

달력판매대 앞에서 두 소녀가 은밀히 얘기를 나누고 있다.

“모택동 주석하고 주은래 총리 가운데서 누가 더 잘생겼나?”

“그야 주 총리지.”

“아냐, 모 주석의 인물이 훨씬 나아. 그는 1인자의 상이고, 주 총리는 2인자의 상이야.”

천안문(天安門) 광장의 초상화가 훼손되거나 더러워지면 즉시 교체하기 때문일 게다.

“현재 중국의 최고 실권자는 등소평(鄧小平)이 아닌가? 그렇다면...”

많은 이방인들이 이런 의문을 품는다. 그러나 피많은 등소평은 결코 모택동 주석의 자리를 넘보지 않는다. 감히 그 자리를 넘보다가



죽의 장막에 걸린 빛장을 뚫고 세계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중국은 지금 여러가지 얼굴을 드러내고 있는데 북경에서 만나는 어느 것도 아직은 중국의 제 얼굴은 아닌 것 같다. 변모하는 중국을 꼼꼼히 기록하고 있는 안상훈 특파원의 모습이다.

화를 당한 유소기(劉小奇), 임표(林彪)의 경우를 그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모택동이 죽고 없는 지금도 등소평은 결코 모택동 주석의 사진을 내리지 않는다. 비록 모택동 주석의 사진 뒤에 숨어 있어도 중국 천하를 호령할 수 있으면 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된다”는 실용주의 철학을 갖고 있는 그가 아니던가!

광장 한복판에 자리잡은 모택동 주석 기념관에는 일세의 영웅이 생전 모습 그대로 유리관 안에 누워있다. 그리고 하루에도 수천명의 중국인들이 찾아와 줄을 서서 그를 경배한다. 중국의 고위층이 모여사는 중남해(中南海) 입구에 그가 직접 써서 걸어놓은 휘호, ‘위인민복무’(爲人民服務)처럼 그는 죽어서도 인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개혁과 개방 바람으로 체제에 금이 가고 있음을 눈치챘음인가? 중국의 TV는 지금 앓다 투어 모택동과 주은래의 일대기를 드라마로 방송하고 있다. 중국 사회주의 건설의 두 영웅을 앞세워 체제를 계속 유지하려는 중국정권의 속셈이 작용한 듯하다.

날은 완전히 어두워졌다. 북경호텔을 왼쪽



중국인들은 지금 위아래 할 것없이 배급주의에 젖어있다. 그것을 진취적 기상으로 받들기까지 한다. 모택동이 살아있었다면 어림도 없을 풍조가 거대한 대륙을 휩쓸고 있는 것이다. 빈부의 차이가 생기고 자유로운 생활방식이 퍼져나가는 등 개방의 언저리에 서있는 중국인들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으로 끼고 돌아 왕푸징(王府井) 거리로 들어 서자마자 사람의 물결에 휩싸인다. 우리나라의 명동에 해당되는 이 거리는 늘 사람들로 붐비며 북경의 패션 변화를 잘 파악할 수 있는 곳이다.

군복 모양의 국방색 코트 일색이던 지난해 겨울에 비해 가죽코트와 바바리를 입은 사람들이 많이 눈에 띈다. 좀 어설피해보이긴 해도 모양을 낸 옷차림이 많아졌다. 부츠를 신은 여인이 다른 여인들의 부러운 시선을 받고 있다. 그 여인은 그런 시선을 마음껏 즐기는 듯한 표정이다. 확실히 살기가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보니 한달 월급에 해당하는 액수(3만원 가량)의 외식을 하는 중국인들이 많아졌다. 그들은 서울사람보다 더 잘 산다는 '꺼티후'(个体户)라 불리는 자영상인들이 틀림없다.

1950년대에 우리가 그러했듯이, 개방 언저리에 있는 오늘의 중국인들도 하루가 다르게 나아지는 생활을 하고 있다. 여행가이드, 택시 운전사, 자영상인, 가라오케 업주들의 수입은 기타의 중국인들의 벌이와 큰 차이를 보인다. 서울과 맞먹는 술값을 받는 가라오케 업주의 월수입은 우리 돈으로 천만원을 넘고 있어 월 2~3만원을 버는 게 고작인 노동자들의 수입과는 하늘과 땅 만큼의 간격을 보인다.

이 소득격차가 야기할지도 모를 사회적 불만을 중국은 어떻게 해소해나갈 것인가? 중국 사회과학연구원의 한 경제학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우선은 개방의 분위기를 깨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어느 시기가 되면 세금정책으로 부의 재분배를 이루면 될 것이다"라고 낙관적 견해를 피력했다. 그의 견해는

중국의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해 계속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중국이 계속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한다는 조건 아래 가능하다는 것이다. 만약 동소평이라는 강력한 카리스마가 사라지고 난 뒤에도 광둥(廣東), 쓰촨(四川), 푸젠(福建), 산둥(山東) 같이 돈 잘버는 지방정부가 계속 중앙정부의 말을 들을지는 미지수다. 중국인들은 전통적으로 국가보다는 자기 속한 지방의 이해에 더 집착하는 경향을 보여오지 않았던가.

저녁 7시, 눈발은 멈추었으나 바람은 여전히 매섭다. 동성구(東城區) 야시장 거리는 내 외국인인 함께 뒤섞여 혼잡스럽다. 북경인들이 우리의 신선로처럼 생긴 '화궈' (火鍋)라는 탕을 안주 삼아 독주를 마시고 있다. 야채를 삶은 탕에 얇게 썬 양고기 조각을 데쳐먹는다. 북풍한설 몰아치는 엄동설한에 화궈를 둘러싸고 앉아 독주를 마시며 밤이 이슬하도록 정담을 나누는 것이 북경 주사(酒士)들의 겨울 풍류다.

무얼 먹을까 기웃거리다가 우리 돈으로 100원 정도 하는 사천국수 한 그릇을 사먹었다. 또 순대국 한 그릇을 먹고 있는데 맞은편 '여성동무'의 야릇한 눈길에 느껴졌다. 이것저것 몇마디 물어보던 그녀가 짐작했던대로 본색을 드러냈고 나는 갑자기 호기심이 발동해 취재를 시



작했다. 나이는 스물한살, 고향은 허베이성(河北省)의 궁촌(窮村), 가난이 싫어 무작정 상경, 식당에서 일하다..., 어디서 많이 들던 스토리다. 여자는 자신이 가난하다는 사실을 여러번 강조하며 공안(公安, 중국경찰)의 단속이 심해 벌이가 시원찮다고 말한다. 자기와 같은 여자가 북경에만 500여 명이 있다는 사실도 짚어주며,



“위험하지 않느냐?”

“같이 가보면 안전하다는 걸 알 것이다.”

“어디서?”

“친구 아파트인데 멀지 않다.”

“얼마?”

잠시 망설이던 그녀가 결심한 듯 말한다.

“200달러.”

“...”(아니 애가...)

중국인들은 지금 위아래 할 것없이 배급주의 풍토에 젖어있다. 앞을 보고 걷자는 뜻을 ‘시양치옌칸’(向錢看)으로 부르면서,

호방한 북경의 사나이들이 독주를 들어 다시 건배하고 있다. 가난하지만 정겨운 이 북경의 겨울 풍경은 어쩌면 생각보다 빨리 사라져 버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S

글/안상훈 · 홍콩 특파원

사진/변영우 · 보도국 영상취재부



SBS 광장



「'92 한국수퍼모델 선발대회」

국제화 시대 미인의 새로운 산실



세계적인 패션모델을 꿈꾸는 미녀들이 아름다운 남국의 섬 사이판에서 합숙을 하며 우정을 다지고 있다. 우리 패션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서 마련한 '92수퍼모델 선발대회'는 기존의 미인대회와는 개념부터 다른 행사인 만큼 보는 이들은 새로운 미인상을 만나는 즐거움을 누렸다.

BS가 창사 2주년을 기념하며 나드리 코티화장품과 공동으로 마련한 「'92 한국수퍼모델선발대회」에서 현역모델로 활동중인 이소라(22살)가 한국 최고의 수퍼모델로 탄생하였다.

지난 11월 26일 저녁 7시 힐튼호텔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수퍼모델 2위는 오미란(21살)이, 3위는 민경원이 각각 차지했다. 이들에게는 상금과 함께 해외 패션계 시찰의 기회가 주어지며 가장 매력적인 모델로 선발된 이소라는 내년 미국에서 열릴 '93 세계수퍼모델선발대회'에 한국모델로서는 처음으로 출전하게 된다.



패션계와의 접목을 시도한 이 행사에서는 국내 정상급 디자이너 열네명이 직접 마흔 두 명 후보자들의 의상을 마련해 주어 눈길을 끌



이번 행사는 그 취지에 걸맞게 국내 정상급 디자이너들이 직접 후보들의 옷을 만들어주어 눈길을 끌었다. 이번엔 탄생한 모델들이 국제적으로 역량을 인정받는 톱모델로 성장해 우리 상표로 된 패션상품을 입고 세계무대에 서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있는데 이들 디자이너의 옷을 차려입은 후보자들의 퍼레이드로 「'92 한국수퍼모델선발대회」는 화려하게 시작되었다. 이어서 수영복 심사 가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한 사이판 현지 촬영 모습과 함께 진행되었고 끝이어 2부에서는 페리 엘리스의 패션쇼, 드레스 심사, 스틸사진 촬영모습 등이 펼쳐졌다.

이게진 아나운서와 함께 국내 톱모델인 장진경과 92년 미스코리아 미 이승연이 공동 진행을 맡아 신선함을 더해준 이날 대회는 11월 28일 오후 5시에 SBS-TV를 통해 녹화방송되었다.

40여일간의 위킹, 포즈, 발레 등의 교육과정을 거친 마흔 두명의 후보자들은 세련된 포즈와 매너를 보여주어 약 1500석의 좌석을 가득 메운 관중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고 심신, 이덕진, 유열 등 인기가수들의 축하무대로 분위기는 한껏 고조되었다.





나오미 캠벨, 브룩 린즈, 샤론 스톤 등 세계적인 스타를 발굴한 포드모델사가 주최하는 세계수퍼모델 선발대회의 한국대표 선발전을 겸했던 이번 대회는 국제수준의 유능한 모델을 발굴하여 우리 패션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 세계시장으로 진출하는 좋은 기회로 삼을과 동

시에 요즘 침체되어 있는 국내 섬유산업계는 물론 패션, 광고업계에 신선한 자극제가 되고자 마련되었다.

한편 특별상인 베스트 메이크업상(수퍼모델 나드리코티 화장품)은 김유정(19살), 베스트 포즈상(수퍼모델 페리엘리스)은 최미영(16살), 베스트 스마일상(수퍼모델 현대백화점)은 이성아(22살), 베스트 매너상(수퍼모델 아시아나항공)은 이종민(18살)이 각각 차지했고 후보자 전원이 참가하여 직접 뽑은 우정상은 정남희(21살)에게 돌아갔다. 5

글/신선화

사진/서형식

인터뷰

'92 한국수퍼모델 이소라 “우리것의 세계화에 다리가 되겠습니다”



“자신을 무대 위에서 최대한으로 표현해야 하는 알인만큼 몸매관리, 포즈 연습 등 끊임 없는 노력과

자기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퍼모델 이소라가 모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두가지 점은 이런 것들이다.

상명여대 체육학과 시절에 이미 패션모델로 데뷔하여 지난 3년여 동안 현역모델로 활동해온 그녀는 자신의 매력중 제일은 ‘건강미’로 꼽는다. 헬스와 수영으로 다져진 신체적인 건강미도 물론 중요하지만 화려한 생활 속에서도 겸손을 잃지 않고 자신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정신적인 건강 역시 그에겐 중요한 부분이다.

1미터 78센티미터의 큰 키를 가진 그녀는 딸만 넷인 딸 부자집의 둘째딸로 시간이 날 때면 혼자서 영화를 보거나 하루종일 피아노를 치곤 한다. 하지만 이젠 혼자있는 시간을 가지기엔 너무 바빠졌다.

“처음으로 열린 이 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여 무척 기쁘지만 책임감을 느낍니다. 수퍼모델 선발대회가 계속 발전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담하게 수상소감을 밝힌 그녀는 내년엔 열린 '93 세계수퍼모델 선발대회에 한국대표로는 처음으로 참가하게 된다. 그의 목표대로 세계적인 수퍼모델로 성장하여 한국의 미를 자랑하고, 우리 패션계의 세계무대 진출에 커다란 역할을 해주길 기대해 본다.

백조로 변신한 미운 오리새끼

김세웅 · 편성국 영화부장



김세웅 · 1949년 서울 생으로 고려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했다. 73년 TBC에 입사해 79년부터 영화전문 프로듀서로 일했다. KBS를 거쳐 91년 SBS편으로 옷을 바꿔입기까지 중간에 2년이 코마디 프로그램 「최한한 세상」을 연출한 것 외에는 출판 외화를 담당해온 TV 영화통이다.

“최첨단 테크놀로지가 이룩한 본격 SF 영화의 결정판! SBS가 자존심을 걸고 선사하는 '91 영화특급 제1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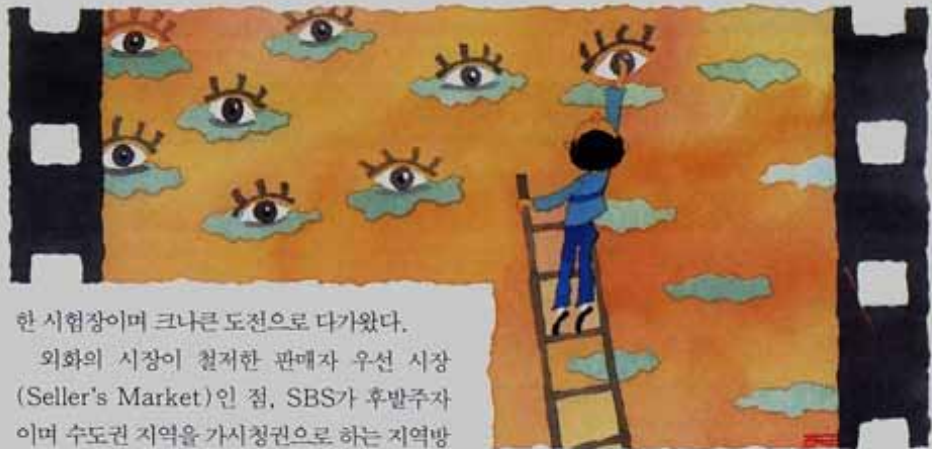
SBS-TV를 라디오로 청취할 수 있는 FM 87.75메가헤르츠에서 「에일리언 I」의 예고가 힘차게 흘러나오고 있다. 바로 이 「에일리언 I」으로 「SBS 영화특급」 첫회의 포문을 연 것이 91년 12월 14일이니 벌써 1년이란 세월이 흘러갔다.

신생 방송사에 바라는 성우와 번역자들의 차별적 요구, 불과 개국 3주 전에 이루어진 PD 스카우트, 「다이하드」의 심의부결, 「늑대미녀」의 선정성 시비… 지나간 1년을 돌이켜보니 마치 거대한 우주선 노스트로노모 호에서 에일리언과 사투를 벌이는 여성전사 시고니 위버가 느꼈을 악몽이 느껴지는 듯하다.

창업이라는 중대한 대사(大事) 앞에 문제점이 없는 부서가 어디 있었겠으며 창업 멤버치고 어느 누구 역경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겠는가. 그러나 15퍼센트라는 엄청난 편성시간을 감당하기는 일곱명 소수정예인 영화부로서는 벅찬 일이었다.

기존 방송사에서든 외화가 기본 편성의 상당부분(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회사 수익 중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누구나 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분야로는 좀처럼 인정해주지 않을 뿐 아니라 평크난 프로그램을 뺄질하는 시간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는 외화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사례비 책정에서도 적지 않은 불이익을 주었으며 심지어 담당 프로듀서까지 자기 확신을 갖지 못하고 좌절하는 경우도 있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신명나게 일할 터전을 마련하고 TV 외화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아 위상을 높이려는 꿈을 가진 영화전문 프로듀서들에게는 SBS가 중요



정재석 그림

한 시험장이며 크나큰 도전으로 다가왔다.

외화의 시장이 철저한 판매자 우선 시장 (Seller's Market)인 점, SBS가 후발주자이며 수도권 지역을 가시청권으로 하는 지역방송이란 약점을 안고서도 우리는 부지런히 외국 배급사 공략에 나섰다. 시청률을 보장해주는 미국 메이저영화사와 수익성에 절대적 기여를 하는 마이너영화사의 차별화, 각종 TV 건본 시장 참가, 그리고 외국 배급사로부터 입수한 3,000개에 달하는 건본 테이프를 시사하면서 프로그램 수집에 총력을 기울였다.

프로그램 선정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전문적인 더빙 프로듀서의 확보였다. 아무리 좋은 영화일지라도 우리 것으로 옮겨놓는 과정에서 사람에 따라 실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방송사의 외화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외화를 천직으로 삼고 전력투구할 전문 PD들이 얼마 되지 않아 유능한 인재 스카우트에 여간 애를 먹지 않았다. 때문에 소수의 방송 더빙 경력자, 외화와 관련한 업무 경험자를 선발하여 전문 더빙 프로듀서로 양성하는 길밖에 없음을 느끼고 스카우트에 힘썼다. 나는 확신한다. 현재 SBS 영화부를 이끌어가는 프로듀서들 모두가 바로 우리나라 텔레비전 외화에 있어 미래의 주인공이며 앞으로 다칠 뉴미디어 시대의 최첨병이 될 것임을.

영화부의 잠재력과 가능성은 공전의 시청점유율(77퍼센트)을 기록한 「에일리언 II」, 추

석특집 주간에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한 「프레테터」 등으로 입증되었고 이들 외화 프로그램이 SBS 시청률 제고에 건인차 역할을 한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특히 창사특집으로 「탱고와 캐쉬」, 「미처리」가 방송된 이들(11월 13, 14일) 동안의 시청 점유율 순위 10위안에 영화 프로그램이 많이 포함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에 만족하고 선불리 삼패인을 터뜨리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되겠다. 이제는 추적을 당하는 입장이므로 자만을 하거나 한눈을 팔아서는 절대로 안될 것이다. 개국때의 그 열의가 혹시 식지는 않았는가, 시청률에 집착한 나머지 폭력 외설영화의 자체심의를 소홀히 한 점은 없는가, 미국영화에 너무 의존하여 제3세계나 유럽영화의 소개에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가, 너무 오락 프로그램에 치중하여 유익한 다큐멘터리의 개발을 외면하지 않았는가, 시청자 단체 등과 상호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데 주저하지는 않았는가. 우리 영화부 식구들은 이런 것들을 늘 잊지 않을 것이며 겸허한 자세로 TV 외화의 수준을 한단계 높이는 데 힘을 모을 것이다. 5

「제3극장」

뒤틀린 세상 파헤치는 미녀탐정

- 제작/후리기획
- 방송/12월 5일부터 매주토요일
밤 10시 55분~11시 55분



법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 딱히 꼬집어 죄인이라고 몰아세울 수는 없어도 결코 용서할 수도 없는 인간 군상들. 착한 일을 하면 복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고 귀가 따갑게 들어왔건만 세상사는 이치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다.

국내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1인 시추에이션 드라마 「제3극장」은 바로 우리가 외면하고픈 사회의 부조리한 현상을 직접 대면할 수밖에 없게 한다. 르포라이터인 정지원(김미정 분), 그의 애인인 강형준(김새준 분), 잡지사 신지평의 편집장인 김부장(장광 분), 퇴역형사로 지원의 취재를 다각도에서 도와주는 최명후(김성원 분), 이 네명의 고정배역 외에 각 회별로 다른 연기자들이 출연, 매 회 다른 분위기를 연출한다.

독립 프로덕션인 후리기획에 의해 사전제작된 이 드라마는 매 회 다른 연출자와 작가가 참가한 것이 특징이다. 영화 「모래성」, 「MBC 베스트셀러극장」, 「KBS 미니시리즈 남편의 여자」 등을 연출했던 선우완 감독 외에 황덕규, 임종재, 송경식 등 신예감독들이 연출을 맡고, 「수사반장」, 「한지붕 새가족」 등으로 유명한 윤대성을 비롯한 최지수, 강현, 권해수 등 이즘 한창 인기를 얻고 있는 방송작가들이 극본을 썼다.

제1화/밀회의 끝

「제3극장」 제1화는 윤대성 극본, 선우완 연출의 「밀회의 끝」. 암흑가 보스와 여배우와의 관계, 또 범죄조직

과 공권력의 유착관계를 파헤친다.

호텔 로비에서 해외입양아 문제를 취재 중이던 지원은 정체불명의 사내들에게 필름을 빼앗긴다. 황당해 있는 그녀 앞에서 유해나(전세영 분)가 대기중이던 대형 승용차를 타고 나간다. 이 이야기를 들은 데스크는 지원에게 연애 가십 기사 작성을 종용한다. 며칠 후 지원은 편집부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살펴보다 판사와 변호사가 차례로 찍혀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의아해 한다.

결국 그들이 암흑가의 보스인 장태식(노영국 분)과 관계가 있음을 알아내고, 또 유해나와도 관계가 있음을 추론하게 된다. 그들의 연관으로 보아 모종의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판단한 지원은 환영 중 필름을 빼앗긴 데 대한 오기까지 발동하여 이 사건을 파헤치기로 마음먹는다. 퇴역형사인 최명후로부터 범죄 조직의 생리에 관한 자문까지 받아가며 지원은 합법을 가장한 범죄를 일삼는 장태식의 비리에 정면 도전한다.

연에게나 공권력의 범죄조직과의 유착관계를 특유의 용기와 기치로 취재하는 르포라이터의 활약이 심각한 현대인들에게 또 다른 용기를 심어줄 것 같다. 오랜만에 TV 브라운관을 통해 보는 전세영의 성숙한 연기가 돋보인다.

제2화/유혹의 강

법에서조차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인권 실태를 꼬집은 「유혹의 강」은 윤대성 극본, 선우완 연출로 만들



어졌다.

강변유원지로 취재를 나간 지원은 데이트 중인 영준(임민규 분)과 미자(윤지혜 분)를 만나는데 장난꾸러기 같은 외모의 영준으로부터 편지 심부름을 부탁받는다. 취재를 마치고 돌아온 지원은 신문에서 강변유원지 살인사건을 접하게 되는데, 그 사건에 영준과 미자가 관련되어 있음에 놀란다.

최명후의 도움으로 경찰의 조사결과를 살펴본 지원은 영준이 무죄라는 심증을 굳히고 국선변호사(전부송 분)를 찾아간다. 영준의 전과 경력과 충실하지 못한 생활 태도 때문에 사

조신하고 지적인 역을 주로 맡아온 김미정이 이번엔 모험을 좋아하는 거침없는 성격의 르포라이터 역을 맡아 감춰놓은 또다른 모습을 마음껏 보여준다. 시청자들은 그가 이끄는대로 「제3극장」을 탐험하며 어두운 세상의 곳곳을 보게 될 것이다.



실상 변화를 포기하고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는 국선변호사에게 실망하고 스스로 조사를 계속하던 지원은 드디어 무죄의 증거를 손에 넣는데….

제3화/무용수의 방

스포츠라이트가 가득한 무대 위에서 인간의 회노애락을 몸으로 표현하는 무용수. 언젠가부터 재능만으로는

명예를 얻을 수 없다는 복계가 사회에 마련되어 있는 이즘, 무용계의 문제점을 드라마화했다. 최지수 극본, 황규덕 연출의 「무용수의 방」이 바로 그것이다.

늦잠을 자던 지원은 소꿉친구인 미숙(김혜란 분)이 자살했다는 전화에 잠을 깬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도 굳굳하게 무용가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던 그녀의 자살을 납득할 수 없었던 지원은 그동안의 미숙의 생활을 추적한다.

미숙의 유품을 살피던 중 책마다 비밀스러운 이니셜을 발견하고는 성형외과 의사인 주호를 의심한다. 미숙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원인을 캐기 위해 무용계의 가려진 면을 파고들자 윤미령 교수(정재순 분)를 둘러싼 추악한 먹이사슬이 하나씩 드러나고….

제4화/질주하는 슬픔

「제3극장」의 네번째 이야기로 강현이 극본을 쓰고 임종재가 연출했다. 이 드라마는 여의도 광장을 자동차로 질주해 무고한 생명을 다치게 했던 실재사건을 소재로 하여 죄는 미워해도 죄인은 미워할 수 없음을 재확인하게 해준다.

여의도 광장을 자동차로 질주해 무고한 생명을 해친 김병수(기주봉 분)에게 사형이 선고된다. 현장 검증의 화면자료를 보면서 사건의 이면에 더 흥미를 느낀 지원은 김병수를 만나기 위해 교도소에 면회를 가지만 거부당한다. 거듭되는 면회 거부에도 포기하지 않고 병수의 과거를 추적하던 지원은 사회에서 소외된 채 살아온 그의 삶의 궤적에 안타까움을 느끼게 된다. 병수에게는 예정된 죽음이 찾아오고, 그의 못다한 이야기는 지원에 의해 쓰여져 세상에 알려진다.

기주봉, 주호성 등 유명 연극배우들이 대거 출연, 새로운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독립프로덕션에 의해
전량 사전제작된
「제3극장」은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1인
시추에이션
드라마라는 점에서
여러가지로 화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첫시도인지라 낯설게
보이는 면도 있을
것이나 우리라고
‘소머즈’나 ‘제시카
여사’를 탄생시키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은가.



제5화/특종 뒤의 특종

특종을 위해 덤없이 뛰는 기자들, 소가 뒷걸음치다 쥐 잡았다는 식의 특종담을 이야기하곤 하지만 그 이면에 숨은 고뇌는 표현키 어려울 것이다. 기자들의 과열된 특종경쟁에서 나타난 문제를 다룬 것이 권혜수 극본, 송경식 연출의 「특종 뒤의 특종」이다.

몇년간 무능한 기자로 잡지사를 옮겨다니던 서기자(김승환 분)는 잡지 「오늘의 여성」에서 마약 관련 기사로 특종을 하게 된다. ‘거리의 사 람들’이란 아이템으로 취재 중이던 지원은 기사 마무리를 위해 사진을 살펴보다 서기자의 기사에 실린 아이의 얼굴과 자기 사진 속의 한 아이가 같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호기심이 발동해 서기자와 만나려 하지만 의외로 당황하는 서기자로부터 이상한 느낌을 받는다.

의혹이 생긴 지원은 사진의 아이를 찾아나서고, 앵벌이 배후집단에 게 위협을 당하기도 하지만 결국 그

아이가 가출을 해서 검판으로 치내고 있는 종윤이라는 소년임을 알아낸다. 지원의 끈질긴 추적으로 서기자의 기사가 허위라는 사실이 명백해지고 이 사실이 「신지평」에 실려 지원은 특종을 하지만 종윤이 시체로 발견돼 회의에 빠지게 된다.

치열한 특종전쟁이 벌어지는 기자 세계의 일면과 함께 기자로서의 양심과 인간의 감정 사이에 방황하는 모습이 함께 그려진다.

제6화 / 창백한 자화상

병예와 양심이 부합되지 못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된다. 「제3극장」 여섯번째 이야기인 「창백한 자화상」도 그런 범주에 속한다. 이 드라마는 강현 극본, 임종채 연출로 선보인다.

현대미술대전 대상작이 표절시비에 휘말리게 된다. 일이 터지자 대상 수상자인 한경철(김학철 분)은 잠적하고, 그가 속해있는 계보인 홍교수(박용 분) 계와 반대 계보인 서교수(정승현 분) 계간의 표절에 대한 공방이 심화된다.

이 사건에 흥미를 느끼고 있는 지원은 미술평론가인 진기(이호성 분)를 만나보지만 표절 여부는 모호하기만 하다. 결국 지원은 경찰을 만나게 되고, 그로부터 투서자가 그림을 알아내는데...



종횡무진 활약하는 여주인공과 그를 지키는 애인의 사랑이 드라마의 구석구석에서 사건을 푸는 힘으로 작용해 그것을 보는 재미도 만만치 않다. 의혹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나타나는 그들의 실출귀돌함 역시 드라마만이 줄수 있는 재미가 아닐까 싶다.





제 7·8화/아버지와 아들(상·하)

「제3극장」의 마지막 편인 「아버지와 아들」은 한국판 「패밀리 비지니스」라 하겠다. 나름의 인생 철학이 있어 큰 전에는 손을 못대고 사소한 범죄만으로 50여 건의 각종 범죄를 저지른 천과자 부자가 벌이는 마지막 게임이 펼쳐진다.

일명 ‘코털부자’라고 불리우는 도종기(김상국 분)과 도현수(이정구 분)는 천과자 딱지를 달고 이 사회에서 살아가기는 힘들다고 판단, 마치 딱지로 한탕하고 외국으로 도주할 계획을 세운다. 형준과 내기당구를 치고 있던 이들 부자가 위조수표 사건의 용의자를 추적하던 남형사(장항선 분) 일행에 쫓겨 숨어든 곳이 지원의 승용차였다. 그들에게 호기심

이 발동한 지원은 그들과 함께 여행을 하며 그들의 삶을 이해하게 된다.

그들 부자의 사기 대상은 남의 등을 쳐 돈을 모은 사람인데다 결코 피를 보지 않는 자세를 지키는 등 그들 나름의 삶의 방식에 지원은 진한 연민과 애정을 갖게 된다. 목적대로 일이 진행되어 그들 부자는 떠나고 이들을 주인공으로 한 지원의 기사 역시 끝난다. 며칠 후 지원에게 한통의 편지가 날아드는데….

상·하로 나뉘어 방송될 「아버지와 아들」은 강현 극본, 이동희 연출로 제작됐다. 특히 판방미인으로 소문난 가수 김상국의 열연이 극의 흐름을 더욱 원활하게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S**

세상은 너무 복잡하고 어지러워서 어릴적에 들던 옛날이야기처럼 살수만은 없게 되어버렸다.

「제3극장」은 우리가 예새 외면하고 사는 사회의 부조리함을 고개를 들고 독바로 볼수밖에 없도록 한다. ‘죄는 미워하지 말라’는 무언의 가르침과 함께.

「사랑하는 당신」의 탤런트 공형진 굵고 풍성한 질감으로 채워져갈 하안종이

4 B 연필을 처음 잡고 사물을 크로키할 때 선의 강약을 자유자재로 조절하기란 무척 어렵다. 하나의 선이 진해졌다가 흐려지고 또 굵어졌다가는 가늘어지는 정도가 되어야 그림은 입체감과 함께 생명력을 얻는다.

공형진을 마주 대했을 때 그의 이미지가 하얀 백지 위에 과연 어떻게 그려질 수 있을까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어떻게 선을 배

합해야 탤런트로서 공형진의 모습이 아무런 왜곡됨 없이 옮겨질 수 있을까. 공형진의 이미지는 함부로 굵은 선을 그어내릴 수 없게 할 정도로 여리고 섬세한 느낌을 안고 있다. 깡마른 체구에 가름한 얼굴, 맥가이버 머리에 소년 같은 웃음, 그리고 즐겨 쓴다는 '영원 불멸'이라는 상표의 향수 내용. 어떻게 보면 공형진은 요즘 말 많은 오렌지족을 연상하게 한다.



그러나 그는 수려한 외모 하나만 믿고 탤런트의 길로 들어선 것은 아닌 것 같다. 모성애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가냘픈 체구이지만 웬 재주가 그리 많은지, 웃길 때는 개그맨을, 노래할 때는 가수들을 가죽일 정도이다. 그 많은 재주 가운데 가장 자신있는 것이 뭐냐고 묻자, “외국인과 노는 거예요. 영어를 조금 하거든요.” 하며 능청을 떨기도 한다. 정말 못하는 것 없고, 잘 생기고, 게다가 자기가 잘난 것도 적당히 알고 있는 그는 딱 ‘요즘 아이’이다.



중앙대 연극영화과 재학 중에 2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영화 「그래 가끔은 하늘을 보자」에 출연하면서 연예계에 진출한 공형진은 SBS 탤런트 공채 1기로 과감히 사각의 브라운관 속으로 뛰어들었다. 개국 초 어렵던 시절에 「분례기」 「여성극장」 등을 전전하면서 일당 만원에 몸을 팔면서도(?) 배역 욕심만은 대단해 한번 점찍은 역은 담당 프로듀서를 못살게 굴어서라도 따내는 역척을 보여왔다.

그 역척 때문인지, 아니면 그렇게 쌓아온 연기력 덕분인지 공형진은 지금 수목드라마 「사랑하는 당신」에서 비중있는 역을 맡아 일심이다. 이 드라마에서 그가 맡은 역은 김세윤과 서승현의 만아들인 재표라는 영문과 대학생이다. 집안에 웃음을 가져다주며 분위기를 화목하게 이끌어주는 재표는 정에 약하고 연극과 영화를 광적으로 좋아하는 감성적인 인물인데 공형진은 극중 배역이 자신과 똑같다며 은근히 자신있음을 내비친다.

훗날 능력있는 영화기획제작자가 되어있을 거라며 의욕을 보이고 있는 공형진이 그의 바람대로 정말 후회없는 연기자의 삶을 살기를 기대해 본다. **S**

글/김종혁 · TV제작국 제작1부

사진/고도영



나도 SBS맨

「관촌수필」의 아역탤런트 양동근 어른 팬이 더 많은 ‘추억의 명연기’

시 청자들이 아역배우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아이같은’ 천진난만한함일 것이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TV에서 소위 ‘스타급’ 아역배우가 된 어린이들은 한결같이 초롱초롱한 눈빛과 예쁜 얼굴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요즘 들어 사람들로부터 “그 꼬마, 연기 정말 잘하네”라는 칭찬의 말을 소나기 마냥 집중적으로 듣고 있는 양동근을 소개할 때는 조금은 다르게 시작해야 할 듯싶다.

아무리 요리 뜯어보고 조리 살펴봐도 미안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이른 데라고는 손뚝만 큼도 찾아보기 힘들다. 그렇다고 못생긴 것은 절대 아닌데, 뭐랄까 좀 ‘촌스럽게’ 생겼다. 그만큼 동근이는 요즘의 도시 아이치고는 생김새가 퍽퍽하고 결죽한 맛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동근이의 인상을 그렇게 만든 것은 다름아닌 그가 맡는 배역들 때문인 것 같다. 동근이는 현재 SBS 창사특집드라마 「관촌수필」에 민구 역으로 출연중이다. 동근이를 소개하는 사진을 보면, 드라마의 배경이 되는 충청남도 한 작은 마을에서 매뚜기나 잡으러 다니고 구운 개구리 뒷다리를 맛있게 먹어대는 순박한 시골 소년의 모습과 영락없이 닮았다. 거꾸로 이 아이에게 옷을 잘 입히고 머리를 잘 빗겨 세련미를 부여한다면? 그것은 이미 상상도저히 가능한 얘기가 아니다.

KBS-2TV를 통해 방송되고 있는 드라마 「형」에 출연할 때도 그랬다. 주인공 삼남매의 불우했던 어린 시절이 묘사되는 드라마 도입부분에서 동근이는 큰 오빠 역을 맡았었다. 남루한 거지옷, 얼굴에는 온통 검댕이를 묻힌 채 어린 나이지만 동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억척스럽게 일하는 꼬마, 천연덕스런 그의 연기도 연기지만 그 배역은 “양동근이 아니면 못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미지가 딱 들어맞았다.

많은 시청자들은 그가 아직 어린 연기자이고 더더욱 아직 어린이에 불과하지만 그의 연기를 보면 묘하게도 매력과 호감을 느끼게 된다고 말한다. 그 매력의 원천은 무엇일까. 바로 '향수'이다. 말만 들어도 웬지 가슴이 뭉클해지는 이 단어를 이 조그만 아이를 보면서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30대 이상 된 사람치고 어려웠던 시절을 얘기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 시절을 생각한다는 것은 분명 고통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한편으로 아련한 추억도 있는 법이다. 양동근이 말하는 배역은 바로 그 추억을 되새기게 하는 것이고 그만큼 그는 말은 배역을 적적 소화해 낸다는 말이다.

양동근은 지금 중학교 1학년이다. 그의 형의 말을 빌리자면 동근이는 지금보다 더 어린 시절, 국민학교 2학년 때쯤부터 탤런트가 되고 싶다고 했다고 한다.

양동근의 부모님들은 아이가 정 원한다면, 또 혹시나 숨겨진 재능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러라고 응했다고 한다. 동근이가 KBS-TV의 송년특집극 「탈리」에 데뷔하게 된 배경은 이렇게 자신이 먼저 '때를 쓴' 결과이다.

연기는 천부적인 것일까, 아니면 피땀의 연습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일까. 동근이의 부모님들은 아직도 연기는 '천부적인 것'일 거라고 생각한다. 집안을 다 뒤져봐도 한명의 연기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번도 연기연습을 신경 써서 따로 시키지도 않았음에도 동근이는 기대 이상으로 소질을 보였기 때문이다.

다음은 동근이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질문에 답하는 동근이의 말을 있는 그대로 읽어보면 이 아이가 비록 성인의 세계에 살긴 하지만 티없이 맑고 순진한 영혼을 가졌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 지금까지 출연한 드라마는 몇편 정도?

"물라요. 하지만 셀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 제일 기억나는 드라마는?

"서울특별시요."

- 「관촌수필」 5차 촬영을 끝낸 소감은?

"밖에서 촬영하는 것은 참 힘들어요. 학교도 못가고 친구도 못만나고..."

- TV 출연은 자신이 원해서였다는데 그렇다면 학교 못가는 것이 그렇게 큰 불만이 아닐 텐데.

"이제는 공부하고 싶어요. 중학생이잖아요. 「관촌수필」 끝나면 앞으로 텔레비에는 안 나





갈 거예요. 엄마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나중에 대학에서는 연극영화과에 갈 생각인가?

“그런 거 생각 안해 봤어요.”

-영화나 CF 출연 경험은?

“영화는 한번도 안해 봤구요, CF는 몇편 했어요. 농심라면 같은 거요.”

-제일 기억에 남는 연기자 아저씨나 아줌마는 누구?

“서울 뚝배기에 나갈 땐데요. 김남호 아저씨라고 있어요(정확한 이름인지의 여부는 분명치 않음). 그 아저씨가 제일 좋아요.”

-이유는?

“날 데리고 밥을 제일 많이 사줬어요.”

-친구들이 TV에 나간다고 부러워 하지는 않나?

“요즘 애들 그런 거 하나도 부러워 안해요.”

인터뷰에서 밝힌 것처럼 양동근은 「관촌수필」 출연이 마지막이 될 것 같다고 말한다. 구

구절절이 다른 이유는 없다. 단지 공부하고 싶어서란다. 어릴 때부터 피아노 학원이다 붓글씨 학원이다 한문과외다 해서 아이들이 아예 공부라면 질색하게 만드는 이 사회의 많은 부모들과 비교해 볼 때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원없이’ 해보게끔 시키고 스스로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한 동근이 부모는 가정교육에 절대적으로 성공한 경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동근이의 천연덕스러운 연기를 못보게 된다 해서 그렇게 섭섭해 할 일은 아닐 듯싶다. 한 10년 후쯤 ‘왕년의 아역스타’란 수식어를 달고 완전히 숙성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S**

글/김은영 · 자유기고가

사진/서창식

창사 2주년 기념 TV 드라마 극본 공모 입상작 선정

당선작 「황새여울」(김진수 작)

가작 「미로의 끝에서 만나다」(길상효 작)

SBS-TV가 창사 2주년 기념으로 시행한 TV 드라마 극본 공모에서 김진수의 「황새여울」이 당선작으로 확정됐다. 경북궁 복원공사 현장에서 늙은 곱추목수가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는 것에서 시작되는 「황새여울」은 3대에 걸쳐 이어지는 목수일가의 파란만장한 일대기와 그속에서 자연스럽게 싹트는 민족정신과 조국애를 그린 작품이다. 탄탄한 구성과 선명한 테마, 신선하고 특이한 소재로 취재력과 필력이 어우러진 수작이라는 평을 받았다.

또한 가작은 임신중독증으로 아내를 잃은 방송작가와 그때 태어난 딸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에서 사랑의 참의미를 담은 길상효의 「미로의 끝에서 만나다」가 차지했다.

총 143편의 응모작 중 확정된 두편의 수상작은 93년 중에 SBS 특집 드라마로 제작, 방송될 예정이다.



낙태, 소리없는 생명의 절규

• 방송/11월 22일 밤 10시55분~11시50분

구성/윤미경 · 방송구성작가

그건 정말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다.
첫 딸을 낳은지 석달 밖에 안됐는데 또 임신이라니...
산부인과 문을 나서면서도 홍씨는 자신의 임신 진단이 믿기지 않았다.

“모유를 먹이지 않고 우유를 먹이는 산모들에겐 쉽게 아기가 들어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에 그럴 수도 있었다니, 모유를 먹이지 않으면 임신이 빨리 된다는 얘기도 처음 듣는 소리였다. 결혼한지 이제 겨우 1년. 첫 딸 슬기를 낳고 나서 남편은 말했었다. 지금보다 형편도 나아지고 또 슬기가 앞가림할 때쯤에 아들 하나만 더 낳자고..., 다른 건 몰라도 남편이 아들 욕심 하나만은 은근하다는 걸 아는 홍씨로서는 또 한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다. 아기를 낳자마자 또 아기가 생긴다면 딸일 확률이 높다는 주위의 경험담을 그냥 흘려 들을 수만은 없었던 것이다.

계획에 없었던 임신 사실에 남편도 역시 조금은 당황한 빛을 감추지 못했다. 그날 밤 남편과 아내는 결론을 내렸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둘째 아이를 낳기에는 아직 적절한 시기가 아니므로 '지우기'로 결정을 내린 것이다.

알음알음으로 해서 '숨씨'가 좋다고 소문난 병원을 알아냈고, 조그만 일에도 겁이 많은 아내를 남편이 따라나섰다. 그 병원이 있다는 동네의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자마자 두 사람의 눈에 '산부인과, 여의사 진료'라고 쓰인 간판이 들어왔다. 이렇게 속스럽고 뻔뻔치 못한 일에는 어쩌면 여자 의사가 더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합의하고 두 사람은 그 조그만 의원급 산부인과로 들어갔다. 두 사람의 얘기를 들은 50대 중반의 여의사는 아주 간단하게 말했다.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병원은 그 수술을 전문적으로 하는



데예요. 한번 와 본 사람들이 소개를 해가지고 많이들 와요. 수술도 한 5분이면 끝나니 맘 폭 놓으세요.”

수술은 5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마취기가 가시지 않아 조금 어지럽고 약간의 통증만 있을 뿐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다. 회복실에서 링겔을 맞는 동안 남편이 걱정스런 눈빛으로 홍씨를 내려다 보고 있었다. 그런데 한 30분쯤 지났을까.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섰던 그녀는 뭔가 아래로 확 쏟아지는 것을 느꼈다. 하혈이었다. 단순한 하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양이었다.

6개월 간의 치료 끝에 홍씨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은 평생을 ‘급성 신부전증’이라는 치명적인 신장병에 시달리며 환자로서 살아가야 한다. 통원치료를 하면서 홍씨 부부는 그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했다. 아주 쉽고 간단한 수술이라고 몇 번이고 주장을 했던 그 의사를 고소하는 일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1심에서 재판부는 홍씨가 병원측의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해, 의사를 ‘업무상 낙태치상’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병원측에서는 즉각 항소를 했다. 환자의 사고는 의사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법발성 혈관내 응고장애’라는 특이한 병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였다. 최종적으로 법정은 의사에게 무죄나 다름없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낙태 수술을 해주고

현행 헌법에는 엄연히 낙태죄라는 것이 있어서 낙태를 부탁하는 사람이나 시술을 해준 사람 모두 법에 의해 처벌을 받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낙태수술은 지금도 수없이 행해지고 있을 뿐 아니라 그들중 아무도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 속에 낙태는 ‘범죄’가 아니라 하나의 ‘관행’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상해를 입힌 혐의는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처벌하지 않는 사회의 관행에 따라 선고를 유예한 것"이라는 게 판사의 판결 요지였다.

낙태죄의 처벌 유무를 놓고 3년 간에 걸쳐 계속된 이 사건에 내려진 판결은 우리 나라 사람들의 낙태에 대한 인식을 대변해 주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현행 형법 269조와 270조에는 낙태죄라는 것이 있어서, 낙태를 촉탁한 부녀자나 시술을 해준 의사 모두 처벌을 함은 물론이고 치상이나 치사를 하게 한 경우에는 더 큰 처벌을 받게 되어있다.

그렇다면 낙태 수술중에 죽을 고비를 넘길 만큼 치상을 입힌 의사를 무죄와 다름없는 선고를 내리게 한 그 '관행'이라는 것을 법보다 상위의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지나친 억측일까. 우리 나라에서 1년에 태어나는 신생아 수를 70만명으로 잡았을 때, 그 두 배에 해당되는 150만 정도의 태아가 매년 죽어간다는 사실이 바로 그 관행의 위력을 말해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산부인과학회에 의하면 전국의 산부인과 전문의는 약 3000명 가량 된다고 한다.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를 제외한 이들이 하루에 두건 정도씩만 낙태수술을 한다고

쳐도 1년이면 200만이 넘고 여기에 일반 의사들과 조산원, 그리고 무면허 의료행위까지 합해지면 그 숫자는 이미 헤아리기조차 어렵다. 죽어가는 태아들이 이 정도이니 그 생명들을 제거해버린 여성 인구는 과연 얼마나 될까. 이쯤이고 보면 우리 나라 가입 여성의 20퍼센트가, 그리고 기혼 여성의 80퍼센트 정도가 한 두번의 낙태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된 카톨릭 측의 통계도 놀랄 일만은 아니다.

산부인과를 직접 찾아 다니면서 그 사연들을 듣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산부인과 숫자도 많았지만 그 많은 병원마다 '낙태 손님'들이 예닐곱씩은 된다는 사실 또한 신기한 노릇이었다.

"대부분은 피임에 실패하거나 터울 조절을 위해, 또는 아들은 낳기 위해 낙태를 하러 옵니다. 예전에는 기혼여성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미혼 여성들이 반 정도이거나 그 이상 찾아 오기도 하더군요." 간혹은 임신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만삭이 다 돼서 찾아오는 10대들도 있다고 산부인과 의사 김현식 씨는 말한다.

한 산부인과에서는 의사가 낙태 수술을 받으러 온 한 주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광경도 목격되었다.

"90년 2월부터 오셨는데 92년 11월까지 여덟 번째면



모체의 자궁 속에 자리한 그 순간부터 태아는 이미 하나의 생명체이다. 그러나 해마다 150만명 정도의 태아가 수술도구에 의해 무참히 쪼개져 버려지고 있다.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에 의해 버림받는 그 생명들 자체에 죄가 있는 것은 아닐진대, 우리 사회 그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너무하잖아요? 아니, 도대체 왜 피임을 안하시는 거예요?”

“이제 부터는 할거예요.”

“이러다 자궁 뚫어져서 들어내는 일 생기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피임약은 몸에 해롭다고 해서 못 먹겠고, 남자들이 정관수술 하면 허리가 약해진단데, 또 대개 나팔관 수술을 하면 며칠동안 집에 누워있어야 되잖아요. 애들두 있는데.”

“그럼 콘돔이라도 쓰시지 그래요?”

“그게..., 그것을 쓰기 싫어하더라구요. 느낌이 안좋다고.”

상담 의사와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과의 대화는 대개가 이런 식이었다. 기혼이건 미혼이건 임신을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서 절대 필수 조건이어야 할 피임을 하지 않아 일어난 결과에 대해서 쌍방이 책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은 아주 사소한 이유로 기피하고 여성들 또한 무방비 상태에서 일을 치른 뒤 결국은 그 해결 방법으로 선택되어지는 것이 낙태라는 애기다.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임신하는 것은 여자기기 때문에 피임에 대해서도 주도권은 남성이 쥐고 있습니다. 이렇게 엇나가는 상황이 원치않는 임신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가부장적인 성구조가 빚어내는 비극적 결과가 바로 낙태라는 것이 성폭력상담연구소 임순영 씨의 의견이었다.

그러나 남자의 잘못이든 여자의 잘못이든 또 아무리 원치않는 임신이든 간에 낙태만큼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산부인과에서 5년간 근무한 간호사 서정심 씨의 주장이다.

“아무리 작은 태아라 해도 그렇게 함부로 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끔씩 그 끔찍한 낙태현장을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물론 충격적이고 놀라울겠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낙태인구가 줄어들 수만 있다면...”

우리 나라에서 낙태수술이 가장 많이 행해지는 시기는 수태후 3개월까지라고 한다. 초기 낙태라 불리우는 이 시기에는 ‘MR 키트’라는 수술 방법이 쓰여지는데 가정용 진공 청소기의 열 두배나 되는 흡인력으로 자궁 속의 태아를 빨아들이는 방법이다. 수술 당시의 상황을 초음파 영상을 통해 보면 수술 도구가 태내로 들어오는 즉시 태아는 심장 박동 수가 빨라지고 잡히지 않으려고 이리 저리 피해 다니는데, 절규하는 생명은 불과 3분에서 5분 사이면 사라지고 만다. 그러나 정말 끔찍한 광경은 12주 이후의 태아를 낙태시키는 현상이다.



생명경시 풍조, 깊숙히
희박해져가는 모성,
가부장적인 성구조에
익숙해져있는 남자들의
무책임, 인구조절에
도움이 된다면 어느
방법이라도 상관없다는
정부의 무리한 정책,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날마다
도처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살인이 용서되고 있는 것이다.
어떤 방향으로건 새로운 법의
제정이 시급한 때에 우리는
와있다.



“이 때는 아기가 꽤 자라서 한번에 꺼내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각조각씩 떼어내게 되는데, 나중에 다 나왔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팔 다리 가슴을 맞춰보고 최종적으로 머리까지 나온 것을 확인해야 비로소 낙태수술이 끝나게 되는 거죠.”

완벽하게 사람의 형체를 갖춘 5개월 이후에 낙태를 하는 경우에는 간혹 아기가 나와서 우는 바람에 너무 놀래 떨어뜨리기도 한다는 것이 그의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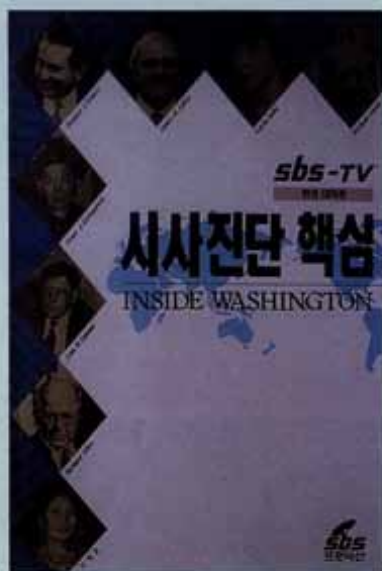
이렇게 끔찍한 낙태가 관행이 될 정도로 만연이 된 데에는 모자보건법 14조의 낙태 허용 조항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 학자들의 주장이다. 우생학적인 이유를 비롯해 다섯 가지로 정해 놓은 허용 조항이 너무 광범위해 그 이외의 이유로 낙태를 한 해도 적법성 여부를 따지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모자보건법은 1973년 경제개발 계획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산아제한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국가에서 의도적으로 만든 특별법이다. 그런데 바로 이 법이 국가적으로

낙태를 공식화 하는 계기가 되었고 정부에서는 이것도 모자라 낙태를 유도하는 정책까지 실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월경조절술이라는 이름으로 각 보건소를 통해 8주 이내의 임부를 대상으로 무료로 시술을 해주었다는 피임법은 다름아닌 MR 키트였고, 가족계획협회에서는 아직까지도 이 낙태술을 피임의 한 종류로 홍보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 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단기간에 인구조절에 성공한 나라로 꼽히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는 모자보건법의 낙태조항을 일반 형법에 포함시키는 작업을 추진해왔다. 많은 낙태가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점에서는 차라리 일부 허용을 해주면서 나머지는 허용시키지 않는 것이 법의 규범력을 살릴과 동시에 그 이외의 사유로 낙태를 하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될 것이라는 것이 그 취지이다. 그러나 이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될과 동시에 가톨릭교단에서 즉각 반발을 하고 나섰다.

어쨌든 새로운 낙태죄 개정안을 놓고 우리 나라에서도 한바탕 낙태 찬반에 관한 거센 논쟁이 벌어질 것 같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에게 시급한 건 낙태 찬반 논쟁을 쟁점화시키는 것보다 낱로 늘어가는 혼전 임신, 나아가서는 10대 낙태자들을 감소시키는 현실적인 방법을 찾는 일일지도 모른다. **S**

「시사진단 핵심 : Inside Washington」 이 한권에 움직이는 세계가 있습니다



〈신국판, 339쪽, SBS프로덕션 펴냄, 값 6,000원〉

소련의 몰락 이후 세계 질서가 재편되고 한반도의 통일문제에도 새로운 접근이 필요해짐에 따라 SBS는 시사대담 프로그램인 「시사진단 핵심」을 마련한 바 있다. 그중에서 한달에 한번 위성턴 현지제작을 통해 국제문제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고견을 들음으로써 국내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었던 「시사진단 핵심-위성턴동정」이 책으로 엮어져 나왔다.

SBS 프로덕션이 발간한 「시사진단 핵심 : Inside Washington」에는 세계질서에 부합하는 지도자상, 우루과이라운드나 북미 자유무역협정이 세계 경제 질서에 미칠 영향, 북한이나 이라크의 핵사찰이 향후 세계 안보질서에 끼칠 영향 등과 같은 다양한 시사문제에 관해 리처드 닉슨, 칼라 힐스, 제임스 릴리, 스티븐 솔라즈, 진 커크패트릭, 존 스누누 등 풍부한 경험과 예리한 통찰력을 지닌 거물인사들이 갖고 있는 견해가 수록되어 있다. 또한 한영대역본으로 엮어져 있어 고급 구어체 시사영어를 접할 수 있다.

「1492 콜럼버스」에서 만나는 두개의 역사

과거를 통해 발견하는 미래의 아메리카

정성일 · 영화비평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지 500주년이 지난 1992년에 다시 그를 재판정에 세운다. 그는 아메리카에 무엇을 가져왔는가? 유럽은 거기서 무엇을 얻었는가? 역사는 자기의 본분을 다했는가?

리들리 스코트 감독의 「1492 콜럼버스」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유효한 세계관 사이의 논쟁에 관한 영화이다. 시간적으로 매우적이며, 제라르 드파르디유의 카리스마적 연기가 압도적이며, 상영시간 155분(4분이 검열되어 삭제당했다)의 장대한 영상이 주는 감동도 만만치 않지만 그러나 그런 것에만 났을 판다면 이 영화를 지나치게 과소평가(!) 하는 것이다.

오히려 이 영화는 두개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다. 콜럼버스는 중세적 세계에서 자본주의 시대로 이행되는 그 역사의 단층 사이로 뛰어드는 것이며, 토마스 아퀴나스적 신학의 세계에서 데카르트적 공간으로 나아간다. 이제 신의 소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보다 넓은 땅을 요구하는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콜럼버스는 저 세계를 찾아간다.

그리고 리들리 스코트의 영화는 그 완성되지 않은 콜럼버스 이후의 모더니즘을 포스트 모던한 반(反) 역사의식으로 다시 바라본다. 콜럼버스는 역사를 빠져나와 일종의 SF적 공간 속에서 리들리 스코트가 지금까지 만들어온 영화 속의 인물들과 싸우며 거꾸로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은 '과거'의 아메리카인가, '미래'의 아메리카인가?

말하자면 「1492」는 패러독스와 아이러니의 역사 교훈극이다. 리들리 스코트는 정교하게 역사의 기록을 재현해낸다. 그러나 그가 정말 관심을 갖는 것은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어떻게 발견했는가'가 아니라 아메리카가 콜럼버스를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가'이다. 콜럼버스는 아메리카에 의해서 질문당하는 것

이며 바로 그런 의미에서 그는 재판정에 서는 것이다.

콜럼버스는 세번 아메리카를 찾아간다. 그리고 그 세번은 모두 다른 의미를 지닌다. 첫번째는 '발견'이다. 이 낯선 신세계는(영화속의 나레이션에 따르면) 천국이며 태초에 인류가 생겨났을 때의 모습이다. 이 세계는 그리스도적 세계관으로 해석되지 않는, 나뉘어진 세계이며 신화의 세계이다. 콜럼버스는 그것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두번째 방문은 '정복'이다. 그는 더 이상 손님이 아니며, 자본의 침범이자 서구 질서의 확장을 위한 사법적 권위로 신화를 현실에 종속시키러 찾아 온다. 목표는 금과 노예이며, 신세계에서 서구의 재건설이다. 리들리 스코트 감독이 개입하는 새로운 해석은 바로 이 두번째 방문이다. 그는 서구 논리의 재판성을 서구 자체 내에서 생각한다. 「1492」에서 제국주의의 역사는 서구와 다른 세상 사이의 싸움이 아니라 서구 내부의 재생산 과정이다.

콜럼버스는 신세계에 도착하여 그 곳에 교회를 세우고 거대한 종을 매단다. 그러나 그 종을 흔들어 소리나게 만드는 것은 폭풍우와 벼락이다. 신세계의 꿈은 붕괴당하고 이제 콜럼버스는 도전 받는다. 그 콜럼버스에게 도전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 아닌 서구의 동료들이며 다른 계층의 귀족들이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리들리 스코트 감독의 앞선 영화들의 등장인물들이기도 하다. 그의 데뷔작인 「대결자」의 끊임없이 도전하는 편집광적인 검무사, 「에이리언」의 배신자들, 「블레이드 런너」의 레플리컨트들, 「위험한 연인」의 아내와 정부, 「블랙레인」의 이질적 문화공간, 「셀마와 루이즈」의 시각 모티브와 그 희생자들이 차례로 순서를 바뀌기며 등장하는 것이다.

리들리 스코트 감독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의 영광과 좌절의 드라마 속에서 서구의 제국주의가 자체 내에서 생산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려 위해 오히려 영화 속의 역사에서 역사 안에 개입하는 영화로 바뀌놓는다. 그래서 이 싸움은 서구와 외부의 관계가 아니라 서구 내부의 자아와 이성에 관한 성찰이 된다.

하지만 미네르바의 부영이는 저녁이 와야 날 것이며, 역사는 언제나 한걸음 먼저 오는 것. 콜럼버스는 붕괴를 경험하고 그 자리에서 쫓겨난다. 그리고 세번째 방문은 그저 문헌으로만 기록된다. 게다가 아메리카 발견의 공로도 아메리고 베스푸치에게 돌아가 버린다.

리들리 스코트 감독은 거기서 결코 한걸음도 더 나아가지 않는다. 그는 아메리카 발견의 드라마를 다루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서구 유럽의 기원을 그리려고 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왜 그러한가? 콜럼버스에게 내린 파문은 무슨 의미를 지니는가? 그건 아주 심각한 질문이다.

「1492」는 아메리카 발견 500주년을 축하하는 영화가 아니라 '지금' 새로 시작하는 거대한 대륙인 유럽 통합체를 물어보는 영화이기 때문이다. 리들리 스코트 감독은 역사에 의해 아메리카라는 신대륙으로부터 타자(他者)가 되어 버린 서구 내부 역사의 그 기원까지 거슬러 올라가 "혹시나 이 새로운 EC 통합체가 유럽 내부 전체를 타자화시키는 공포의 과정이 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근심 깊게 지켜보는 것이다.

영화 「1492」는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같은 대사를 세번이나 이곳 저곳에서 반복해서 되풀이하고 있다.

"천국과 지옥은 서로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다."

리들리 스코트 감독의 「1492」는 그런 의미에서 과거의 역사극이 아니라 바로 미래의 스펙터클인 것이다. S

온갖 장르가 쏟아져나온 가요계의 92년

질이 양에 미치지 못한 '풍요속의 빈곤'

이진규 · 라디오 제작1부 차장



1992년의 가요계는 다른 해보다 다양한 변화를 보였지만 그 반면에 성인가요가 주춤했던 한 해이기도 했다. 발라드 스타일의 가요가 히트하다가 랩음악이 등장하면서 온통 랩 스타일의 가요가 휩쓸었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여러가지 다양한 스타일의 가요가 태동하는 한 해였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한동안 뜸했던 그룹들이 좋은 반응을 얻으며 그 열기를 뽐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성인 대상 가요는 열세를 면치 못한 것이 사실이다. 스탠더드나 트로트 스타일의 가요가 별로 인기를 얻지 못한 한 해였다. 사실 젊은층 대상의 음악들이 성인가요에 비해 국적도 불분명하거나 거의가 표절시비의 대상이고 보면,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우리의 가요를 만들고 제작하는 사람들에게선 불평이 쏟아지기도 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방송에서 너무나 불균등하게 젊은층 대상의 음악만을 집중적으로 소개한 탓에, 성인대상의 가요가 자연히 소외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92년 한 해를 돌아보는 시점에서 방송의 가요 담당자들이 꼭 되새겨 봐야 할 사항임이 분명하다. 대중가요, 나아가서는 대중문화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필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92년의 가요계를 돌아보며 두서없이 몇가지 문제점을 언급했지만, 그 중 두가지를 꼭 짚어보고자 한다.

우선 다양한 스타일의 가요가 많이 발표되어 그 어느 해보다도 가요의 다양한 발전 가능성을 보여준 한 해였지만 기교적이며 기술적인 면만 부각되었을 뿐 음악적인 수준을 따져 보면 거의가 외국음악을 본딴, 표절시비 대상의 작품들이 대부분이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선풍적 인기를 얻었던 랩음악들이 거

의 외국음악을 본딴 카피(Copy)음악이었던 것을 보면 대중음악의 속성 가운데 하나인 허구성을 느낄 수밖에 없다. 더구나 대중음악을 올바르게 이끌어내야 할 방송, 신문, 잡지 등 매스컴에서 조금의 여과도 없이 랩가요를 선전하는 데만 한몫한 점도 유감이다.

물론 모방을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외국의 랩음악을 우리의 대중가요로 받아들이는 데, 치면, 어떻게 우리의 독특한 문화에 맞는 방식으로 만들어야 할까를 고민하고 숙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양의 것 그대로를 복사하는 데 그칠기에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또 하나, 92년 한 해 동안의 성인 대중음악 부채 현상을 들 수 있다. 성인 대상의 독특한 프로그램들이 별로 없었던 탓에 젊은층 대상의 가요만이 독재한 것이 사실이다. TV의 성인 대상 가요프로그램으로 「가요무대」등 몇가지가 있으나 이들 프로그램은 흘러간 옛 가요를 중심으로 방송하고 있는 바, 최신의 성인가요를 중심으로 다뤄주는 프로그램은 별로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본다. 성인 대상의 최신 트로트 가요들이 꾸준히 발표되고 간간이 스탠더드 가요가 제작되었으나 그저 명맥을 유지한 정도이고 보면, 성인 대중들은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93년 새해를 기대하며 가요계에 대한 바람을 얘기해 보고자 한다.

첫째, 가요의 각 분야별, 장르별 발전 및 활성화를 기대해 본다. 트로트, 발라드, 보사노바, 록, 메틀, 재즈, 포크, 스탠더드, 댄스, 뉴에이지 등 다양한 스타일의 대중가요, 더 나아가서 순수 연주곡들이 각기 장르별로 더욱 성숙한 모습을 보이며 팬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93년이 되었으면 한다. 또한 시청자들이 다양한 음악을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편성

되어 각 장르별 여러 음악들이 균형있게 발전하기를 바란다. TV는 TV 프로그램대로 각 장르별로 특성 있는 쇼가 개발되어 어느 한 분야도 뒤떨어지지 않고 소개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라디오 프로그램은 라디오대로 각 장르별로 프로그램이 따로 편성되는, 보다 적극적인 대중가요의 발전 발판이 형성되었으면 한다. 그래야만 다양한 계층의 시청취자가 자기 자신들의 취향에 맞는 가요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어느 분야의 가요라 하더라도 우리 민족의 정서에 맞는 가요를 만들어 발표하는 93년이 되었으면 한다. 그저 히트에 연연하여 남의 것일지라도 거리낌 없이 도용하는 풍토를 없애고, 적어도 우리의 정서에 맞는 가요를 만들려고 고심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음악적 기교나 기계적인 방법만을 내세운 대중가요가 아니고 멜로디나 리듬이 우리의 정서에 알맞는 가요, 가슴에 와닿는 가사를 담고 예술성도 지니는, 그런 가요가 많이 발표되었으면 한다.

또한 가요를 다루는 방송 관계자나 인쇄매체의 가요 담당자들도 이런 점에 유념하여 올바른 길로 가요 발전을 돕는 좋은 분위기가 되길 바란다. 히트곡이라고 하여 무조건 좋아하고 칭찬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자세히 살펴보고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따끔한 충고도 아끼지 않는 그런 언론이 돼야 할 것이다.

아무튼 93년 새해는 실험적인 가요도, 다양한 장르의 가요도, 함께 발전하는 멋진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것이 나 혼자만의 기대는 아니리라 믿는다. S

오랜만의 페미니즘 연극, 「자기만의 방」

여성문제의 본질에 접근한 연극적 시도

이영미·연극비평가



이영미의 일인극 「자기만의 방」(극단 띠오빠, 원작 버지니아 울프, 번안·각색 류숙렬, 연출 김상렬)은 여성연극이다. 이 작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페미니즘 연극을 연상시키는 '여성연극'이란 용어는 별 낯뜨거움 없이 사용될 수 있다. 뒤집어 말해서 「위기의 여자」 이후 지금까지 여성관객을 끌고 있는 소위 여성연극이라 불리고 있는 연극들은 페미니즘 연극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들 작품들을 여성연극이라고 지칭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여성운동', '여성해방'의 어감을 가지는 '여성'연극이 아니라 '여성지', '여성용 주말연속극' 등의 용어에 쓰이는 '여성'이라는 말의 어감이 지닌, 그런 '여성' 연극이라는 편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이 연극은 이전의 여성을 겨냥한 대중극이 지니고 있던 멜로드라마적인 구태를 벗고 있다. 가부장제의 사회 속에서 곱게 차라 남편과 자식만 믿고 살아오던 여성이 결국 남편에게도 자식에게도 자신을 기댈 수 없게 되는 불행에 빠지게 되는 과정, 여태까지 여성용 대중극들의 내용은 대개 이런 것이었다. 그래도 「위기의 여자」가 미흡하나마 이러한 삶에 대한 객관화를 유도하고 있다면, 그 후의 작품들은 그 정도의 객관화도 유지되지 않고 마치 통속물처럼 그 고통의 체험에 매몰된 뉘etur로 흘러버려, 여성의 현실이나 여성문제에 대한 각성의 계기를 주지 못했다.

그에 비해 이 작품은 여성문제에 대해 비교적 정공법의 대응을 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작품은 84년 한국여성평우회의 「떨놀이며 당」, 85년 주부극단 동우리의 「이 세계 절반은 나」의 뒤를 잇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이렇게 여성문제를 정공법으로 다룰 수 있었던 것은, 이 작품이 한 극단, 한 개인의 창작품이라기보다는 이를 기획한 여성문화기획실의 공동토의와 공동제작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즉 일종

의 여성운동적 차원의 작품이기 때문이다.

줄거리는 없다. 작품은 마치 「그것이 알고 싶다」와 같은 유럽적인 연구실 분위기가 나는 곳에서 관객을 향해 이루어지는 이교수의 강연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작품의 원작이 된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은 희곡이 아니라 연작에세이이기 때문이다. 버지니아 울프의 글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작품의 세부적인 내용의 대부분은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채워져 있고, 거의 새로운 창작에 가까운 정도의 개작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렇게 현재 우리 나라의 상황에 맞게 새로 채워진 부분들은 관객에게 자신이 놓여 있는 우리 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을 하게 한다.

특히 남성중심적 사회가 만들어내는 편견투성이의 여성관과 이를 치장하는 현란한 여성론을 비판하는 장면에서는, 「나는 아한 여자가 좋다」의 '마손톱 교수', 「여자인 무엇인가」의 '김동양 교수'하는 식으로 실존 인물을 거의 그대로, 오히려 회화화시켜 드러내며, 그들이 쓴 책의 구절구절을 인용해가며 편견에 찬 여성관을 비판한다. 또 예술작품 속에 나타난 여성상에 대해서도 정절의 표상 준향, 희생의 표상 심청, 순결을 잃음으로써 끝내 비극적 삶을 사는 「별들의 고향」의 경아, 자신의 성을 남성에게 보시하는 것으로 여기는 허구적 박애주의자인 「겨울여자」의 이화, 젓가슴과 허벅지, 엉덩이를 드러내는 것을 주 임무로 하는 「애마부인」 시리즈의 여주인공 등으로 우리의 예술문화 속에서 그 구체적인 예를 든다.

이러한 적극적인 개작은 자칫 재미 없게 진행될 법한 강연식의 딱딱한 극 진행을 그나마 흥미 있게 끌어갈 내용적 요소로 기능하였다. 또한 작품을 관통하는 관점에서 제대로 소화되지는 않았지만, 아이 말길 데가 없어 지하 단칸 방에 아이들을 가두고 공장에 출근해야 하는

가난한 여성노동자의 문제까지도 씨안으려 한 시도는 의의 있는 시도였다. 이러한 적극적 개작과 우리 사회의 과악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원작에서 적극적으로 밀려온, "세익스피어에게 그만큼이나 재능 있고 창조적 욕구가 있는 여동생이 있었다면, 그녀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가정을 이야기로 푸는 장면도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적 재미를 넘어서 작품의 연극적 재미는 적다. 강연식으로 진행되는 딱딱한 흐름에 그 큰 원인이 있겠지만, 이를 과감하게 시각적으로 연출하지 않고 점잖고 차분하게 만들어간 연출의 소극성에도 그 탓이 있을 것이다. 또한 다소 여린 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인지, 남성적 분위기의 의상을 입고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강경하고 도전적 분위기로 연기를 하는 배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새어나오는 배우의 유약하고 신경질적인 여성의 분위기는 대본 자체의 중산층 여성운동적 시각과 맞물리면서, 남성에게 의도적으로 도전적이며 비판만을 일삼는 수준을 넘어서서 남녀가 평등하게 사는 삶과 그러한 자신감을 획득한 보다 성숙하고 호방하고 넉넉한 분위기의 여성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역시 대(對) 남성투쟁에 더 큰 힘을 쏟는 여성의 모습을 만들어 버린 점이 아쉽다. 이럴 때에 「자기만의 방」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그 의의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성의 사회진출과 지위향상으로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이 크게 진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성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는 연극적 시도는 매우 드물며, 텔레비전 드라마나 영화의 수준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오랜만에 만난 페미니즘 연극 「자기만의 방」이 이러한 풍토를 과감히 깨고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S

'92 춤의 해를 되돌아보며

이름값 못한채 소리만 요란했다

김경애 · 무용비평가, 칠간춤 편집장



‘춤의 해’에 대한 점점을 하기 위해서는 이 ‘춤’ 루어진 행사만을 놓고 평가하기 이전에 그것이 갖는 의미를 우선 되짚어봐야 한다. 92년이 ‘춤의 해’가 된 것은 정부에서 자청해서 지정해준 것이 아니라, 작년에 한국무용평론가회가 91년이 ‘연극의 해’로 지정된 것을 보고 92년을 ‘춤의 해’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하는 의견을 무용계에 제시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무용계를 대표하는 아홉개 단체의 장(長)들이 모여 ‘춤의 해’ 유치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육완순 한국현대무용진흥회 이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한 후 치밀한 작전을 펼 끝에 ‘춤의 해’가 성취된 것이다.

‘춤의 해’를 끌어내리기까지 여러 사람들이 들인 공로는 춤 문화운동의 연장선에서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그동안 사회적으로 미미하던 춤예술을 80년대에 들어와 중흥을 이루게 해놓은 맹렬한 춤의 실세들이 이루어낸 성과였다. 우선 정부차원에서 비로소 춤을 인정해 사회에 인식시켰다는 데에서 춤 사회를 일반사회에 알린 가장 뜻깊은 기회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춤의 해’가 지정된 이후의 주도권 다툼에서 무용계의 치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듯이, 무용계 발전을 위해서는 덮어두고만 있을 수는 없는 병폐였으니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그 또한 ‘춤의 해’가 거둔 소득(?)이라고 할 것이다.

10억원 규모의 정부지원금을 행사하는 가운데서 주도권 다툼이 일어난 배경은 ‘춤의 해’를 유치하는 데 노력한 인물들을 그 집행에서 소외시키려는 데서 시작되었다. 일은 재야의 아홉개 단체장들이 했는데, 대정부 청구라는 이유만으로 돈은 아무 일도 하지않은 한국무용협회가 독점해서 차지하려는 데에 그 심각함이

있었다. 결국 '춤의 해'는 한국무용협회가 뜻한 대로 운영위원회가 조정되었고 이른바 '반쪽'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어쨌든 처음으로 정부가 맘먹고 내준, 다시 오기 어려운 이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점은 무용계가 크게 반성해야 할 일이다. '춤의 해'라고 이름이 붙여졌음에도 불구하고 92년 한해 동안 무용계가 펼친 행사 내용은 한마디로 '기대하는 것도, 이루어진 일도, 보여주는 것도 없이' 끝났다고 단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평소의 무용계 실력에 비추어볼 때 10억원이 투여된 의미를 찾을 만한 공연이 없었다. 일개 개인 단체들의 역량에도 밀도는 할랑미달의 행사 집행이 대부분이었다.

무용계에는 축적된 행사 추진력이 있다. 이들이 실질적으로 한국의 무용계를 주도해왔던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이 소외된 운영 위원회는 행사 집행에 있어서 적극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 단 2개 단체만을 해외에서 초청해 와 '국제무용제'라고 이름붙인 행사까지 있을 정도였다.

행사는 많았는데 떠오르는 인물이나 작품이 없다면 그것은 '행사를 위한 행사'를 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춤의 해' 운영에서 이를 유치하는 데 공로가 있는 무용계 엘리트, 즉 실세가 참가하지 않은 사태는 이미 비전을 가질 수 없었고 주춧돌이 행사를 감당할 그릇이 되지 못해 결국 무용계 전체의 축제가 될 수 없었다. 출발전 중장기 발전 계획이 단 한건도 거론되지 않았다는 것은 작년 '연극의 해'를 통해 '제작금고'가 설치된 연극계의 성과와 비교가 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10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행사나열에만 써버린 셈이다.

'봄맞이 춤제전' '아외춤 여름이벤트' '아외상설무대' '임진각 통일출판' '전국무용제' '서울무용제' '젊은 춤꾼 가을 잔치' '한민족 춤제



전' 등이 올 한해동안 열린 대표적인 페스티벌들이다. '춤의 대중화'라는 기치 아래 아외무대가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올해 무용계의 특징이었다. 아외 춤은 자연환경을 배경 삼아 거기에 맞는 작품을 별도로 제작해야 하는데, 대개가 극장공간에서 했던 작품을 그대로 길거리로 들고 나간 꼴이어서 '춤의 덩핑공세'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려웠다. 특히 극장예술의 상징인 클래식 발레를 아외에서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시도였고 주춧돌이 이 행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의구심을 낳게도 했다.

그래도 성과라고 본다면 '춤의 해'를 기해 전국무용제를 매년 치를 수 있게 제도화했다는 점과, 봄 가을의 축제에 많은 젊은 춤꾼들이 혜택을 보았다는 것, 그리고 강수진, 김영순, 유미나 등 해외거주자들의 춤을 볼 수 있었다는 점이다. 젊은 춤꾼 박화경의 작품과 연례행사인 서울무용제에서 보여준 이정희, 윤덕경의 춤은 그런대로 꼽을만한 소득이다. 그리고 공식행사와 별도로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이 '춤의 해'를 통해 무용에 참가해 준 것은 기억할 만한 일이다. 5

「SBS 매거진」 1년 목차 (91.12~92.11)

1991-12

- 4 창간사
기쁨을 주는 새로움이 되도록·윤세영
- 5 속시
힘을 다하고 슬기를 다하여·김춘수
- 6 커비스토리 / 「SBS 8뉴스」 앵커 행형규 보도위원
「군림」하는 앵커라면 당장 사양하겠다·임용진
- 14 SBS에 바란다
건강한 사회를 빌기 위하여 되도록·고병익
문화예술의 신명 붙들기·김진영
새로운 방송을 만나고 싶다·조규하
미래사회를 열어주는 유익한 친구로·김후한
자라나는 세대를 책임져야 한다·최은영

개국특집

- 20 [1] 다큐멘터리 6부작 / 「신세계탐험-아마존」
자연과 인간의 끈끈한 인연·홍성주
- 28 [2] 다큐멘터리 2부작 / 「숨쉬는 땅」
얼이와 생이 남매의 이 깊은 외로움·윤동혁
- 32 [3] 보도기획 / 「인종과 환경-아프리카」
이것이 마지막 기록일지도 모른다·안성륜
- 38 [4] 드라마 세 편
「고래의 꿈」/문명 속에서 잃어버린 우리의 진실
「미늘」/뒤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의 굴레
「길」/따다른 삶이 부르는 사랑의 회심곡
- 44 [5] 헌정 취재 / 「세계의 민방」
선택받기 위한 치열한 노력, 그 끝없는 몸짓
- 46 [6] 기획특집 / 「카레이즈의 땅」
생생하게 되살아난 그날의 아픔
- 48 [7] 쇼·행사 / 「세계프로레슬링대회」의
- 51 [8] 외화 / 「나의 원방」과 「에일리언」
- 52 SBS-TV 개국에 부처
산술적이 아닌, 질적 선택권의 증가를·김영석
- 54 만감습시다 / 표제순 전무 VS. 홍순태·박경진
건강한 방송이 건강한 사회를 만듭니다
- 59 SBS-TV, 이렇게 펼쳐집니다
[1] 편성 / 변화의 의지 담은 다양한 얼굴·고장석
[2] 보도 / 쉽고 공정한 뉴스, 참신한 조직·송석형
[3] 스포츠 / 새바람 일으킬 입체적인 구성·정건일
[4] 드라마 / 재미있는 드라마, 좋은 드라마·곽영범
[5] 쇼·코미디 / 새롭고 즐거운 그 무엇·이남기

- [6] 생활·교양 / 이제 생활이 달라질 것·신완수
[7] 다큐멘터리 / 약강군단이 펼칠 출판·황효선

- 74 SBS-TV의 편성을 보고
TV를 보는 재미 한껏 북돋을 새로운 틀·이강순
- 76 관심집중 / 권오승·김종찬·이혜영
재미있는 뉴스로 이끌어갈 삼두마차·유종영
- 78 이 얼굴들 / SBS 프로그램을 빛낼 진행자를
새로운 만남, 정다운 느낌·김은영
- 82 초점 / 「유심초」의 이주나와 「분례기」의 신영진
스타탄생 예고하는 새로운 얼굴·천인식
- 86 프로그램 탐험 / 주말극장 「은하수를 아시나요」
눈물처럼 슬프고 따뜻한 우리의 지난날·전구주
- 92 방송의 현장 / SBS 라디오 「시민노래자랑」
신나는 무대, 정다운 만남·최선규
- 94 시청자시대를 달리는 SBS 텔레비전
시청자가 주인 되는 놀이마당
- 98 방송지구촌 / 특파원 보고
파리·김형민 모스크바·김성호
워싱턴·백낙천 도쿄·박수택
- 102 시청자를 위한 방송이야기 [1] / 로우채널과 하이채널
본격적인 로우밴드 시대가 열렸다·김인동
- 104 SBS 문화살롱 / 영화·연극·가요·광고
- 112 12월의 채널들 / 시간대별 주요 프로그램 안내

1992-1

- 4 커비스토리 / 「SBS 뉴스쇼」 앵커 이혜영·임용진
솔직한 여자가 보여주는 「뉴스」와 「쇼」의 합수품이
- 신년특집
- 14 [1] 신년 기행 제1편 / 「물과 황금의 나라 미얀마」
잊혀진 나라, 과거로 떠난 시간여행·조한선
- 20 [2] 신년 기행 제2편 / 2부작 「은둔의 땅, 티베트」
문명 앞에 외로이 선 원시의 향기·권종오
- 26 [3] 원단기획 / 「통일 현장을 가다」, 「92년의 선택」
시대의 주인이 되기 위해 우리가 할 일
- 30 [4] 2부작 드라마 / 「다시 열리는 세월」
잊지 말아야 할 사랑의 진화 의미·천인식
- 32 [5] 다큐드라마 / 「원뿔이 일기」
원숭이의 눈으로 훑쳐본 인간세상·안석복
- 35 [6] 불만만 영화

- 36 [7]라디오 심년 특선
38 92년의 방송환경을 내다본다
시장구조 변화와 함께 펼쳐질 '시청자시대'·최창섭
40 미리보는 프로그램 /「21세기를 준비한다」
다음 세대의 유토피아를 위하여·김복수
48 큐 스튜디오 /「사랑의 정점다리」
목발이 안경처럼 자연스러워 보일 때까지·김정희
54 프로그램 탐험 /소설극장 제1화「여자가 마흔다섯」
비로소 내려다본 중년의 자리·정윤아
61 1월의 화제 여섯
소문난 잔치, 볼 것도 많더라·윤종영
68 현장중계 /제1회 SBS 광고 대상
방송과 광고, 나란히 가야 할 동반자의 멋진 첫걸음
74 초점 /SBS에서 맞붙은 자니윤과 이주인
고나과 소주처럼 다른, 성공한 광대들·조영남
76 1992년을 달린다 /앨런트 라재웅
알맹이 단단한 신세대 선두주자
78 나도 SBS년 /「SBS 문화광장」의 MC 이강호
틸틸한 남자가 전해주는 값진 문화소식·김은영
세밀을 누비는 SBS **탐험**
80 「특별생방송 어린이에게 사랑을」
합한 사고 끝에 태어난 자식을 보는 기쁨·이기진
84 「SBS 가요경연대회」
대장정 마치고 달내린 시민축제
86 「조아씨의 세계 미스터 마력」
숨들릴 새 없이 펼쳐진 초능력 잔치·김명송
90 시청자를 위한 방송이시기[2] /자동송출 시스템
시청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김병욱
92 나의 사랑 나의 주인공 /「푸른 일기」의 심주희
열한살 소녀의 첫 걸음마·홍순철

SBS 문화실용

- 94 영화 /영화, 텔레비전, 그리고 비디오
건강하고 멋진 영상문화를 갖고 싶다·강한섭
96 연극 /극단 실험극장의 「스터밍·육당숙의 여인들」
허위의 옷을 벗어버린 여인들의 외침·김수룡
98 가요 /표절, 그 달콤한 한탕주의의 유혹
베껴서 인기 얻고 들리면 버린다?·윤정수
100 무대 /한·중·일 민족음악화를 보고
동아시아 음악이 얼굴이 맞댄 뜻깊은 자리·윤중강

1992-2

- 4 커머스트리 /「쇼 서울 서울」MC 이덕화
거친듯 순수한 이 시대의 얼굴·장영운
10 새 프로그램 /SBS 소설극장 제2화「분례기」
멈추지 않는 생명의 흐름·이성아
16 미리 보는 프로그램 /다큐멘터리「한국 영화 70년」
한곳에 모이게 된 음악의 역사
22 반갑습니다 /새 사랑방 - 송도관 보도국장
국제화 시대를 달릴 '취재 제일주의자'
24 지상녹화 /한국에 온 월터 크론카이트 기자회견
뉴스의 생명은 '공정함'에 있습니다

- 28 동행 취재기 /서울방송 기자가 본 크론카이트
마음은 아직도 현장에 있는 '미국의 얼굴'·조윤중
32 다큐멘터리의 현장 /「지상 최후의 낙원 오세아니아」
개발 바람에 몰살 앞는 신의 땅·최금화
36 히트작을 다시 만들어보니 /설날 특집극「정실홍실」
모든 것이 변해도 사랑은 그 자리에·이장수
39 보는 재미, 듣는 즐거움
주말의 텔레비전, 우리가 꼭 잡았습니다·오주환
44 92 교향악 축제
봄의 교향악, 교향의 소리
46 현장 중계 /제1회 SBS배 세계 바둑 최강전
한국의 기력 확실하게 펼친 자리
51 2월의 화제 여섯
방송에 재미를 더해주는 '맛있는 소금'·윤종영
58 바람직한 시청자 운동의 미래
내용보다 제도에 시선을 모아야 한다·김원용
62 만나봅시다 /「행복찾기 주부동아리」
「주부 마음은 주부가 알아야요」·유미영
68 나도 SBS년 /가상리포터 박순심
실전에 강한 '생방송 제철'·황금희
70 92년을 달린다 /아나운서 최영주
실력으로 더해갈 행운의 무게
76 초점 /얼마 뒤 날 기다리는 개그맨 김미화
「방망이 대신 배도면과 친하게 지냅니다」·김일중
74 큐 스튜디오 /「코미디 전방대」
시원하게 끌어 주는 웃음 속의 세상 보기·이종빈
80 프로그램 탐험 /SBS 일요극장「목소리를 낮춰요」
작은 기쁨에서 발견하는 '사는 재미'·정윤아



- 86 여기는 792. /「기쁜 우리 젊은 날」
다채롭게 그려지는 젊음의 초상·김정희
- 90 시청자를 위한 방송 이야기(3) /「폭풍 미터」
가장 과학적인 시청률 조사 방법·이철호
- 92 나의 사랑 나의 주인공 /구필화가 김화정
가볍고 자유로운 그의 영혼·박정훈
- SBS 문화살롱
- 94 영화 /한국 영화를 위한 변명
수준 낮은 것이 어디 영화 뿐인가·강현섭
- 96 가요 /박재민 대중 음악, 사라진 노래의 혼
다이아 입맞춤은 싫다·김상일
- 98 연극 /극단 까망의 '우리 시대의 일그러진 영웅'
일그러진 대중들의 얼굴·이영미
- 100 매거진 킬링
날선 방송과 찬밥을 위하여·박전삼
- 102 시청자가 쓰는 이달의 방송평 /SBS 스포츠스포츠
다양성에 걸맞는 평형감을 바란다·김병록

1992.3

- 4 커비스토리 /「독점 연예정보」MC 윤정
속이 가득 들어찬 지성 미인·강영운
- 92 SBS-TV 봄 프로그램 개편
- 10 TV 개국후 첫 개편의 의미와 방향
일동 방송을 향한 본격적인 발걸음·고장석
- 14 새 프로그램
「핵심」,「그것이 알고싶다」,「푸르기 대행진」 등
새 양키
- 22 「SBS 뉴스쇼」의 이계진·「SBS 8뉴스」의 최영일
- 26 새 드라마 /SBS 소설극장「작은 도시」
시대의 복판에 선 우리의 좌와상
- 특집 / SBS 라디오 개국 1주년
- 32 지난 1년을 돌아보니
해놓은 일도 많지만 꿈은 더 많다·이해성
- 36 SBS 라디오에 바란다
친근하고 세련된 문화매체가 되어주기를....·김성희
- 38 다채로 경쟁시대, 라디오의 미래
변하지 않는 '인간성'에 호소해야 할 것·이정준
- 42 특집 프로그램
「서울의 노래」,「사랑의 유람선」,
「자녀를 조영남 콘서트」
- 44 SBS소식 /서암학술장학재단 창립
'건강한 방송 건강한 사회'의 이념을 구현해 갑니다
- 46 SBS 수신상태 및 시청선호도 조사
나란히 달릴 자신이 생겼다·이선경
- 51 3월의 화제 여섯·윤종영
- 58 매거진 킬링·이남기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도 안하는 것보다는 낫다
- 60 92년을 달린다 /MC 이영현
재능까지 아름다운 욕심쟁이·김일중
- 62 나도 SBS맨 /「SBS 생활영어」의 진행자 오석태
"영어는 결코 많은 것이 아닙니다"·조규성

- 64 초점 /나란히 연을 데뷔한 오세강과 고희식
"멋진 안타도 함께 날릴 겁니다"·윤종영
- 66 프로그램 탐험 /아침드라마「고독의 문」
사람만이 채울 수 있는 부부의 트랙·이성아
- 72 쿨 스튜디오 /「자녀를 이야기 쇼」
살아있는 웃음, 솔직해서 좋은 현장·황금희
- 축하합니다 / SBS 농구단 창단
- 80 그 의미와 기대
남자 농구 프로화의 기록제가 될 것·신종섭
- 84 신동과 감독과 6분6단
"풍채진 주먹같은 단결로 뒤통습니다"·천인식
- 86 서울방송 농구단의 얼굴들
새 바람, 새 각오
- 기획 / 선거와 방송
- 90 ① 선거에서 방송의 역할
공명선거의 기수가 되어야 한다·원후현
- 94 ② SBS의 선거방송
차별화와 지역성 강조, 그리고 '참신험'·유자효
- 98 ③ 세계의 선거방송·유세영, 이문행, 조유경
- 104 시청자를 위한 방송이야기(4) /AM 스테레오 방송
라디오를 살리려는 의지의 결과·조용태
- 106 SBS 문화살롱 /영화·가요·연극·전시회
- 114 시청자가 쓰는 이달의 방송평 /「출발! 서울의 아침」
납치는 힘과 탄력, 세심한 배려·이해향
- 116 시청자 편지 /「독점! 연예정보」를 만드는 분들께
"덕분에 주말이 즐거워졌습니다"

1992.4

- 4 커비스토리 /「SBS 8뉴스」양키 최영일 아나운서
신함 '뉴스쟁이'의 제자리 찾기·윤종영
- 10 새 프로그램 /「시사전단 핵심」
변화의 흐름을 읽게 해줄 키잡이·안상륜
- 14 새로워졌습니다 /「SBS 뉴스쇼」
다듬고 두드리고 캐내는 '맛과 맛'의 뉴스·이종빈
- 20 새 드라마 /주말 연속극「두려움 없는 사랑」
완전한 사랑, 그 아름다운 영혼·남지혜
- 92 SBS 라디오 봄철 프로그램 개편
- 28 개편의 방향
취업정보 신설로 정보채널의 임무 다진다·김유주
- 30 신설 프로그램
새 얼굴, 깊이 있는 만남
- 36 이 프로그램에 기대한다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수사물의 새로운 자리매김·김 남
- 42 기획 /봄철 프로그램 개편 후의 SBS
이제부터는 나란히 달린다·김병록
- 48 방송 지구촌
무엇이 '미국의 꿈'을 지켜주고 있는가·백낙천
- 51 4월의 화제 여섯
- 58 92년을 달린다 /SBS 쇼맨런트
"즐거운 인생"을 꿈꾸는 스타 예비군단·김일중
- 62 나도 SBS맨 /새 진행자들

「시사전단 핵심」김광웅·「사랑의 정글다리」
김은정:「그것이 알고 싶다」문성근

축하합니다/ SBS 제2기 탤런트 탄생

- 68 SBS 제2기 탤런트 탄생
스물다섯 명의 미래 주자 선발
- 70 SBS 제2기 신인 탤런트에게·신영진·오대규
- 72 이 얼굴들을 기억하십시오
「SBS 텔레비전에서 만나뵙겠습니다」
- 78 초점 /1인 3역의 주역 손지창과 김민준
제주가 너무 많아 탈이라는 신세대 청춘스타
- 80 프로그램 탐험/SBS 일요일극장「금잔화」
가슴을 적시는 사랑의 추억·이성아
- 86 킥 스튜디오 /「꾸러기 대행진」
알짜배기 웃음을 한꺼번에 만나는 곳·김병목
- 92 매거진 수신탐
재미가 없으면 좀 어쩐가·갈천문
- 94 시청자를 위한 방송이야기⑤ /스튜디오
영상 계획의 선두 장비·최인국
- 96 제14대 총선 개표 심황방송을 마치고
앞으로 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의 확인·이원재

SBS 문화실록

- 100 연극/극단 종각의「무목태미의 사람」
좀더 따뜻이 감싸야 할 밑바닥 인생의 삶·이영미
- 102 가요/가요 PD가 본 가수메니저의 세계
메니저와 더 친할 수밖에 없는 까닭·윤정수
- 104 전시회 /「세계기장-꽃은 날의 변화전」
지역문화 갈증 풀이준 반가운 단비·김미애
- 106 매거진 킬링
산다는 게 뭐길래...김진원
- 108 시청자가 쓰는 이달의 방송평 /「생방송 행복찾기」
농치기에는 아까운 바로 나의 이야기·임수정

1992-5

- 4 커비스토리/SBS 농구단 주장 정재근
코트에서 타고 싶은 스물넷의 불꽃·장영운

5월의 새 드라마

- 12 ① 소설극장 제4화「해방기의 아침」
사랑으로 보듬어야 할 영혼의 상처·정윤아
- 18 ② 수목드라마「궁합이 맞습니다」
멸줄 수 없는 2인 3자 달리기
- 20 ③ 주말연속극「두려움 없는 사랑」
늘 새로운, 그러나 변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
- 22 ④ 아침연속극「겨울새」
끝내 펼쳐 오르는 그 여자의 날개짓·이성아
- 28 SBS 텔레비전이 드리는 5월 특집
즐거운 세상, 의미있는 계절
- 32 새 외화 두편 /「사라센」과「당신은 탐정」
그 명성 그대로 이어갈 일급 시리즈들·김영원
- 36 세계 속의 SBS/SBS USA와 SBS America
태평양 물길도 가깝게 건너는 SBS의 전파·김덕규
- 41 5월의 화제 여섯·윤종영

- 48 축하합니다 /제1기 SBS 신인개그맨 등장
「이땅의 코미디에 평지풍파를 일으키겠다」·김일중
- 52 92년을 달린다 /탤런트 이소희
꿈 속으로 들어선 행복한 신인·신선화
- 54 초점 /DJ 데뷔한 가수 홍서범과 조정현
음악만큼 매력적인 '방송'이라는 봉우리·윤종영
- 56 나도 SBS맨 /진행자 권오규·최석환
「할 일이 너무 많아 나이 먹을 새도 없습니다」
- 60 제작의 뒤안길
치악산 자락에서 만난 엄마스님·윤동혁
- 64 취재의 현장에서 /「우주로 가자」
사라지지 않은 늙은 대국의 자부심·박재만
- 여기는 792, SBS 라디오입니다.
- 68 지금 생방송 중 /「수도관은 지금」
색다르고 친절한 라디오시대의 파수꾼·김병목
- 72 라디오에 산다 /「녹색시대」의 이영일
생명 있는 세상을 그리는 자연주의자·이병률
- 74 라디오 채널들 /「출발 성공시대」
청취자와 함께 달리는 직업복덕방·오미지
- 79 방송지구촌
경제대국의 빛과 그림자·박수택
- 82 매거진 수신탐
「영혼 있는 방송」을 만나고 싶다·임상원
- 84 빛돌이 소식 / 첫선 보이는 서울방송 농구단
「다국적군」의 '심자포화'를 기대하십시오·원인식
- 88 프로그램 탐험 /「쇼 서울 서울」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이 돋보이는 쇼·황금희
- 94 킥 스튜디오 /「토요일 7시 웃으면 좋아요」
웃음의 정답을 찾기 위한 끝없는 행진·구은서
- 100 매거진 킬링
그 좋은 기회를 왜 놓쳐 버렸을까·박세호
- 102 시청자를 위한 방송이야기⑥ /프롬프터 (Prompter)
공인 받은 컨닝페이퍼(?)·박일근

SBS 문화실록

- 104 영화 /레오스 카락스의「폰테프의 연인들」
황홀하고 절망스러운 영화의 한정·정성일
- 106 가요/가요계의 신(新) 남존여비 현상
여자 갖고는 장사가 안돼서...·김상일
- 108 공연 /한국로얄오페라단의 창단공연작「준희」
문화적 자존심으로 커나가길 바란다·한상우



- 4 커비스트리 / 재그맨 마이신
별난 웃음 주는 별나지 않은 여자·장영운
- 10 새 드라마 / 「여형사 8080」
다시 등장한 수사물의 미녀 삼총사·김은영
- 16 이렇게 바뀔니다 / TV프로그램 시간대 조절
편리한 시간에 편하게 즐기십시오
- 18 이 프로그램에 기대한다 / 「궁합이 맞습니다」
'잘찍 궁합'이 뭐 별건가·구은서
- 24 그것 보셨어요? / SBS-TV가 선보이는 애국가
낮고 가까운 곳으로 내려온 친근한 노래
- 26 취재의 현장에서 / 폭풍이 몰고 간 LA 코리아타운
모순의 바다에 놓여 멀리하는 코포사회·김용명
- 여기는 792, SBS 라디오입니다
- 32 지금 생방송 중 「그대 이름은 여성」
삶의 주인으로 이끄는 방송여성학·이성아
- 36 792초대석 / 「이규학의 건강 만세」 이규학 박사
유쾌하고 건강한 삶으로 이끄는 길잡이·박건삼
- 38 현장중계 / 제2회 SBS 고무노래차랑
노래 속에 고이드는 시어머니 머느리 사망·이병률
- 42 라디오는 즐거워 / 제1회 SBS 라디오엔터핑
라디오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김경태
- 48 매거진 수신탑
알뜰한 중재자 노릇도 방송이 해야 할 일·신승철
- 51 6월의 화제 여섯·윤종영
- 58 92년을 달린다 / 탤런트 오대규
겉보다 속이 더 갈색진 모범생·신선화
- 60 나도 SBS맨 / SBS관현악단과 채널6
음악이 있는 무대의 변함없는 고정출연자·김일중
- 64 초점 / SBS 2기 탤런트 서영주와 김지수
화려하게 열린 행운의 신인시대·남지혜
- 67 내일을 향해 뛰다 / 7인의 SBS 여자유망주
전수진·이지현·고희경·김형숙·박현정·이혜선·
한수진
- 76 유선방송, 어떻게 열여덟 것인가·한금태
- 80 빛돌이 소식 / SBS농구단, 성공적인 무대 데뷔
투쟁을 열여덟이 역시 소문대로였다·천인식
- 82 프로그램 탐험 / 「SBS 스포츠 스포츠」
한밤의 스포츠가 가져다주는 색다른 즐거움·김정희
- 88 큐 스튜디오 / 「지구촌 퀴즈」
웃음과 함께 떠나는 세계의 정보기·박성혜
- 94 기자의 눈
카메라는 렌즈보다 강하다·배성혜
- 96 시청자를 위한 방송이야기 7 / 문자발생기
TV의 생각을 그려주는 컴퓨터 연필·최장용

SBS 문화살롱

- 98 영화 / 올리버스톤의 정치영화 「JFK」
가짜의 방법으로 끌어내는 '진실'의 역사·정성일
- 100 가요 / 대중가요의 노랫말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진정한 '생활 속의 시'를 기다린다·이진규
- 102 연극 / 부조의 시대의 부조극에 대하여
불분명한 절망과 희망의 관계·이영미

- 104 공연 / 제11회 국제현대무용제를 보고
이제는 양보다 질을 생각해야 할 때·김경애
- 106 매거진 컬럼
1등이 못하는 것을 찾아라·권오승
- 108 시청자가 쓰는 이달의 방송평 / 「금잔화」를 보고
그리움의 향기를 내는 세련된 영상미·강해리

- 4 커비스트리 / 「출발! 서울의 아침」의 장재근
또 하나의 신기록 향해 달리는 즐거운 변신·정인재
- 10 새 드라마 / SBS 소설극장 제5화 「장미정원」
취미된 운명, 끝없는 인생유전·남지혜
- 16 새 프로그램
「천하무적 오버트」 「인어공주」 「잠깐! 경제메모」
- 19 새 얼굴 / 「SBS 8 뉴스」 일요일 앵커, 정성근과 김영
일요일 저녁을 책임질 뉴스메신저
- 20 바르셀로나 올림피, SBS와 함께 / 올림피 편성
바르셀로나의 합성을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 30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SBS의 위상
케도에 올라선 지금부터가 시작이다·김우봉
- 34 SBS 리포트 / 개국 6개월만에 놀랍게 큰 SBS-TV
다양함을 원하는 시청자의 확실한 선택·이철호
- 37 다녀왔습니다 / 언론인의 한마당, 제41차 IPF 총회
그곳이 험기러였기 때문에 더욱 컸던 보람·엄광석
- 41 7월의 화제 여섯·윤종영
- 48 매거진 컬럼 / 꼴찌에게 보내는 갈래·선성치
- 52 초점 / SBS에서 새롭게 날개 펼치는 연출가 김한영
늘 현장에 있고 싶은 천생 '방송쟁이'·김정희
- 54 나도 SBS맨 / 「생방송 행복찾기」의 살림꾼 이근영
"하고 싶은 일 많아 먹고 싶은 것도 많지요"
- 56 92년을 달린다 / 탤런트 오아람
오래도록 마음을 끄는 조용한 여운·천인식
- 여기는 792, SBS 라디오입니다
- 60 지금 생방송 중 / 「달빛노래」
옛친구처럼 다가오는 친근한 여유·김병록
- 64 792초대석 / 「서울이야기」의 진행자 심우성



어제 속에서 내일을 보는 서울 지킴이·정유정

- 66 역시 SBS 라디오! / 5월의 햇살을 우리모두 함께
소중한 마음, 따뜻한 라디오·전운표
- 68 라디오는 즐거워 / 92 SBS 잠버가요제
에비가수들의 새로운 희망봉·신선화
- 73 지상극화 / 「시사진단 핵심」-워싱턴 동경
유연 주재 미국대사 전 커크페트릭에게 듣는다
- 78 TV년퍼선 / 「그것이 알고 싶다」를 다시 본다
사라지는 남자들·김기우
- 83 제각의 위안길 / 「그것이...」-「정체불명의 지하음」
외문은 또 다른 외문을 낳는다는데...·안학복
- 88 방송의 현장 / 「92 신발 어머니와 딸」
세대차이 뛰어넘는 아름다운 '추억 만들기'·김혁
- 92 프로그램 탐험 / 아침드라마 「겨울새」
약하지만 강한 여자의 겨울같은 사랑·이성아
- 98 PD일기 / 「푸른일기」특집 「라이파이한 눈물」
더위 속의 강행군, 다 담지 못한 눈물·신원훈
- 102 매거진 수신탐
민주주의는 대화의 예술이다·천영우
- 104 시청자를 위한 방송이야기⑧ / 정치화상자료 보관소
관리하고 신속한 영상자료의 공간·김성식

SBS 문학살롱

- 106 영화 / 뒤라스의 「연인」과 장 자크 아노의 「연인」
「사랑」으로 끈뭇은 문학과 영화의 만남·정성일
- 108 가요 / 「델」과 「리믹스」가 불러온 가요계의 지각변동
소화제만 있다면 그리 나쁠 것도 없다·윤정수
- 110 연극 / 극단 연우무대의 「날아라 새들아」
어른들이 보아야 할 요즘 아이들의 삶·이영미
- 112 공연 / 글로리아 오케라단의 창단공연에 부쳐
또 한번 강조하고 싶은 '양보다 질'의 문제·이장직

1992. 8

- 4 커버스토리 / 기상단장 아나운서 박순심
날씨방송에 인기 몰고 온 발랄한 생기·정인재
- 10 8·15 특집 프로그램 / 「I 다큐」「초대받은 폭풍」
한국으로 부는 일본열도의 바람·윤종희
- 16 8·15 특집 프로그램 / 「I 다큐」「마복열전」
끝나지 않은 민족의 비극·이성아
- 24 새 드라마 / SBS 월화극장 「비련초」
운명의 실로 묶인 옛사랑의 그림자
- 26 새 프로그램 / 「사랑만들기」
상상한 꿈들이 넘치는 텔레비전 미담·남지혜
- 30 새 프로그램 / 만화 & 외화
「몬키호테」, 「파프링스 수사대」, 「먼스터 가족」
- 32 꼼꼼히 짚어보니 / SBS-TV의 위상
시청자의 생활습관을 바꿀려는 신선한 충격·김영
- 38 PD일기 / 「오픈카메라」가 던져주는 웃음의 미학
허구의 틀을 깨뜨리는 예측불허의 즐거움·김병욱
- 42 취재의 현장에서
특종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이선명
- 45 8월의 화제 여섯·윤종영



- 52 매거진 수신탐
스포츠정신과 카메라·임순철
- 54 방송지구촌
지구 반대쪽에서 만난 타산지식의 교훈·김형민
- 58 초점 / 최양락·이봉원과 이성미·박미선 콤피
보태주고 나눠가며 길이길이 잘나갈 화공들·김태성
- 62 92년을 단련다 / 방송이 개그맨 장태준과 장명준
서로를 겨울 삼아 웃겨온 「평과대」·김일중
- 64 나도 SBS맨 / 「자니윤 이야기쇼」의 김초 김세환
탐색전 끝에 꺼져든 창색기발·이기진
- 여기는 792, SBS 라디오입니다
- 68 지금 생방송중 / 「서출전장대」
구석구석 보여주는 세상 더듬이·박경희
- 72 라디오는 즐거워 / 「신세대 콘서트」
화끈하게 살아있는 진짜 소리의 현장·정유정
- 76 SBS 리포트 / SBS 라디오 청취행태 및 선호도
새시대의 선두를 향한 도약대 위에 섰다·이선경
- 80 특파원 수첩 / 시민의식과 진짜 민주주의·백나현
- 82 프로그램 탐험 / 「생방송 행복찾기」
내속에 숨어있는 행복과 약속하는 기쁨·김은영
- 88 큐 스튜디오 / 「알뜰살림 장만플러스」 200회 특집
살림재미에 빠진 알뜰부부의 발방이 잔치·김정희
- 94 방송의 현장 / 「우리들 세상」여름방학 특집
「학교수업도 이렇게 하면 좋겠네」·신선화
- 100 매거진 원전
변화와 위기는 곧 역전의 기회·최점수
- 102 시청자를 위한 방송이야기⑧ / 편성이란 무엇인가
애인의 마음을 잡기 위한 치밀한 구애작전·유세경
- 105 TV년퍼선 / 「그것이 알고 싶다」를 다시 본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김기우

SBS 문학살롱

- 110 영화 / 팀 버튼의 리얼리즘 해체, 「배트맨 2」
날고도 새로운 세기말적 상상력·정성일
- 112 가요 / 가요 PD가 바라본 올해의 가요계
랩의 돌풍속 온갖 리듬의 경연장·김상일
- 114 연극 / 공연계단 두레의 셰익스피어 연극 「태풍」
「대중성」과 「깊이」라는 두마리의 토끼·이영미
- 116 상트 페테르부르크 필하모닉 내한공연
진하고 풍부한 슬라브의 내용·한상우



1992-9

- 4 커머스토리 / 아나운서 최선규
움직여야 살맛 나는 이웃집 남자·정인재
 - 10 새 드라마 / SBS 소설극장 「물 위를 걷는 여자」
우정과 사랑의 깊고 고독한 여정·유미혜
 - 17 새 드라마 / 월화드라마 「비련초」
채워지지 않는 사랑의 빈자리·박성례
 - 22 이렇게 컸습니다 / 「초특급 꾸러기 대행진」
코미디 고지 점령하게 될 초대형 상륙작전·김태성
 - 28 SBS 리포트 / SBS-TV 인기도, 놀라운 수직상승
쑥쑥 크고 있는 '물오른 나무'
 - 30 추석 특집 프로그램 / 드라마 「파란 눈의 며느리」
변함없이 따스한 가족의 의미·남지혜
 - 34 추석 특집 프로그램 / 오락·행사
넉넉한 마음, 볼 것 많은 한가위
 - 40 출발! SBS 전국시대 / [1] SBS 수도권 전국
"전국시대로 가는 첫걸음, 우리가 내딛었습니다"
 - 44 출발! SBS 전국시대 / [2] 서기 2002년의 SBS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는 국민의 방송·하금렬
 - 48 매거진 컬럼
코끼리와 수도물, 시청률의 삼각함수·이시권
 - 51 9월의 화제 여섯·윤종영
 - 58 나도 SBS엔 / 출발! 서울의 아침」리porter 김승규
긴 팔과 열린 눈을 가진 현장의 사나이·박경희
 - 60 92년을 달린다 / 개그맨 신동엽
앞뒤 안맞는 세상 바와는 부조리 철학자·김일중
 - 64 특파원 수필
가도가도 끝없는 '할 일 많은' 세상·오효진
- 여기는 792, SBS 라디오입니다
- 68 '92 SBS 라디오 가을철 프로그램 개편
뉴스와 정보가 가득찬 쓸모있는 라디오·김유주
 - 72 지극 생방송중 / 「스포츠 저널」
균형있는 스포츠 발전을 꿈꾸는 작은 몸짓·이철아
 - 76 방송의 현장 / 「기쁜 우리 젊은날」특집
젊은 가슴 모아 그린 여명의 추억·신은영
 - 80 마르셀로나 올림피아 방송을 마치고 / [1] 취재
몸으로 때워가며 보여준 소수정예의 자력·권태인
 - 84 마르셀로나 올림피아 방송을 마치고 / [2] 중계

- 경기장 못지 않게 치열했던 일당백 경기·유현
- 86 큐 스튜디오 / 「SBS 인기가요」
삼박자 고무 갖춘 인기가요 최전선·구은서
 - 92 프로그램 탐방 / 「출발! 서울의 아침」
아침에 만나는 '방송신문'·김은영
 - 100 시청자를 위한 방송이야기 / 「프로듀서
면 뱃길을 책임지는 수석 키킵이·이남기
- SBS 문화실롱
- 104 영화 / 원 카이제의 「현위의 인생」
망명하는 자의 슬픔, 그 존재의 무게·정성일
 - 106 가요 / 세상의 모든 '음악사기꾼'에게 고향
아는 것인가, 아는 척하는 것인가?·이진규
 - 108 연극 / 스타에 의존하는 우리 연극
작품이 아니라 배우를 보러 가는 세상·이영미
 - 110 공연 / 세코 프라하 소년소녀합창단 내한공연
합창음악의 동반자로서의 방송의 모습·이창직
 - 112 지상녹화 / 「시사진단 핵심」-워싱턴 동정
부시 미대통령 전비서실장 존 스누누에게 듣는다.
 - 116 TV년픽션 / 「그것이 알고 싶다」를 다시 본다
게이, 성(性)의 두 얼굴·김기우

1992-10

- 4 커머스토리 / 「그것이 알고 싶다」MC 문성근
알 수 없는 세상 응시하는 '생각하는 광대'·정인재
- 10 새 드라마 / 일일 아침연속극 「겨울새」
인생의 드락에 내리는 가을안개·유미혜
- 16 새 프로그램 / 「스릴버그의 에이징 스토리」
놀랍고 신비한 환상특급
- 20 축하합니다 / 한국방송대상에서 7개 부문 수상
알곡으로 거뒀던 첫해의 결실
- 26 창사특집 프로그램 / 다큐멘터리 「한국영화 70년」
일흔 나이 되어서야 돌아보는 뒤안길·박성호
- 30 창사특집 프로그램 / 「태평양 종단퀴즈」
퀴즈박사들의 대장정·이계진
- 우물안 개구리의 잊지 못할 추억여행·이태윤
- 38 SBS 광장 / SBS 창사 2주년 기념 공연 두편
보헤미안이 펼치는 수준높은 서정
- 40 SBS 광장 / 제1회 한국 수피모델 선발대회
세계 속의 한국모델을 찾습니다
- 자랑할 만합니다 / 최신의 첨단장비 갖춘 중계차
스튜디오의 개념 넓혀준 방송기동대·김병복
- 46 PD일기 / 「꾸러기 카메라」의 뒷 이야기를
잠시 후를 알 수 없는 위기일탈의 연속·연태룡
- 51 10월의 화제 여섯·윤종영
- 58 매거진 컬럼 / 집에서 배우는 인생·유자효
- 60 나도 SBS엔 / 아가꾸러기 인명국
"어른들의 세실적 기억을 찾아드립니다"·김태성
- 62 92년을 달린다 / 「출발! 서울의 아침」MC 이종은
도시의 아침을 여는 상큼한 웃음·김일중
- 64 초점 / 이명우와 정나운
진짜들도 무색해진 인건복사기·박재연

여기는 792, SBS 라디오입니다

- 68 지금 생방송 중 /「밤이 흐르는 곳에」
포근한 여유가 있는 마음의 섬터·박성례
- 72 792초대석 /「트로트 대행진」DJ 이세훈
타고난 감각으로 이끌어내는 트로트한국·정유정
- 74 방송의 현장 /「이성미 박미선의 신나는 오후 2시」
환상의 콤피와 함께 벌인 웃음잔치·박정희
- 78 SBS-TV프로그램 복제 판매 개시
미디어로 만나는 좋은 방송 좋은 기억
- 80 큐 스튜디오 /「주부만세」
주부라는 직업이 자랑스러워지는 시간·이성아
- 86 프로그램 탐험 /「독점! 연예정보」
깊은 감각, 빠른 정보, 정통한 소식·김은영
- 92 매거진 수신탑
방송이 말아야 할 어른 노릇·이연숙
- 94 첨단방송의 세계 /디지털 오디오 테이프(DAT)
오디오의 세대교체 이들 꿈의 녹음기·이형원
- 96 시청자를 위한 방송이야기 /「텔레비전 뉴스 앵커」
시청자와 뉴스를 잇는 튼튼한 다리·맹형규
- 100 지상녹화 /「사사진단 핵심」·워싱턴 동정
전 나도 사랑한 알렉산더 헤이그 장관에게 듣는다
- 105 TV 너박선 /「그것이 알고 싶다」를 다시 본다
최후의 참소·김기우

SBS 문화살롱

- 110 공연 /UN 마약퇴치 친선대사 정트리오 초청연주회
깊은 의미가 더해져 더욱 아름다운 음악·한상우
- 112 영화 /가장 미국적인 상업영화 /「패트리오트 게임」
테크놀로지로 장식한 보수주의의 얼굴·정성일
- 114 가요 /1992 가을, 그룹사운드는 부활하는가?
화려하게 되살아나는 절친 생생력·윤정수
- 116 연극 /「찌꺼기들」과「영자와 전쟁」
‘선한 인간’이란 신화속의 존재인가·이영미

1992. 11

- 4 키비스토리 /「지구촌 퀴즈」MC 이영현
밝고 영리한 신세대 미인의 표상·정인제

서울방송 창사 2주년 특집 프로그램

- 12 드라마 /30부작「관촌수필」
고스란히 맛보게 될 그 시절 그곳의 정서·김은영
- 18 드라마 /3부작「아더로 가나」
다시 볼 지퍼야 할 따스한 가족애·김병목
- 22 다큐멘터리 /6부작「동구프로, 다뉴브의 새물결」
전환시대 한가운데서 표류하는 개척·양철훈
- 28 다큐멘터리 /4부작 해외기획「슬워는 국토」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사는 미래향을 위하여·박홍로
- 32 다큐멘터리 /2부작「서울 영상리포트」
그래도 서울은 살만한 곳 아니던가·윤동혁
- 36 다큐멘터리 /「수난시대 중앙아시아의 한인들」
위험한 삶, 멀고 먼 조국
- 39 라디오 /「소리의 고향을 찾아서」
빛바랜 사진같은 고향의 향기·박진산



- 42 행사 /「태평양 종단퀴즈」
따뜻하고 기쁘게 건너온 태평양 퀴즈탐험·이상훈
- 46 특별 생방송 /「기쁨주요 사랑받고」
오락·행사·공연
- 52 방송지구촌 /1만부불짜리 빛줄은 개살구·김성호
- 55 11월의 화제 여섯·윤종영
- 62 92년을 달린다 /「관촌수필」의 텔런트 권소정
즐거움 이름때문에 빠진 스물다섯 ‘용정이’·김종혁
- 64 나도 SBS면 /「쇼! 서울 서울」의 MC 정재환
화려한 춤꾼으로 변신한 개그계의 신사·김일중

여기는 792, SBS 라디오입니다

- 68 지금 생방송 중 /「노래한마당」
터지는 웃음과 함께 하는 즐거운 점심시간·박성례
- 72 792초대석 /「이미자의 가요앨범」DJ 이미자
살아있는 애정으로 가득 찬 진지한 목소리·박정희
- 74 방송의 현장 /「기쁜 우리 젊은 날」-「오기나 말거나」
오는 말길 막지 않는 라디오 사랑채·신은영
- 77 PD일기 /92년 하반기 취입 특별방송을 마치고
라디오국을 묶어버린 전화벨소리·이정은
- 80 매거진 수신탑 /유리벽 없애기·유평환
- 82 새 드라마 /수목드라마「사랑하는 당신」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건 오직 사랑뿐·유미혜
- 88 새 드라마 /소설극장 제7화「모닥불에 타친다」
어둠 땅에서 켜 그 사람의 불씨·이성아
- 94 매거진 토크 /소주 한 잔의 행복·황효진
- 100 SBS광장
서울방송 창사2주년 기념세미나·서정우, 이덕주
- 108 지상녹화 /「사사진단 핵심」-워싱턴 동정
「공산주의 붕괴는 새로운 세계질서의 시작」
- 113 TV 너박선 /「그것이 알고 싶다」를 다시 본다
기적인가, 사술(邪術)인가?·김기우

SBS 문화살롱

- 118 영화 /영화의 이단아, 코엔형제의「바론 핑크」
상식을 허용하지 않는 사운드의 풍경화·정성일
- 120 가요 /평위로 올라온 언더그라운드 가수들
붙은 더욱 따뜻할 것·김성일
- 122 연극 /서울연극제, 그리고 미스터말마·이영미
연극의 재미는 끝내 만날 수 없는 강일까·이영미
- 124 공연 /세로 아나츠 필하모닉과 국립 오케라단
결과·속이 한결같았던 알찬무대·이장직



“아빠,
전 따로 갈래요.”

중학생 아들 녀석이 어느 날 갑자기
같이 목욕가기를 '거부' 할 때 -

“응? 아니 왜?”

“그냥요.”

“아빠 등은 누가 말어 주고?”

“.....”

사춘기는 이런 식으로 시작됩니다.
집보다는 친구를 찾아 밖으로만 나타나고
가끔 부모에게 뽀갸를 숨기는 것도 같고...
달라진 자식의 모습에 서운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새는 스스로 하늘을 날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자녀의 인격을 인정해 줄 때입니다.
알을 깨고 '따로' 어른이 되어 가는 모습을
호뭇한 마음으로 지켜 볼 때입니다.
'그래, 너도 이제 다 컸구나' 하면서
한반쯤 자녀의 등을 툭툭 두드리 주세요.
늘 관심과 대화의 끈을 놓지만 않는다면
당신의 자녀는 건강한 어른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공익광고협회」는 광고를 통해 보다 밝고 살기 좋은 사회를 건설하고자 한국방송광고공사에 의해 자체 전문인사들로 구성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비영리기구입니다.
공익광고에 관해 질문이 계신 분은 731-7405/7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SBS-TV주간 기본 편성표

Ch-6

1992년 12월 15일 현재

시	분	월	화	수	목	금	시	분	토	일	분	시						
AM	10	SBS 뉴스						AM	10	SBS 뉴스	특선 다큐멘터리	AM						
6	30	SBS 생활 영어						6	30	SBS 생활 영어		6						
7		출발! 서울의 아침						7		토요특집 출발! 서울의 아침	젊은 인생	7						
8	20							8	20	남편은 요리사	SBS 뉴스	10						
	40							남편은 요리사	8	40			가을여자					
	05							아침연속극 가을여자		05	토요특집 알뜰 살림 장만퀴즈	가족특선 만화 잔치	9					
9	35	반디네 집						9	40	SBS 뉴스	SBS 뉴스	50						
10		SBS 창사특집 30부작 드라마 「관촌수필」						10		생방송 행복찾기	SBS 일요스포츠	10						
11		 민구의 집에 찾아온 탁발승이 장차 자식도 못할 아들은 민구 뿐이라고 하여 민구모는 우울해진다. 소금창고에서 재작중이던 뼈라를 발견한 병남은 경찰서에 신고하고, 민구 아버지는 민선생과 최동지, 양동지를 폭탄으로 탈출시킨 채 경찰서로 달려가는데... 양동근, 권소장 등 젊은 연기자들과 박근형, 유여창 등 중견 연기자들의 조화로운 연기가 돋보이며, 우리 옛 모습의 향수가 진하게 배어있는 창사특집 드라마 「관촌수필」은 월, 화요일 밤 9시 50분부터 1시간 동안 방송됩니다.						11		창사특집 다큐멘터리 한국영화 70년	11							
PM	12							SBS 뉴스						PM	12	SBS 문화광장	SBS 일요영화	PM
1														1	50	사랑의 징검다리		1
2								2		스포츠 중계		2						
3								3				3						
4	10	SBS 뉴스						4	10	코미디 전망대 (재)	웃으면 좋아요 (재)	10						
5	10							5	10	쇼, 서울서울	지구촌 퀴즈	10						
6	35	SBS 뉴스						6	05	내가 진짜 스타	초특급 꾸러기대행진	6						
7	05							7		토요일 7시 웃으면 좋아요		7						
8	45	SBS 8 뉴스						8	45	SBS 8 뉴스		45						
	50	반디네 집							55	SBS 스포츠 뉴스		55						
9	45	SBS 소설극장 모닥불에 바친다						9	55	SBS 주말극장 모래위의 욕망		55						
	50	SBS 헤드라인 뉴스								자니윤 이야기쇼								
		SBS 창사특집 30부작 드라마 관촌수필						10	50	 미스터리 다큐멘터리 그것이 알고 싶다		10						
	55	SBS 스포츠뉴스							55			55						
11	50	SBS 뉴스						11	55	제3극장		11						
AM	12	SBS 마감 뉴스						AM	12	SBS 뉴스		AM						
										SBS 바둑최강전								

SBS 라디오 주간 기본 편성표

SBS AM 792 KHz HLSQ

1992년 12월 15일 현재

시간	분	월~토	일	분	시간
AM	5	뉴스		05	AM 5
		마음은 언제나 청춘 •진행 / 변순복 •연출 / 이재춘			
	05	뉴스		05	
		출발 성공시대			
6	30	뉴스			6
	35	•진행 / 권오근 •연출 / 김국은			
					
7	20	아침 종합 뉴스	아침 종합 뉴스	10	7
	25	이규학의 건강만세 •연출 / 이영일	이규학의 건강만세	15	
	30	공항정보	〈일요판〉 서울전망대		
		서울전망대			
8	30	SBS 뉴스 센터	일요 초점		8
	55	•진행 / 김종천 •연출 / 김동운	작은사람, 큰 이야기	30	
		자동차 문화 •진행 / 선우효웅 •연출 / 이정문		55	
9		그대 이름은 여성 •진행 / 민창기, 송도영 •연출 / 박동주			9
10					10
11		지구촌 24시 •진행 / 조경철 •연출 / 박성원			11
PM	20	정오 종합 뉴스	정오 종합 뉴스	10	PM 12
		노래 한마당 •진행 / 박일, 정재윤 •연출 / 김광태			
1					1
2		이성미, 박미선의 신나는 오후 2시 •연출 / 김상일			2
3	55	녹색시대 •진행, 연출 / 이영일			3
4		트로트 대행진 •진행 / 이세훈 •연출 / 이진규	신세대 콘서트 •진행 / 홍서범 •연출 / 신용현		4
5			이미자의 가요앨범		5
6		수도권은 지금 •진행 / 송경철 •연출 / 전용표	•연출 / 박건삼		6
7	20	뉴스 대행진	뉴스 대행진	10	7
8		스포츠 저널 •진행 / 안지영 •연출 / 오기현			8
9		달빛노래 •진행 / 임국희 •연출 / 김광태			9
10		•매시 정각 30분에 뉴스	•매시 정각에 뉴스		10
			기쁜 우리 젊은날 •진행 / 윤종신 •연출 / 윤정수		11
AM	12				AM 12
1		밤이 흐르는 곳에 •진행 / 유영미 •연출 / 신형철			1

•기상정보 / 06 : 55, 21 : 10(월~토) •도로정보 / 정시, 30분 뉴스 후(오전 7 : 00~오후 9 : 00)



정직과 성실의 20년-태영 탄탄한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종합건설회사 태영은 더욱 다양한 부문에서
하나하나 새로운 명성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고도의 전문기술로 이루어낸 수많은 종합플랜트 건설에서
대형 건축공사의 성공적수행에 이르기까지—

태영은 지난 19년간 신뢰의 씨앗을 뿌려 왔습니다.

새로운 생활문화와 풍요로운 미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성실과 정직으로 일관해 온 태영의 굳은 의지!

이제 값진 결실을 하나둘 거두고 있습니다.

토목과 건축·주택·플랜트·탱크터미널·씨어로

·화학·레저·방송 그리고 기초과학산업의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에 진취적인

도전정신과 참다운 실력을 갖춘 내실있는 기업.

태영은 끊임없는 노력으로 더 큰 신뢰를 쌓아가겠습니다.

"건강한 방송, 건강한 사회"를
방송이념으로 민영방송의
새로운 장을 펼쳐가고 있는
SBS 서울방송은 세계화, 다
양화, 고급화된 시청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국민의
건강한 정서함양과 올바른
여론형성에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태영산업·태영레저·태영화학·서울방송·서암학술장학재단



GoldStar

신뢰의 상표-금성



럭키금성

평평할수록 더욱 선명하다!

가장 평평한 슈퍼플랫 브라운관—
금성만의 정교한 영상기술입니다.

수퍼플랫 브라운관 곡면

배가나온 일반 브라운관



■ CNR-2999S

₩ 1,498,000

국내최초

수퍼플랫브라운관 채용—

금성 미라클 블랙

화질을 개선하는 브라운관 개발
바로, 금성TV의 역사입니다!



FST™에 수퍼플랫 브라운관으로—
2.5배 평면화된 수퍼플랫브라운관,
구석구석까지 영상재현이
정교합니다.

CCD촬영에서 2배액티브브라운관으로—
30%의 화질향상을 이루었으며,
On/Off 시 번지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백인년 역공 - 선행도

- 산소재 Invar
- 알루미늄 - 마스크
- 전자총구경 확장



출발한 최보서준도

- 수퍼무피
- 사운드 스피커



고객 상담 센터
무선 상담도
고객 상담 센터
무선 상담도

금성칼라TV
금성사